

국립국어원 2024-01-5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1018-01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연구 책임자

정 승 철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4년 4월 ~ 2024년 11월

2024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정 승 철(서울대학교)

사업 수행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정승철

공동 연구원 김덕호, 김수영, 신우봉, 이상신,
임석규, 정인호

연구 보조원 고은향, 김고은, 김동은, 김민지,
김영규, 김유겸, 김인규, 김주성,
김한중, 박정순, 박주성, 배윤정,
백은아, 안미화, 오청진, 윤예진,
이재섭, 이철희, 이현주, 임홍연,
전진호, 정성경, 최준호, 허유진,
현혜경, 홍석우

<사업 수행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정승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덕호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수영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신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석규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인호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 보조원	고은향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김고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동은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김민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영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김유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인규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주성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교수)
	김한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정순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주성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배윤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백은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안미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오청진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윤예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재섭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철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현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임홍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진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성경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강사)
	최준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허유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현혜경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홍석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이 연구는 지역어 변이 조사를 통해 한국어에 관한 언어 다양성 보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대별·성별 요소에 따라 분화된 지역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 및 정비하여 실제의 언어생활이나 언어 정보화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및 각 지역의 언어문화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 가능한 언어 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물들이 연차적으로 축적된다면 한국어의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한 언어 관측 자료 또는 표준어를 포함한 언어 다양성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작업 결과를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질문지와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보완하였다. 2023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결과를 참조하여, 500개 내외의 어휘·표현 항목 및 2시간 조사 분량의 구술 발화 항목을 포함하는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2024)를 개발하였다. 특히, 어휘·표현 항목 가운데 100여 개 항목을 별도로 추려서 전통 지역어형의 사용도·인지도가 조사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질문지를 통한 조사 및 결과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관한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을 정밀화하였다.

둘째, 세대별·성별 요인에 따른 언어 변이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서술하기 위해 해당 조사 계획의 작업 절차에 따라 실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준비된 질문지와 조사 지침을 바탕으로 전국의 9개 지점(의정부, 강릉, 홍성, 제천, 김천, 진주, 남원, 여수, 제주)을 선정하여 지점별로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의 남녀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그중 경기는 20대 및 70대 이상 각 1명과 50대 남·여 각 1명(총 4명), 제주는 세대별 각 1명(총 3명)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준비된 전사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2022년-2024년에 조사된 결과물에 대하여 지역별·세대별·성별 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0대 이상에서 전통적 방언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으며, 20대에서 몇몇 새로운 언어 변화의 모습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지역어, 언어 변이, 언어 다양성, 언어 변화, 표준어

<Abstract>

Language Variation Survey by Generation & Gender on Korean Dialects, in 2024

This research aimed to secur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anguage diversity preservation policies for the Korean language through a Language Variation Survey. To this end, the research investigated regional dialect varieties differentiated by generation and gender, and the findings were used to establish various language content databases that can be utilized for real-world linguistic practices and language informatization, as well as language diversity databases that can serve as language and cultural archives for each region. If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are accumulated annually, they will be used as language observation data for analyzing the trend of changes in the Korean language or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anguage diversity policies including standard language. The specific outcomes of this study are outlined as follows.

First,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Language Variation Survey by Generation & Gender on Korean dialects, the existing questionnaires, as well as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transcription, and result organization, were supplemented.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2023 Language Variation Survey, the Language Diversity Survey Questionnaire (2024) was developed, which includes around 500 vocabulary and expression-related items and approximately 2 hours' worth of oral utterance-related items. Notably, approximately 100 of these items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usage and recognition of traditional dialect forms. Additionally, to ensure the systematic execution of the survey and the organization of results, the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transcription, and result maintenance were refined.

Second, to identify regional language variation based on generational and gender factors and to describe its characteristics,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llowing the established procedures outlined in the survey plan. The survey was conducted across nine regions (Uijeongbu, Gangneung, Hongseong, Jecheon, Gimcheon, Jinju, Namwon, Yeosu, and Jeju), where male and female informants from three different generations (20s, 50s, and 70s+) were interviewed in each region. Among them, Gyeonggi surveyed 1 individual in their 20s and 70s+, and 1 male and female in

their 50s (total 4 people), and Jeju surveyed 1 informant from each generation (total 3 people). Furthermore, transcription and refinement of the collected data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repared guidelines.

Third,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in 2022-2024 were analyzed by regional, generational, and gender factors. As a result, it was mentioned that traditional dialect types were maintained to some extent in those over 70, and some new linguistic changes were observed in those in their 20s.

Key Words: Dialect, Language Variation, Language Diversity, Language Change, Standard Language

차 례

제1장 사업 개요

1.1. 목적	2
1.2. 과업 범위	2
1.3. 수행 절차	3

제2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2.1. 조사 질문지	8
2.2.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	20

제3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3.1. 조사의 방법과 과정	24
3.2. 전사 및 표준어 대역	26
3.3. 조사 및 전사 자료 검토	28

차 례

제4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4.1. 어휘·표현에 관한 분석	35
4.2. 구술발화에 관한 분석	57
4.3. 종합 분석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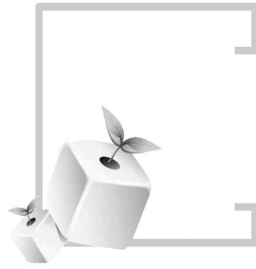
제5장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5.1. 사업 결과물	68
5.2. 의의 및 기대 효과	68

참고 문헌	7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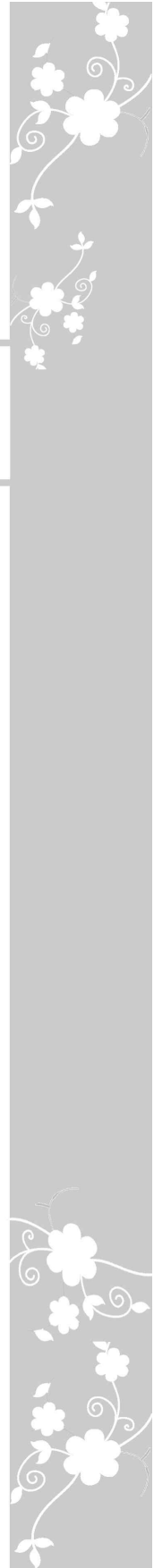
부록

[붙임 1]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75
[붙임 2] 전사 자료 정비 지침	114
[붙임 3] 분절화 작업 지침	129



제 1 장

사업 개요



제1장 사업 개요

1.1. 목적

- (1) 세대별·성별 변인에 따른 지역어의 변이 양상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어 소멸 및 표준어 확산, 신방언 형성 등 지역어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각 지역어의 세대별·성별 변이를 조사·확인하고 해당 변이의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어 변화 양상의 사실적 파악과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변화 추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언어정책 수립의 객관적 지표로 삼고자 한다.

1.2. 과업 범위

- (1)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를 대상으로 교체 및 수정 항목 선별 후 질문지를 보완한다. 아울러 이들에 관한 조사·전사 및 결과물 정비 지침(<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전사 자료 정비 지침>,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 이를 수정, 정비한다.
- (2)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실시: 준비된 질문지와 조사 지침에 따라 도별 9개 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49인의 제보자를 조사한다.
 - 1개 지점(경기 의정부): 총 4인
 - 50대: 남·여 각 1인
 - 20대, 70대 이상: 세대별 각 1인
 - 1개 지점(제주시 함덕): 총 3인
 -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각 1인
 - 그 외 7개 지점: 총 42인
 - 지점당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여 각 1인

(3) 조사 결과물 작성 및 정비: 준비된 전사 및 정비 지침에 따라 2024년에 조사한 결과물에 대해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

(4) 조사 결과의 분석·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2022년~2024년에 조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각 지역어 어휘·표현 및 구술발화의 특징적인 언어문화 양상을 지역별·세대별·성별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1.3. 수행 절차

(1)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4월~5월

▷ 절차: 국립국어원의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질문지 수정 ⇨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조사·전사·정비 지침을 수정·보완 ⇨ 수정한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와 <조사·전사·정비 지침>에 대해 조사원들의 적정성 판단 ⇨ 최종 질문지 및 지침서 작성

-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자 워크숍: 4월 20일(토), 서울역 KTX회의실
- 사업 개요 설명, 조사 및 전사, 결과물 정비 등에 대한 조사원 교육 및 의견 수렴

▷ 질문지 정비

- 2023년 조사 질문지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의 결과 분석을 반영해 보완

▷ 조사 및 전사 지침, 결과물 정비 지침 작성

-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 사용한 조사·전사(엘란 프로그램 사용)·정비 지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 각 방언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별 전사 지침 보완
- 구술발화 조사에서 특정 주제의 편중을 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실시: 6월~8월

▷ 실제 조사

- 조사 지점: 전국 9지점(전국 9개도 각 1지점)
- 실 조사 지역: 강릉(강원), 의정부(경기), 진주(경남), 김천(경북), 여수(전남), 남원(전북), 제주시(제주), 홍성(충남), 제천(충북)

- 조사 대상: 제보자 총 49인
 - 42인: 7개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여(3대 이상 거주한 토박이) 각 1인
 - 4인: 경기도 1개 지점(의정부) 20대, 70대 이상 각 1명, 50대 남·여 각 1인
 - 3인: 제주도 1개 지점(제주시) 20대, 50대/70대 이상 세대별 각 1인
 - 조사 주체: 조사 경험이 풍부한 방언학 및 사회언어학, 음성학 전공 조사원
 - 조사 내용: 500항목 내외의 어휘·표현 및 2시간 내외의 구술발화
 - 조사 방법: 정해진 조사 지침에 따라 <2024년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 및 전문 음성 녹음기를 활용한 조사(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 결과 검토: 연구 경력이 오래된 지역방언·사회방언 전문가 연구원
- ▷ 조사 결과 정리를 위한 조사자 워크숍: 9월 6일(토), 서울역 KTX회의실
- 조사 및 전사, 결과물 정비 등 실제 작업에 대한 정보 교환
 - 1인 2제보자 조사 연구원은 9월 이후에도 조사 작업을 수행함.

(4) 조사 결과물 작성 및 정비: 9월~11월

- ▷ 전사 지침에 따른 녹음 파일의 형태음소 전사 및 표준어 대역 작성
- ▷ 정비 지침에 따른 녹음 파일의 항목별(어휘·표현) 혹은 주제별(구술발화) 분절
- ▷ 연구보조원은 자신이 조사한 녹음 파일에 대해 주어진 지침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연구원은 권역별로 분담하여 이를 검토함.
 - 음성 분절 작업: 어휘·표현 관련 지역어 음성 자료를 보편적인 웹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자료를 분절하고 다듬는 작업. 보편적 웹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음성 파일에서 개별 표제어를 추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함.
 - 주제별 분절 작업: 구술발화 음성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별 분류를 통해 자료 제시를 체계화하는 작업. 표준어 대역, 오류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자료 활용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등을 포함함.
 - 메타데이터 작성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으로, 비속어, 혐오·차별 표현 등을 삭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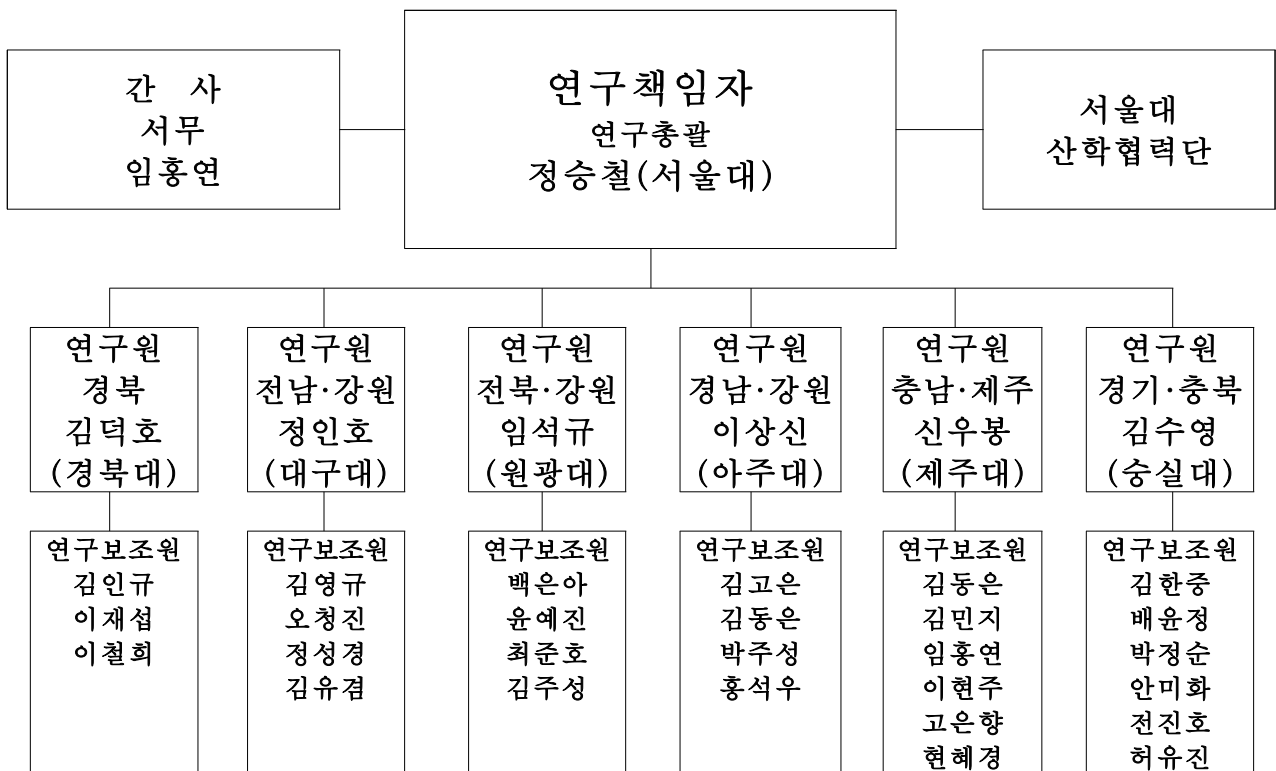
(5) 조사 결과의 분석·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12월

- ▷ 2022년~2024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분석 및 이에 대한 종합적

해석 시도

▷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 수행

- 지역어 어휘·표현의 특징적인 세대별 변이 양상 분석
- 지역어 어휘·표현의 특징적인 성별 변이 양상 분석
- 지역어 구술발화에 나타나는 언어문화 양상에 대한 지역별·세대별·성별 분석 및 해석(시범적)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어 소멸, 표준어 확산, 신방언의 형성 등 지역어의 변화 양상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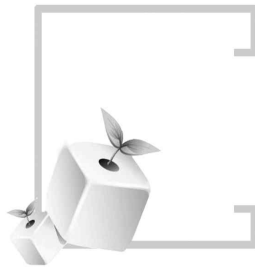


※ 7개 지점 3세대(20대, 50대, 70대 이상), 세대별 남·여 각 1명

1개 지점(제주시) 3세대, 세대별 각 1명

1개 지점(경기도 의정부) 20대·70대 이상은 각 1명, 50대 남·여 각 1명

<표 1> 2024년 지역어 변이 조사 수행도



제 2 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 지침서 정비



제2장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지침서 정비

2.1. 조사 질문지

(1) 작성 목적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별·성별에 따른 지역어의 변이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 거시적 구성

이 질문지는 서두, 구술발화 편, 어휘·표현 편으로 구성된다.

① 서두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 질문지 앞에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 ‘조사 일정’, ‘일러두기’를 첨부하였다. 참조를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아래 제시한다(‘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 ‘조사 일정’, ‘일러두기’는 첨부하는 질문지 및 조사·전사 지침 파일 참조).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전문)

② 구술발화

구술발화 질문지는 1. 조사 마을(동네)의 환경과 배경, 2. 일생 의례와 경험, 3. 생업 활동과 경제생활, 4. 의생활과 외모, 5. 식생활, 6. 거주생활, 7. 질병과 건강, 8. 세시 풍속과 여가 문화, 9. 언어 의식/태도 등 9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큰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세부 질문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③ 어휘·표현

어휘·표현 질문지는 직접 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조사 항목은 명사류를 중심으로 하되 동사류 및 부사류를 일부 첨가하였다. 어휘 질문지는 ‘인간과 자연, 사회생활, 경제생활,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문화생활, 언어생활, 일상표현’과 같은 9개의 주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각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소주제 항목으로 이

루어졌다.

다수의 항목에 <그림> 정보를 제공해 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로 표시된 부분에는 표제 항목에 대해 참고할 만한 상황을 제공해 조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조사 항목에는 <인지도/사용도>를 직접 조사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인지도/사용도> ① 사용 ② 이해 ③ 인지 ④ 무지

- 사용: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 이해: 써본 적은 있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
- 인지: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 무지: 써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3) 항목 번호

① 항목 번호 부여 기준

질문지의 모든 조사 항목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이 고유 번호는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번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분야 번호, 분류 항목 번호, 표제 항목 번호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분야’란 구술발화, 어휘 표현의 두 분야를 가리키며, ‘분류 항목’은 주제 항목(또는 소주제 항목), 그리고 표제 항목은 질문 항목을 의미한다.

분야 - 분류 항목 - 표제 항목 - 주 항목

② 주 항목 번호

- 구술발화의 주 항목 번호
 - 구술발화 조사 질문지의 주 항목 번호는 [보기]와 같이 만 단위(다섯 자리)로 한다.
 - 분야 번호는 만 단위 자리의 1, 분류 항목(대주제 항목) 번호는 백 단위 자리, 표제 항목(질문 항목) 번호는 십 단위 이하 자리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분야(구술)	분류 항목(대주제 항목)	표제 항목(질문 항목)
10000	10101	10101

[보기]

10101 이 마을(동네)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모른다면, 이 마을(동네)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510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먹을 때 주로 먹는 음식과 주로 가는 식당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외식은 주로 어떤 때 하십니까?

▪ 어휘 표현의 주 항목 번호

- 주 항목 번호는 [보기]와 같이 만 단위(다섯 자리)로 한다.
- 분야 번호는 만 단위 자리의 2, 분류 항목(소주제 항목) 번호는 천과 백 단위 자리, 표제 항목(질문 항목) 번호는 십 단위 이하 자리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분야(어휘)	분류 항목(소주제 항목)	표제 항목(질문 항목)
20000	21100	20101

[보기]

20101 가마(旋毛)

20102 새치

(4) 질문 항목 내역

① 수정 사항

- ‘구술발화’ 부문: 실제 조사 시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능한 한, 세부 질문 문항을 큰 질문 문항으로 묶어서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함. 조사 지점이 대도시여서 구술발화 속에 나타나는 제보자들의 생활 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약간의 차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대도시 지역 속에서도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편이 유용할 듯함.
- ‘어휘·표현’ 부문: 총 531항목(지역특수어 27항목 포함) 중에 신규 추가되거나 부분 수정 보완된 항목이 모두 30항목이며 <사용도/인지도> 조사 항목은 101항목임.
- 어휘·표현 보완(*) 및 추가 항목(30개)

*오금, *트림, (오줌) 누다/싸다, 쇠고기, 묘, 내후년, (다리가) 가늘다/얇다, 쟁기, 절구-절굿공이, 화로, 석쇠, (술) 석/세 (잔), (젓가락) 매/모/벌, 비녀, *시다, (걸레로 방을) 훑치다/닦다, *겉절이, 진지, 약주, (한턱) 내다/쏘다, 컴퓨터, 배터리/빠데리, 슈퍼/마트, 텔런트, 팬, 패션, 원룸, 알았어/알겠어, (거절) 부탁에 대한 거절, <경상권>께얼받다

- <사용도/인지도> 조사로 명시된 경우(101항목)에는 사용어, 이해어 및 미사용어를 조사하도록 함. 제2편 어휘 표현 질문지에서 **조사** [권역별 방언형](<~~권> 대표방언형 기재)로 표시된 부분에 101항목의 조사 지역 대표 방언형을 [부록]에서 참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도/인지도>를 조사함.
- [부록] 어휘 표현 531개 표제어 중에 108개의 표제어에 대해 <그림> 정보를 연결하여 조사 시 참조하도록 함. 확보된 <그림> 총 108항목은 모두 저작권을 확보하여(2021년, 2022년 106개, 2023년에 2항목 ‘산딸기, 사마귀’의 저작권 확보) 그림 부록의 활용도를 높임.

② 총 항목

최종적으로 2024년의 질문지는 ‘구술발화’의 경우, 9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큰 주제 항목은 다시 다양한 세부 질문 항목으로 구성된다. ‘어휘·표현’은 9개 부문인데 인간과 자연(167개), 사회생활(75개), 경제생활(29개), 의생활(20개), 식생활(68개), 거주생활(55개), 문화생활(15개), 언어생활(20개), 일상표현(82개)로 총 항목 수는 일반 조사 항목으로 504개와 지역의 방언 분화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표현으로 각 방언권별 4~6개 항목씩 27개 항목이 개발되어 총 5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도 질문지에 포함된 일반 어휘 표현 504개 항목과 지역 특수표현 27개 항목의 부문별 세부 표제어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자연	167	표제어
1-1 인체(얼굴과 머리/몸)	40	가마(旋毛), 새치, 흰자위, 검은자위, 눈두덩, 눈꺼풀, 귀청, 귀지, 귀이개, 엇듣다, 뺨, 수염, 구레나룻, 낫, 보조개, 입술, 부르트다, 휘파람, 혀, 침(唾), 뺨다, 콧구멍, 턱, 겨드랑, 팔짱 끼다, 오른손, 왼손, 굳은살, 새끼손가락, 뺨, 엉덩이, 굶다, 가부좌, 무릎, 복사뼈, 까치발, 고린내, 오금, 배꼽, 쓸개
1-2 질병과 생리	22	멍, 멍울, 비듬, 주근깨, 다래끼, 땀띠, 버짐, 트림, 딸꾹질, 사례(들리다/만나다/걸리다), 방귀, 껴다, 재채기, 하품, 졸음, 잠꼬대, 기지개,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퍼다, 저리다, 헛바늘, 감기, (오줌을) 누다/싸다
1-3 동물	43	새우, 거머리, 다슬기, 메기, 명태, 미꾸라지, 아가미, 지느러미, 창자, 벌레, 개미, 구더기, 매미, 모기, 벌, 파리, 쉬파리, 쉬슬다, 메뚜기, 바구미, 지렁이, 회충, 고양이, 돼지, 주둥이, 박쥐, 수컷, 수탉, 볏(鷄冠), 암컷, 암탉, 닭똥, 닭털, 모이, 노루, 여우, 갈치, 고기, 쇠고기, 강아지, 뱀, 누에, 번데기
1-4 식물	18	꽃, 잎, 억새, 갈대, 질경이, 진달래꽃, 해바라기, 숲, 숲, 칩, 이끼, 부스러기, 옷, 딸기(산)_야생, 벼, 보리, 참외, 오디
1-5 자연, 시후, 날씨와 방향	44	바위, 돌(石), 모래, 묘, 산꼭대기, 낭떠러지, 거품, 가뭄, 가을, 겨울,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어제, 그저께, 그꼬저께, 이튿날, 올해, 내년, 내후년, 작년, 재작년, 더위, 추위, 따뜻하다(溫), 우박, 진눈깨비, 고드름, 서리, 노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언제, 아직, 이제, 지금, 나중에, 먼저, 새벽, 회오리바람

2. 사회생활	75	표제어
2-1 육아	15	갓난아이, 포대기, 기저귀, 오줌, 똥(排便), 아우 타다, 쌍둥이, 어린아이, 사내아이, 계집아이, 구린내, 눅히다, 거짓말, (다리가) 가늘다/얇다, 야위다
2-2 친족	40	아버지(호칭), 어머니(호칭), 할아버지(호칭), 할머니(호칭), 형(호칭), 아우(호칭), 누나(호칭), 누이(지칭), 오빠(지칭), 언니(지칭), 남편(지칭), 남편(호칭), 아내(지칭), 아내(호칭), 시아버지(호칭), 시어머니(호칭), 아범, 사위(호칭), 아주버니(호칭), 서방님(호칭), 도련님(호칭), 형님(호칭), 아가씨(호칭), 율케(호칭), 매형(호칭), 매제(호칭), 제부(호칭), 큰아버지, 삼촌(결혼 전 호칭), 작은아버지(결혼 후 호칭), 이모(호칭), 이모부(호칭), 장인(호칭), 장모(호칭), 처남(손위, 호칭), 처남댁(손

		위, 호칭), 처남(손아래, 호칭), 처남댁(손아래, 호칭), 처제(호칭), 동서(손위, 호칭)
2-3 관계	8	아저씨(호칭), 아주머니(호칭), 여보(일반 호칭), 사장님/선생님(고객 호칭), 형(학교에서/직장에서), 음식점 장년 여성(호칭), 음식점 청년 여성(호칭), 음식점 청년 남성(호칭)
2-4 인사(화행)	5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 (음식점에서) 여기요/저기요, (친구와 헤어질 때) 안녕/잘 가/들어가, 다녀오겠습니다/다녀올게요/다녀올게, (집에서) 잘 먹겠습니다/잘 먹을까요/잘 먹을게
2-5 높임	7	성함/함자, 편찮으시다/아프시다, 여쭙다, 잡수시다/자시다/드시다, 돌아가시다, 진지, 약주

3. 경제생활	29	표제어
3-1 농경	14	품앗이, 텃밭, 거름, 쟁기, 호미, 방아, 절구-절굿공이, 이삭, 껍질, 추수하다, 흉년, 허수아비, 화로, 석쇠
3-2 일반	6	거지, 구두쇠, 덤, 빚, 꾸다(借), (쌀을) 팔다
3-3 단위	9	(나무) 그루, 서 되/세 되, (신발) 켄레, (김) 툇, (배추) 포기, (볼펜) 자루/개, 꾸러미, (술) 석/세(잔), (젓가락) 매/모/벌

4. 의생활	20	표제어
4-1 의복	9	저고리, 무늬, 옷고름, 주머니, 허리띠, 누더기, 덧버선, 양말, 짚신
4-2 바느질 외	11	가위, 형겔, 바늘, 골무, 매듭, 베개, 재봉틀, 다리미, 다림질, 방석, 비녀

5. 식생활	68	표제어
5-1 주식과 부식	23	메/제삿밥, 더운밥/뜨신밥, 찬밥/식은밥, 밥알/밥풀/밥풀때기, 누룽지, 송늬, 국수, 칼국수, 수제비, 건더기, 고명, 가루, 식혜(食醪), 김(海苔), 시다, 고소하다, 메밀, 엿기름, 고춧가루, 달걀, 찌꺼기, 행구다, (걸레로 방을) 훑치다/닦다
5-2 반찬과 별식	23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김장, 담그다, 깍두기, 무생채, 겉절이, 석박지, 양념, 콩나물, 장아찌, 새알심, 팔죽/동지죽, 술떡, 이바지, 소주, 전/부침개/지짐이, 소, 버무리다, 냄새, (한턱) 내다/쏘다
5-3 식기	4	그릇, (물건을) 떨어뜨리다, 시루, 뚜껑
5-4 곡물과 채소	18	감자, 고구마, 고추, 나물, 오이, 무, 배추, 부추, 상추, 도라지, 마늘, 시래기, 줄기, 옥수수, 조, 메주, 곰팡이, 매달다

6. 거주생활	55	표제어
6-1 마을	7	마을, 이웃, 우물, 가(邊), 샘(泉), 동 주민 센터, 대장간

6-2 가옥	16	도배, 아궁이, 구멍, 굴뚝, 그을음, 마루, 지붕, 장독대, 변소, 벽, 모서리, 거울, 서랍, 주방, 욕실, 넓다
6-3 생활용품	31	종이, 새끼(繩), 짚리, 빗자루, 갈고리, 갈퀴, 도끼, 자루(柄), 작두, 숯돌, 맷돌, 바퀴, 성냥, 세숫대야, 소쿠리, 송곳, 뽕죽하다, 참빗, 키(箕), 회초리, 슬리퍼, 구둣주걱, (담배를) 피우다/태우다, 뚫리다/뚫히다, (보일러를) 켜다/틀다/돌리다/때다, (에어컨을) 켜다/틀다/돌리다, 부지깥이, 사닥다리, 반짇고리, 다듬잇돌, 팽과리
6-4 이동수단	1	자전거

7. 문화생활	15	표제어
7-1 놀이와 민속	15	(돈을) 잃다/꼴다, 가위바위보, 공기놀이, 자치기, 곤지곤지, 그네, 딱지치기, 목말, 소꿉놀이, 윷놀이, ①도, ④윷, 쥐불놀이, 귀신, 도깨비

8. 언어생활	20	표제어
8-1 돌온말	16	키보드/자판, 배터리/빠떼리, 샐러드/사라다, 샤워/목욕, 키/열쇠, 텔레비전/테레비/티브이/티비, 플레시/후레시, 튀김/덴뿌라, 휴대 전화/휴대폰/핸드폰/폰/스마트폰, 내비게이션/내비, 슈퍼/마트, 텔런트, 팬, 패션, 원룸, 컴퓨터
8-2 선택표현	4	(이쪽으로) 다오/주라, 다르다/틀리다, 싸다/헐하다, 알았어/알겠어

9. 일상표현	82	표제어
9-1 담화, 화용, 연어	17	땡땡이치다, (열치를) 우리다, ‘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 ‘미안합니다’에 대한 응답, (명절을) 쇠다/보내다, (발) 씻다/뒹다, (불만 표현) 음식이 너무 짠데요, (비확정적 표현) 그런 것 같아요,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아니에요,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감사합니다, (호의에 대한 거절) 괜찮아요,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에 대한 응답, 부탁에 대한 거절, 내 아내/우리 아내, 내 동생/우리 동생, 네 남편/너희 남편, 너희 집
9-2 문법	26	내-가, 저-가, 너-가, 너희, 무슨, 왜, 여기, 저기, 거기, 애, 재, 개, (-밖에) 너밖에, -듯이, (-겠-) 오겠다, (-고) 싶다, (-나/는가 보다) 추운가 보다, (부정)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부정)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으면서) 보면서, 달히다, 얼리다, 어떻게, -으려고, 가니?, (보조동사) 버리다
9-3 관용표현	6	개나 소나, 내버려 뒀,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여보세요(길

		가는 사람을 부를 때), 죽마고우
9-4 필수음운	6	맑다, 밥하고, 작다, 효과, 살, 쌀
9-5 지역특수 표현(권역별)	27 (6권 역)	<전라권>징하다, 권, 개미, 흑하다, 심간, <경상권>단디하다, 천지뻐까리다, 깨알받다, 까리하다, <충청권>그니, 째다, 납들 다, 해설피, 심간, <강원권>개락이다, 춘천이여, 오짐싸개, 외 (이+외), <제주권>갈웃, 가름돌다, 버루기, 우치다/우찌다, 밥주리/물자리/물젤/밤부리. <경기권>단허리로, 반대작하다, 가장귀, 가짓고자리

(5) 그림

어휘 표현 531개 표제어 중에 108개의 항목에는 <그림>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21년 <그림>(저작권, 출판권 확보)의 210장 중에서 2022년도 질문지 항목에 해당하는 106개를 선별하고, 2023년에는 ‘산딸기, 사마귀<곤충-(강원)오짐싸개>’ 항목의 그림을 추가하여 총 108개로 된 부록을 마련하였다. 2024년에는 2023년까지 확보한 그림 108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특히 2023년에 추가된 2항목은 「국립생물자원관」(국가기관)의 열린 공공누리에 탑재된 그림을 활용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

(6) 특징

2024년도 질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발화 질문지는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노년층 농촌 지역 거주자만이 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도시 지역 거주자도 두루 응답할 수 있도록 주제와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세대나 지역에 따라 응답이 어려울 수 있는 세부 질문은 대안 질문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어휘 질문지의 각 항목은 주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 항목의 기저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원의 의도에 맞게 조사하도록 하고 별도의 부수 항목을 두지 않는다. 이때 **주의**에 ‘기저형 조사 필요’라고 표시한다. 다만 주 항목과 관련된 어휘를 함께 묻는 경우에도 별도의 주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한다.

셋째, 어형, 용법, 의미 등에서 차이가 예상되는 항목 뒤에는 **주의** 표시 뒤에 예상되는 차이 등을 예시하여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 항목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와 같은 명명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항목에 따라 “(기지개를) 켜다/하다/쓰

다/퍼다”와 같이 선택식 질문 방식도 활용하였다. 선택 항목으로 명시된 것 외에 새로운 응답형은 조사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섯째, 질문은 그림이나 사진 또는 동작의 형용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림>은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여 제보자가 이를 보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괄호 안에 ‘모양을 형용하거나 시늉을 하면서’ 등과 같이 표시하여 그 항목의 개념이나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을 몸동작 등으로 보여주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조사에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 등은 따로 제작하여 질문지와 한 벌이 되도록 하였다.

일곱째, 조사 항목에는 조사자가 해당 세대별 지역별 언어형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당 항목의 옛말을 **참고** 표시 뒤에 제시하였다.

여덟째, <사용도/인지도> 조사는 유의미한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전체 항목 중에 101개 항목의 경우 구사어와 이해어 또는 미사용어의 경우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다. <사용도/인지도> 조사가 유의미하다고 선정한 10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흰자위, 눈두덩, 귀청, 귀지, 귀이개, 구레나룻, 입술, 휘파람, 콧구멍, 겨드랑, 무릎, 복사뼈, 배꼽, 딸꾹질, 졸음, 기지개, 헛바늘, 미꾸라지, 벌레, 구더기, 매미, 모기, 벌, 파리, 쉬슬다, 메뚜기, 지렁이, 회충, 고양이, 모이, 노루, 여우, 갈치, 강아지, 뱀, 누에, 번데기, 억새, 벼, 오디, 바위, 모래, 가을, 겨울, 글피, 그저께, 그끄저께, 우박, 노을, 언제, 새벽, 회오리바람, 아우타다, 계집아이, 늙히다, 할머니(호칭), 형(호칭), 사위(호칭), 호미, 거지, 서 되/세 되, 꾸러미, 짚신, 가위, 다리미, 건더기, 메밀, 엇기름, 고춧가루, 달걀, 간장, 콩나물, 시루, 뚜껑, 오이, 무, 부추, 시래기, 가(邊), 아궁이, 구멍, 그을음, 마루, 장독대, 변소, 벽, 새끼(繩), 빠리, 갈퀴, 키(箕), 부지깥이, 반질고리, 다듬잇돌, 팽과리, 자치기, 곤지곤지, 그네, 목말, 소꿉놀이, 쥐불놀이, 다르다/틀리다 (101개 항목)

<사용도/인지도> 조사를 위한 101항목의 경우, 조사 대상 지역의 대표 방언형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실제 현장 조사 시 조사원들이 지역 방언형을 참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도/인지도>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일상표현에서 지역의 방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수표현으로 방언권

별로 4~6개 항목씩 총 27개를 개발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2.2.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

- 목적: 전형적인 지역어형의 조사 및 기저형을 반영한 전사 그리고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 경과: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서의 조사·전사 지침 및 결과물 정비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매년 여러 차례의 공동연구원 회의를 통해 지침서를 검토하였다.

(1) 조사 지침

기존 전통 방언에 대한 조사(제보자: 노인층) 사업과 달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토박이 화자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므로 각 지역의 적절한 연령별 제보자(20대/50대/70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지침이 작성되었다. 기존의 조사 지침과 비교하여 현장 조사 방법(‘구술발화 조사 방법’ 포함)과 <사용도/인지도>의 판별 기준에 한하여 약간의 수정·보완이 있었다.

<참조> 구성: 어휘·표현 및 구술발화 조사 공통 지침, 어휘·표현 조사 지침, 구술발화 조사 지침, 녹음기 사용법 등

- 질문지를 활용한 직접 질문 방식의 현장 조사
 -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접하고 제보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항목은 해당 방언형이 없는 것으로 함.
 - ‘보일러를 켜다/틀다/돌리다/떼다’와 같은 선택형 항목은 자주 쓰는 방언형을 조사함.
 - 방언형의 특기할 만한 의미적 특징은 ‘부가 정보’란에 밝혀 두도록 함. 특히 해당 방언형이 제보자만 사용하는 개인어일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보자 선정 기준
 - 토박이 조건: 연령별 제보자(20대/50대/70대) 모두 3대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해야 함. 다만 어머니는 가급적 동일 지역 출신이어야 하나, 동일 방언권도 허용함.

<참조> 강원 영동/영서(2개 방언권), 경기(1개 방언권), 충청(1개 방언권), 전북/전남(2개 방언권), 경북/경남(2개 방언권), 제주(1개 방언권)

- 학력 조건: 70대(가급적 국민학교 졸업 이하), 50대(고등학교 졸업 이하), 20대(대학교 졸업 이하)
- 군대 경력은 고려하지 않으나, 대학교는 다른 대방언권에서 수학한 경우에 제외함.
- 구술발화: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조사하기 위해 필수 조사 항목(19개)을 설정함.
- 사용도/인지도: 해당 어형을 현재 쓰고 있는가, 써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등의 기준을 마련해 좀 더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도/인지도’는 방언형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표준어형은 조사하지 않음을 명시함.

(2) 전사 지침

「지역어 보완 조사 사업」에서는 거의 유사한 성격의 <전사 지침>(2018)과 <구술발화 작업 및 형태음소 전사 지침>(2019)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21년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에서 이 두 지침을 통합하여 <언어 다양성 조사 표기 지침>(2021)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사 도구가 ‘트랜스크라이버’에서 ‘엘란’으로 변경되면서 전사 도구의 교체에 따른 미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각 지역 조사원들이 해당 지역어를 정확히 효율적으로 전사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이성을 반영한 방언별 전사 지침을 따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속 수정·보완하여 이번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을 위한 <지역어 변이 조사 표기 지침>(2024)을 마련하였는바 수정·보완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형태음소 전사 관련 문제
 - 표준어의 구가 복합어로 기능하면서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살려 적는다. 단, 표준어 대역에서는 사이시옷 없이 띄어쓰기하여 적는다. [예] 형태음소 전사: 영엇시간[영어씨간], 경줏김[경주깁] / 표준어 대역: 영어 시간, 경주 김
 -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을 따르기로 한다.
 - 수를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오직 한글로만 적는다.
- 표준어 대역 관련 문제
 -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구별하여 적절한 어미로 옮긴다. [예] 죽었다라고 했어요. → 죽었다고 했어요.

- ‘-어서 가지고, -어서 갖고’ 구성은 ‘-어서’로만 대역한다. 또한, 서술격조사에 이어지는 ‘가지고, 갖고’는 ‘-어서’로 대역한다. [예] 잡아서 가지구 → 잡아서 / 외향적이어 가지고 → 외향적이어서
 - ‘거시기하다’ 등 새로 표준어에 등재된 어휘들에 특히 주의하여 대역한다.
- <참조> 구성: 어휘·표현 기저형 표기 지침, 구술발화 표기 지침 등

(3) 결과물 정비 지침

이번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에서 활용한 전사 및 정비 도구는 기존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와 동일하게 ‘엘란’이었다. 따라서 결과물 정비 지침에서 기본 원칙이 바뀐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음성 파일 추출 원칙에 ‘음성의 최대 샘플값이 10,000~20,000이 되도록 마이크 음량 조절’을 추가하였다.

▪ 구술발화 전사 자료 정비 지침

- 구술발화 입력은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의 ‘엘란’ 작업 지침을 그대로 활용함.

▪ 분절화 작업 지침

- 어휘·표현 항목별 음성 분절: 음성 분절 및 전사 도구로 ‘엘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절하는 방법을 활용함.
- 구술발화의 주제별 음성 분절: Goldwave, Praat, Cool Edit Pro 등 음성편집기를 활용하도록 함.



제 3 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제3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실제

3.1. 조사의 방법과 과정

(1) 조사 방법

지역어 변이 조사는 지역은 물론 세대별·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관찰함을 목표로 하므로 70대 이상, 50대, 20대 그리고 세대별 남·여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또 해당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해 왔다는 조건을 가급적 충족한 사람을 제보자로 택하였다. 결국 이번 조사의 제보자는 ‘해당 지역에 3대 이상 거주한 70대 이상, 50대, 20대’로 한정되었다.

조사는 질문지를 미리 작성한 후 현지에 가서 제보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여 항목(공통 항목 및 지역별 특수 항목 포함), 총 145쪽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 질문지 앞에 ‘지역·세대·성별 한국어 자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보자 조사표’를 첨부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전사는 엘란을 활용하여 형태음소적 원칙에 따라 수행하였다. 형태음소적 전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조사에서 응답형의 기저형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조사 지역

조사 지역은 강릉(강원), 의정부(경기), 진주(경남), 김천(경북), 여수(전남), 남원(전북), 제주시(제주), 홍성(충남), 제천(충북)으로 정하였다. 지역의 역사성, 인구수, 방언 구획 등을 고려하면서도 2022년-2023년 지역어 변이 조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지점을 정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전년도 사업에서 서귀포시 해안 지역을 다루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제주시의 내륙 지역으로 ‘함덕’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3) 조사 과정

6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인 조사 일정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4~5월에 조사 및 전사 지침을 숙지하고 아무리 늦어도 11월까지는 본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보자의 일정이나 조사 지점의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연구보조원(조사원) 1명이 1~3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으며, 지역별로 묶어 연구원들이 결과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구진의 조사·전사 및 검토 담당 내역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세대	성별	조사원	제보자	검토자
강원도 강릉	20대	남	김주성	○○○(96년생)	정인호 임석규 이상신
		여	홍석우	○○○(97년생)	
	50대	남	김유겸	○○○(70년생)	
		여	김유겸	○○○(71년생)	
	70대 이상	남	김주성	○○○(44년생)	
		여	홍석우	○○○(45년생)	
경기도 의정부	20대	여	김한중	○○○(05년생)	김수영
	50대	남	배윤정	○○○(72년생)	
		여	배윤정	○○○(66년생)	
	70대 이상	여	김한중	○○○(53년생)	
경상남도 진주	20대	남	박주성	○○○(99년생)	이상신
		여	김고은	○○○(03년생)	
	50대	남	김동은	○○○(71년생)	
		여	김동은	○○○(69년생)	
	70대 이상	남	박주성	○○○(53년생)	
		여	김고은	○○○(54년생)	
경상북도 김천	20대	남	김인규	○○○(99년생)	김덕호
		여	이재섭	○○○(99년생)	
	50대	남	이철희	○○○(68년생)	
		여	이철희	○○○(70년생)	
	70대 이상	남	김인규	○○○(54년생)	
		여	이재섭	○○○(49년생)	
전라남도 여수	20대	남	오청진	○○○(05년생)	정인호
		여	정성경	○○○(00년생)	
	50대	남	김영규	○○○(72년생)	
		여	김영규	○○○(73년생)	
	70대 이상	남	오청진	○○○(49년생)	
		여	정성경	○○○(51년생)	
전라북도 남원	20대	남	백은아	○○○(05년생)	임석규
		여	윤예진	○○○(01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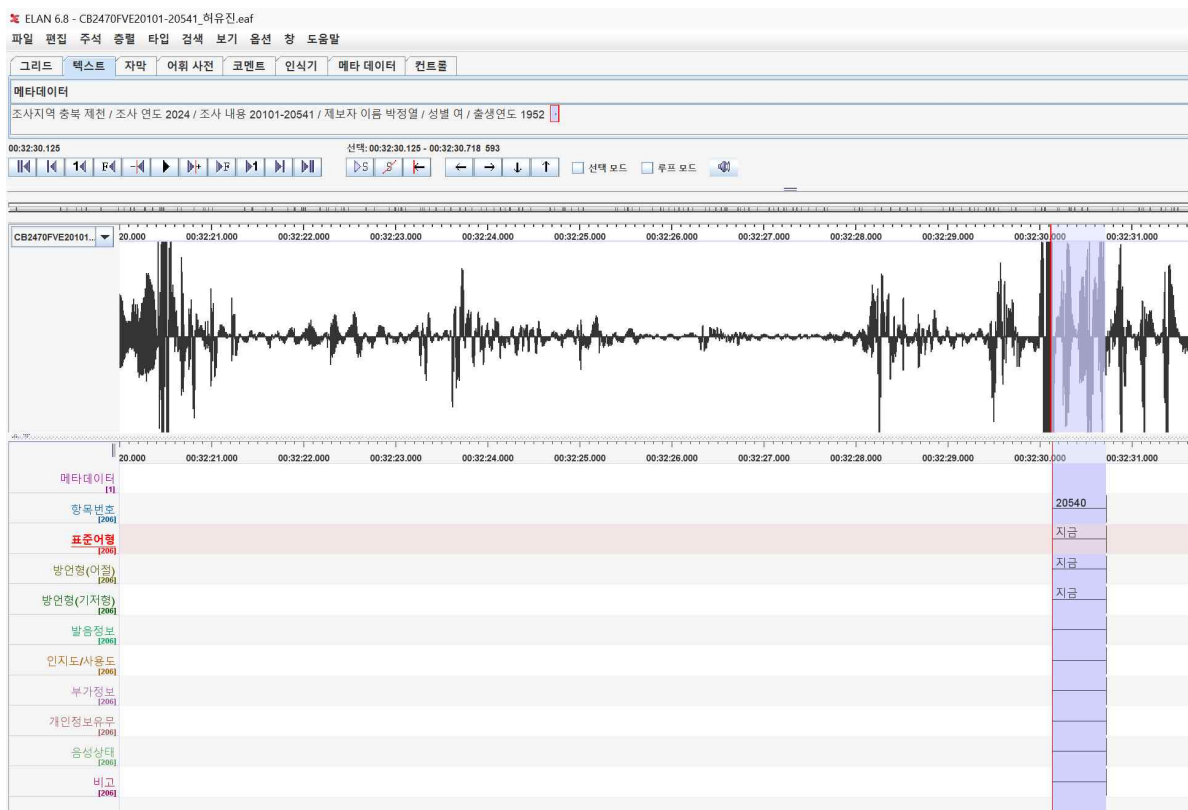
	50대	남	최준호	○○○(69년생)	
		여	최준호	○○○(70년생)	
	70대 이상	남	백은아	○○○(50년생)	
		여	윤예진	○○○(52년생)	
제주도 제주	20대	남	현혜경	○○○(02년생)	신우봉
	50대	여	현혜경	○○○(71년생)	
	70대 이상	남	고은향	○○○(51년생)	
충청남도 홍성	20대	남	김동은	○○○(01년생)	신우봉
		여	이현주	○○○(04년생)	
	50대	남	임홍연	○○○(65년생)	
		여	임홍연	○○○(72년생)	
	70대 이상	남	김민지	○○○(44년생)	
		여	이현주	○○○(49년생)	
충청북도 제천	20대	남	전진호	○○○(99년생)	김수영
		여	안미화	○○○(00년생)	
	50대	남	박정순	○○○(70년생)	
		여	박정순	○○○(71년생)	
	70대 이상	남	전진호	○○○(40년생)	
		여	허유진	○○○(52년생)	

〈표 2〉 조사·전사 및 검토 담당 내역

3.2. 전사 및 표준어 대역

구술발화 항목이든 어휘·표현 항목이든 조사의 결과를 형태음소적으로 전사하
 되 전사 도구로 엘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어휘·표현 항목의 경우, 어절 단위
 로 전사하되 해당 방언형의 기저형을 따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재정리하였다. 구술발화의 경우, 전사와 함께
 표준어 대역을 제공하였다. 이때, 해당 방언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준어형
 을 사용하여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엘란을 활용한 전사(‘충북 70대 여성’의 경우)



<그림 1> 엘란을 활용한 어휘·표현 전사

■ 결과 정리 엑셀 파일(‘충북 70대 여성’의 경우)

일련번호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 (어절)	방언형 (기저형)	인지도/ 사용도
CB2470FVE20101	20101	가마	가마꼭지	가마꼭지	
CB2470FVE20102	20102	새치	새치	새치	
CB2470FVE20103-A-1	20103-A-1	흰자위	흰자위	흰자위	
CB2470FVE20103-A-2	20103-A-2	흰자우	흰자우	흰자우	1
CB2470FVE20104	20104	검은자위	검은동자	검은동자	
CB2470FVE20105	20105	눈두덩	눈두덩이	눈두덩이	
CB2470FVE20106	20106	눈꺼풀	눈꺼풀	눈꺼풀	
CB2470FVE20107	20107	귀청	귀청	귀청	1
CB2470FVE20108-A-1	20108-A-1	귀지	귀지	귀지	
CB2470FVE20108-A-2	20108-A-2	귀:챙	귀챙이	귀챙이	1
CB2470FVE20109-A-1	20109-A-1	귀:개	귀:개	귀:개	1
CB2470FVE20109-A-2	20109-A-2	귀이개	귀이개	귀이개	
CB2470FVE20110	20110	엿듣다	엿듣는다	엿듣다	
CB2470FVE20111-A-1	20111-A-1	뺨	볼	볼	
CB2470FVE20111-A-2	20111-A-2	뺨	볼태기	볼태기	
CB2470FVE20111-A-3	20111-A-3	뺨	뺨	뺨	
CB2470FVE20112	20112	수염	수염	수염	

■ 구술발화 전사 자료 정비 작업 파일(‘경남 50대 여성’의 경우)

ELAN 6.4 - GN2450FUT10100.eaf

파일 편집 주석 층별 타임 검색 보기 옵션 창 도움말

00:01:41.324

시간 간격: 00:01:08.293 - 00:01:41.324 33031

00:01:20.000 00:01:40.000

볼륨 100

속도 100

설정

- ☒ 미디어 자동 재생
- ☒ 빠진 주석 만들기
- ☒ 층별 이름 표시
- ☐ "번호" 열에서만의 색상
- ☐ 열 탐색
- ☐ 현재 주석을 층명에 스크롤

구성 ...

타입 1: imported-sep
제보자(형태음소전사)
51 공개 요족, 제, 여기 은빛마을 바로 건너편 보면 금호아파트가 있거든요? 고고랑 여기 우리 아파트 바로 맞은편 저 아파트예요, 지금, 저게 현대아파트가 있었을 거야. 짓고 있었을 거야, 아마. 에 거기에 한 삼 년 살다가 요쪽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한 이십 년 약간 그죠, 이십 년 넘었, 약간. 그죠.
제보자(표준어대역)
52 그러니까 요족, 제, 여기 은빛마을 바로 건너편 보면 금호아파트가 있거든요? 고고랑 여기 우리 아파트 바로 맞은편 저 아파트예요, 지금, 저게 현대아파트가 있었을 거야. 짓고 있었을 거야, 아마. 에 거기에 한 삼 년 살다가 요쪽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한 이십 년 약간 그죠, 이십 년 넘었, 약간. 그죠.
조사자(형태음소전사)
53 이 집에서만 인제 이십 년 넘게 사신 거네요?
조사자(표준어대역)
54 이 집에서만 인제 이십 년 넘게 사신 거네요?
제보자(형태음소전사)
55 아 그건 아니고, 인제 금호에서 한 삼 년, 어, 요 열통에서 한 십 년 정도. 또 그러고 이월게, 예.
제보자(표준어대역)
56 아 그건 아니고, 인제 금호에서 한 삼 년, 어, 요 열통에서 한 십 년 정도. 또 그러고 이월게, 예.
조사자(형태음소전사)
57 그러면은 어, 이 마, 원래 그 질문은 이 마을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장소 이야기하는 건데, 요 마을뿐만 아니라 그냥 진주 전, 곳,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사자(표준어대역)
58 그러면은 어, 이 마, 원래 그 질문은 이 마을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장소 이야기하는 건데, 요 마을뿐만 아니라 그냥 진주 전, 곳,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보자(형태음소전사)
59 참 난감한 질문을 하시네.
제보자(표준어대역)
60 참 난감한 질문을 하시네.
조사자(형태음소전사)
61 왜요, 왜요?

<그림 2> 엘란을 활용한 구술발화 전사

3.3. 조사 및 전사 자료 검토

(1) 조사 관련 문제

- ① 질문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조사 항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후 제보자의 여건이나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변용함.

<참고> 동질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해당 지방의 어미(‘-는교’ 등)를 활용하고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방언형도 메모,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함.

- ②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어휘·표현이나 구술발화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응답이 끝난 후 적당한 휴지를 확보함.

- ③ 질문지에 조사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곡용형과 활용형의 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함. 질문지에 제시된 조사나 어미는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기

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조사나 어미로 대체할 수 있음.

받은 → 받을

④ 해당 세대나 지역에서 전형적인 방언형이 있음에도 표준어형으로만 응답할 경우,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세대나 지역의 방언형에 대한 <사용도/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음.

⑤ 자료 정리 시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당 지역의 자연스럽고 전형적인 방언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응답을 유도함. 다음과 같은 발음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함.

걸음마↗ 뺄는다↗
귀#고리 분#리#수#거 보조개#라고
눈:동:자

⑥ 어간 재구조화나 여러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기저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저형을 확인해야 함. 곡용형과 활용형을 능숙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음.

배튼다 → 뺄다/배트다: 기저형 확인 불가

겨드랑이 → 겨드랑/겨드랑이: 기저형 확인 불가

⑦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에 앞서 조사자와 제보자 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함.

⑧ 어휘·표현 조사보다 구술발화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함(전형적 어형 출현 기대). 어미의 형태가 어휘 조사와 다를 경우, 구술발화에서 확인한 어미가 우선됨.

⑨ 제보자의 발화를 가장 많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함.

⑩ 표준어와 어형은 같으나 의미 차가 있는 경우, ‘부가 정보’ 열에 그 내용을 밝혀 둠.

(2) 전사 관련 문제

① 미리 확정하지 말고 발화된 대로 전사함.

-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 산이, 산이 많죠. → ‘고런’으로 들림.
- 처음에 시작한 약간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 첨에(대역도 수정) 시작한 약간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 오고 그래 가지고 → 오고 해 가지고
- 같아요 → 같애요
- 거진 → 거지 ※ almost
- 상당히 → 상다이
- 와 가지고 → 와 가주고(?)
-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 보니깐 / 잘 돼 있으니까 → 잘돼 있으니깐
- 이런 걸 좀 → 쯤
- -도/-두, -고/-구, -가지고/-가주구/-가지구
- 앉아서 → 앉어서
- 계속 → 계속, 계획 → 계획
- 그런 → 그런? / 겠는데 → 같는데? / 쇠배를 → 세배를? / 은제 → 인제
- 표준어 ‘되-’의 경우, ‘데-’로 전사할 것을 ‘되-’로 잘못 전사하거나, ‘대’로 전사할 것으로 ‘돼’로 잘못 전사하는 경우가 있음.
- 오인식 혹은 오전사: 표준어 ‘다른(他)’을 ‘따른’이라고 하는데 ‘다른’이라고 잘못 전사(2회). ‘띠우고’라 전사해야 옳을 듯한데 ‘띠우고’라 되어 있음.
- 외래어도 소리나는 대로 전사함.
- 버스 → 빠스, 피시방 → 피씨방

② 기저형을 전사

- 눈두덩이# --‘눈두덩이가/눈두덩이도’를 조사해 봐야 함.
- 외국인들또 → 외국인들도(※ 구술발화 형태음소 전사이니 ‘-도’)
- 복합어 기저형: 윗놀이~윗놀이
- 육방원 여섯 명 → 육방은(대역)
※ 주제격의 ‘-언/년’: ‘-원’은 ‘언’에서 반모음 첨가된 형태

③ 담화표지 ‘그냥/기양, 인제/인자’ 등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줄었다고 판단될 때

에는 준 대로 적되 붙여 쓰도록 함.

근디 양 → 근디양 개서 냥 → 개서냥

미리 양 → 미리양

그래선제(○) → 그래서인제(×)

만약 준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담화표지를 띄어서 적어주는 게 나음.

하천 제 → 하천 인제

그담은제 → 그담은 인제

그면은 제 → 그면은 인제

담화표지 이외는 원형을 전사하는 게 낫고 준말이 확실하다면 붙여 쓰도록 함.

그렇게 서 → 그렇게 해서 / 그렇게서

해나 → 해야 데나

④ 조사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에는 연결을 함.

아무곳이/아무것이(아무개) → 아무그시/아무거시

⑤ 번역한 표준어가 문맥에 맞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듯함. 아무리 들어도 문맥에 맞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면 음성 상태 불량으로 처리하기를 권장함.

⑥ 표준어의 구가 복합어로 기능하면서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살려 적음. 단, 표준어 대역에서는 사이시옷 없이 띄어쓰기하여 적음.

형태음소 전사: 영엇시간 [영어씨간], 경줏김 [경주깸]

표준어 대역: 영어 시간, 경주 김

⑦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을 따르기로 함. 더러는 쉼표도 활용함.

남원의 그 사또가 부임해서 → 남원의 그, 사또가 부임해서

⑧ 수를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오직 한글로만 적음.

⑨ 웃음소리 표기: ㅎㅎ → (웃음)

헛기침?: 스읍 → (헛기침) 또는 애매한 경우에 한해 전사에서 제외함.

(3) 표준어 대역 관련 문제

- ① 의도치 않게 발화가 중단되어 번역문이 어색한 경우에는 () 안에 보충해 줌.
같습. → 같습(니다).
- ② 번역문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역의 원칙을 지키도록 함.
주고 그렸어, 우리 아버지를. → 주고 그렸어, 우리 아버지에게. ⇒ 아버지를
갈으 낚 념 막 나오셔서 → 갈아 놓은 것을 막 나오셔서 ⇒ 것
- ③ 대응 표준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간단히 뜻을 풀이하거나 작은따옴표 안에 방언형을 그대로 표기함.
부수개 → 부스개 ⇒ ‘부수개’ 또는 ‘부스개’
- ④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구별하여 적절한 어미로 옮김.
(간접인용) 죽었다라고 했어요. → 죽었다고 했어요.
- ⑤ ‘-어서 가지고, -어서 갖고’ 구성은 ‘-어서’로만 대역함. 또한, 서술격조사에 이어지는 ‘가지고, 갖고’는 ‘-어서’로 대역
잡아서 가지구 → 잡아서 외향적이어 가지고 → 외향적이어서
- ⑥ ‘-어서’ 앞에 ‘-었-’이 결합한 경우, 표준어 대역에서는 ‘-었-’을 반영하지 않음.
처음이었어서 → 처음이어서
- ⑦ ‘거시기하다’ 등 새로 표준어에 등재된 어휘들에 특히 주의함.
- ⑧ 《표준국어대사전》에 작성례 없이 인용례만 실려 있는 어휘는 표준어 대역에 사용하지 않음.
석경(石鏡) → 거울, 대근하다 → 고단하다
- ⑨ 구술발화의 경우, 분절은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로 하되 최대 세 문장을 넘지 않도록 적당히 분절함.



제 4 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제4장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분석

언어 조사는 크게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로 나뉜다. 질적 조사는 대체로 사례 조사를 통해 언어 변화 또는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요소의 영향에 따라 해당 사회에 어떤 변화나 변이들이 출현하는지를 사례별로 추적해 보는 조사를 이른다.

이러한 질적 조사는 해당 사회의 언어 변화나 변이를 직접 발견하고 그것들을 출현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러하기에 이 조사는 언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나아가 그러한 질적 조사의 결과로서 발굴된 언어 변화나 변이가 사회적으로 의의를 지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통계에 의한 양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은 질적 조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2024년 조사에서는 지역 요소(9개), 세대 요소(3개), 성별 요소(2개)에 따라 각각 제보자를 달리 구하여 전체 49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이번 사업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양적으로 충분치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번 2024년 조사(49제보자 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2021년의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30제보자 조사) 및 2022년의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54제보자 조사)와 2023년의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54제보자 조사)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사례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결과의 사회적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사회적으로 의의 있다고 여겨지는 항목에 대해 시험적으로 양적 분석을 시도해 본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 비록 2021년에서 2024년까지의 조사(총 187제보자) 결과를 모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양적으로 충분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기초로 분석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분석 결과도 일단은 부분적·잠정적 사례 조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에 각 요소(지역, 세대, 성)를 고려한 더 많은 제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번 사업의 결과를 확인·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적 조사가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4.1. 어휘·표현에 관한 분석

(1) 사례 분석

이번 조사 사업의 어휘·표현 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를 항목 번호순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03 흰자위

지역과 세대 그리고 성별을 불문하고 표준어 ‘흰자위’와 ‘흰자’가 전국 20대 50대 남녀에서 29건이 조사되었다. 다만 경남(남·여), 경북(남·여)과 전남(남·여), 전북(남·여), 충남(남)의 70대에서 ‘흰창’이 11건 조사되었다. 충남(여) 50대의 경우 ‘흰자’와 ‘흰창’을 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5 눈두덩

지역과 세대 그리고 성별을 불문하고 ‘눈두덩’과 ‘눈두덩이’와 같은 표준어가 많이 나타난다. 다만 경북의 20대(남) 50대(남·여) 70대(남·여)에서 ‘눈뚜부리, 눈때벌’과 같은 어형이 조사되면서 ‘뽕>ㅂ’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의 20대(남·여) 70대(남)에서 ‘눈시울’이 조사되었다.

20108 귀지

표준어 ‘귀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18건), 오히려 ‘귓밥’과 ‘귀청’도 36건이 조사되어 ‘귀지’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귀지’의 경우 경기 20대(여), 50대(남·여), 70대(여), 경남은 20대(남), 경북 20대(남)과 50대(남), 전남 20대(남), 전북은 50대(여)와 70대(여), 충남은 20대(남·여)와 50대(남·여), 충북은 20대(여) 70대(남·여)에서 사용되고 있음은 확인했다. ‘귓밥’과 ‘귀청’의 경우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20대, 50대, 70대의 남·여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9 귀이개

표준어형 ‘귀이개’는 주로 20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귀이개의 변이형인 ‘귀오개, 귀우개, 귀개’가 제주 50대(여), 충남 70대(남), 충북 70대(남·여)에서 조사되었다. 그 외 ‘귀후비개, 귀쭈시개, 귀파개’ 등 다양한 지역어형이 나타

난다. 대체로 표준어 ‘귀이개’를 쓰는 20대와 그 외의 지역어형을 쓰는 50·70대로 나눌 수 있다.

20110 엇듣다

표준어형인 ‘엇듣다’ 혹은 ‘듣다’가 전국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다만 ‘몰래듣다’가 경북 70대(남)과 충북 70대(남)에서 실현되었고, ‘가마이듣다’가 경북 50대(남·여)와 경북 70대(여)에서 실현되었다.

20113 구레나룻

표준어 계열의 어형 ‘구레나루’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그 외 ‘X나루’형과 ‘X수염’으로 구분되는 어형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레수염’형(굴렛샘, 굴레세엠, 구리쉬엄, 굴레수염/쉬엄)은 경남 70대(남·여), 경북 70대(남·여), 전남 70대(여), 전북 70대(남·여)에서 실현되고 있다. 제주 70대(남)에서는 ‘녹데쉬엄’이 조사되었다.

20114 낮

표준어형 ‘낮’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얼굴’, ‘면’, ‘면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어간말평음화에 의한 변이형 ‘낫’도 ‘낮’만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 20대(남)가 ‘와꾸’라고 발화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틀’이라는 일본어 표현(わく)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15 보조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보조개’를 사용하고 있고, 변이형 ‘보조기’가 경북 70대(남·여)에서 발견되었고, 경남 70대(남)은 ‘볼샘’이라는 어형도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19 혀

이 어형의 경우 ‘혀’형을 사용하거나 ‘세’형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혀’를 사용하지만, ‘ㅎ>ㅅ’으로 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이 공존하고 있다. ‘세’(썰, 셋바닥, 싯바닥)형의 경우 강원 50대(여), 강원 70대(여), 경남 70대(남·여), 경남 50대(여), 경북 70대(남·여), 경북 50대(남), 경북 20대(남·여), 전남 50대(남·여), 70대(남), 전북 70대(여), 충북 50대(남), 70대(남), 제주 70

대(남), 50대(여)에서 조사되었다.

20120 침

대부분(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지역에서 표준어형 ‘침’으로 발화하지만, 변이형 ‘춤’으로 발화하는 지역도 공존하고 있다. ‘춤’이 조사된 지역은 경남 20대(남), 50대(남), 70대(여), 경북 20대(남·여), 50대(남), 70대(남·여), 전남 70대(여), 전북 70대(여), 제주 70대(남), 충북 50대(남)이다.

20124 겨드랑

대부분(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지역에서 표준어형인 ‘겨드랑(겨드랑이)’이 모든 세대에서 널리 실현되고 있다. ‘저드랑’(저드랑이, 저트랑)의 경우 강원 70대(여), 경남 70대(남·여), 50대(여), 경북 70대(여), 20대(여), 전남 70대(남·여), 50대(남), 전북 70대(남), 충남 50대(여), 충북 70대(남)에서 실현되고 되고 있다. ‘저깁이’의 경우는 제주 70대(여), 50대(여)에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어형은 ㄱ-구개음화 적용 여부와 ‘jʌ’의 변화 여하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어형을 보인다. 경북의 20대의 경우가 있지만 ‘겨드랑’의 지역어형은 세대별 분화를 비교적 명확히 보여 주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5 팔짱 끼다

대부분(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지역에서 표준어형인 ‘팔짱 끼다’가 널리 나타난다. 다만 경남 70대(남·여), 경북 70대(여) 20대(여), 전남 70대(여)에서 ‘끼다’가 구개음화된 ‘팔짱찌다’로 실현되고 있다. 전남 70대(여)과 제주 70대(남)에서 ‘·’의 변화와 관련된 ‘폴짱(깡)’의 변이형이 조사되었다.

20129 새끼손가락

대부분(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서 표준어형인 ‘새끼손가락’이 남녀노소에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새끼손가락’의 변이형인 ‘새끼손구(꾸)락’이 강원 50대(여), 충남 20대(남), 50대(남·여), 70대(남)에서 보이고, ‘새끼손꼬락’이 충남 70대(남)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앵기손가락’(앵기, 애끼, 앵두)이 경기 70대(여), 경남 70대(남), 경북 70대(남), 전남 70대(여), 전북 70대(여)이 발견되고 있고, ‘깨(깡)끼손가락’이 전남 50대(남)과 전북 50대(남)에서 조사되었다.

20133 가부좌

표준어형인 ‘가부좌’는 극히 소수의 경우 즉 강원 50대(남), 전북 50대(여), 제주 50대(여)에만 나타난다. ‘가부좌’와 함께 ‘양반다리’ 및 ‘책상다리’는 표준어이나 ‘아빠다리’는 그렇지 않다.

세대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빠다리, 책상다리’의 세대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빠다리’의 경우 경기 50대(남), 20대(여), 강원 20대(여), 경남 20대(남·여), 경북 20대(남·여), 전남 20대(남·여), 전북 20대(남), 제주 20대(남), 충남 20대(여), 충북 20대(남·여), 50대(여)에서 조사되었는데, 50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20대를 중심으로 이 어형이 조사되므로 신방언을 예상할 수 있는 예라고 판단된다. 이외에 ‘책상다리’의 경우 충북 50대(남), 70대(남·여)에서 조사되었다.

20134 무릎

표준어형 ‘무릎’보다는 어간말평음화가 반영된 ‘무릅’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릎’은 강원 20대(남), 경기 20대(여), 경북 20대(남·여), 70대(남), 전남 20대(여), 충북 50대(남), 70대(여) 등에서 주로 보인다. ‘무르팍’, ‘고베이’가 조사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어간말평음화의 변화를 경험한 어형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에서 조사된 ‘독모릅, 독무릅’은 이 지역 특유의 지역어형으로 제주 70대(남), 50대(여)에서 조사되었다.

20136 까치발

표준어형 ‘까치발’이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북, 제주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50대(남)에서 ‘깨끄망’이 발견되고, 전북 50대(남)에서 ‘갯발짓다’가 조사되었다. ‘꼰지발’(꼬지배기)의 경우 전남 70대(남·여), 50대(여)에서 발견되고, ‘꼰질배기’의 경우 전북 70대(여)에서 조사되었다.

20137 고린내

표준어형 ‘고린내’계(고린내, 꼬린내, 꼬랑내)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북, 제주 등에서 널리 조사되었다. ‘꾸린내’계(꾸릉내, (발)꾸릉내, 꿩내)가 경남 대부분 지역과 경북 20대(여)에서 발견된다. 또한 ‘발냄새’형은 경북 20대(여), 전북 20대(여), 충남 20대(여), 50대(남·여), 70대(여), 충북 20대(남), 70대(여)에서

조사되었다.

20202 명울

‘명’계와 ‘몽’계로 크게 나뉘어 실현된다. ‘명-’계는 ‘명울, 명얼, 명울아지, 명우리, 명어리’ 등의 어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북, 제주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몽-’계는 ‘몽오(우)리, 몽아(어)리, 몽울(을)’ 등의 어형이 실현된다. 주로 경남 20대(남·여), 70대(여), 경북 70대(여), 전남 50대(남), 70대(남·여), 전북 50대(남), 70대(여), 충북 50대(남)에서 조사되었다. 기타 ‘혹’계는 강원 20대(여), 경남 50대(남), 70대(남), 충남 20대(남), 50대(남), 70대(남·여), 충북 70대(여)에서 조사되었다. 이 어형은 세대별로 20대는 ‘명-’계가 우세하고, 50대와 70대에서는 ‘몽-’계가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209 딸꼭질

‘딸꼭질’의 방언형들은 ‘딸꼭질’계와 ‘갈딱질’계, ‘포각질’계로 나눌 수 있다. ‘딸꼭질’계에는 ‘딸꼭질, 딸꼭질, 따꼭질, 따국질, 딸꾸기, 탈국질, 털국지, 톨고지’ 등이 포함되는데 강원·경기·충북·제주에서는 주로 이러한 방언형들이 나타난다. 강릉 50대에서 ‘갈때기’, 강릉·춘천 70대에서 ‘갈때기, 갈뜨기’, 충북 제천 50대에서 ‘갈딱질’, 충북 충주 70대에서 ‘갈뚝질’, 충북 청주 70대에서 ‘겔뚜기, 겔뚝질’이 조사된 것을 제외하면 성별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딸꼭질’계의 방언형들이 확인된다. ‘갈딱질’계에는 ‘갈딱질, 까딱질, 갈뚜기, 갈따기’ 등이 있는데 이는 경북·경남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북·경남에서도 20대 제보자의 경우 대체로 ‘딸꼭질’계의 방언형들이 조사되어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에서는 ‘딸꼭질’계와 ‘갈딱질’계가 모두 나타나는데, 70대에서는 우위를 가릴 수 없게 섞여 나타나는 반면 20대에서는 ‘딸꼭질’계가 우세하다. ‘포각질’계에는 ‘포각질, 퍼걱질, 패각질, 뽀각질’ 등이 있는데 이는 전북·전남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전남 여수를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딸꼭질’계가 확인되었으며 20대는 전북·전남의 전 지역에서 ‘딸꼭질’계가 조사되었다.

20215 졸음

전국적으로 ‘졸음’, ‘잠’의 사용이 우세하다. 강원·경기·충청·전남에서는 ‘잠’ 또는 ‘졸음’이 비슷한 빈도로 조사되었다. 그 외 경북·경남에서 ‘자부럼, 자부름, 자부

림’이, 제주에서 ‘죤’, 전북에서 ‘자오름’이 조사된 것이 특징적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나 경남, 전북에서는 남성 제보자에게서 ‘잠’이 확인되고 여성 제보자에게서는 ‘줄음’이 확인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세대 차이를 보면, 경기·강원에서 ‘잠’은 20대와 50대 제보자에게서 주로 확인되고, 70대는 ‘줄음’이 주로 확인된다. 경북·경남에서 ‘자부름, 자부름’ 등의 방언형은 50대, 70대에게서 보이고 20대에게서는 ‘잠, 줄음’이 확인된다. 전북의 ‘자오름’ 또한 7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20303 다슬기

전국적으로 ‘다슬기, 달팽이, 고동, 올갱이’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세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방언형이 50대까지는 유지되지만 20대에서 그 세력을 잃어 몇 개의 방언형들만 남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 70대와 50대에서 ‘고디, 사리고디, 사고디, 소라고동, 고동, 다슬기’ 등 다양한 방언형이 확인되지만 20대에서는 ‘다슬기, 고동’만이 조사되었다. 전남, 전북의 경우에도 70대와 50대에서는 ‘고동, 다슬기, 다스락지, 대사리, 대수리, 빠트리, 빠뚜리’ 등 다양한 방언형이 조사되었지만, 20대에서는 ‘고동, 다슬기’ 및 ‘올갱이’만이 확인된다.

20317 쉬파리

주로 ‘똥파리’와 ‘쇠파리’가 나타나고 ‘쇠파리’ 계열로 ‘시파리, 쉬파리, 세파리, 썰파리’ 등이 확인된다. ‘포리’, ‘퍼리’, ‘프리’가 결합한 ‘똥포리, 똥프리, 쉬포리, 쉬퍼리, 쉬프리’ 등도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세대 차이가 나타난다.

강원·경기에서는 ‘똥파리’가 20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50대와 70대에서는 ‘쉬파리, 세파리’ 등이 보인다. 경남·경북에서는 전 세대에서 ‘똥파리’가 확인되며, 경남 70대 제보자에게서는 ‘똥포리’도 나타났다. ‘쇠파리’ 계열로 경북의 20대와 70대에 ‘썰파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썰파리’는 충북의 50대에서도 조사되었으며, 충남의 50대에게서는 ‘씨파리’가 확인되었다. 전남·전북도 다른 지역과 유사하지만 전남 20대에게서 ‘왕파리’, 50대와 70대에게서 ‘쉬포리, 똥포리’, 전북 50대와 70대에게서 ‘쉬퍼리’가 조사된 점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다. 제주의 70대에게서는 ‘쉬프리, 똥프리’, 50대에게서는 ‘쉬포리, 똥포리’가 확인된다.

20336 여우

전국적으로 ‘여우, 여오, 여시, 여수, 예수, 여깁이, 여깨이, 영깁이’ 등이 조사되었다. 강원·경기에서는 전 세대에서 ‘여우’가 확인되고 강원 70대 여성의 경우 ‘영깁이, 여오’도 확인되었다. 경남·경북에서는 ‘여우, 여시, 야시, 예수’ 등이 확인되는데, 50대와 70대에서 주로 조사된 방언형은 ‘여우, 여시’이며 ‘야시, 예수’ 등은 일부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 20대는 ‘여시’로 응답한 제보자가 1명(경남 창원)인 데 비해 경북의 20대는 4명(김천·안동·경주)으로 지역별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남·전북에서도 50대와 70대는 ‘여우, 여시, 여수’가 골고루 조사된 반면 20대는 ‘여우’가 우세하다. 충남·충북 또한 이와 유사하게 20대에서는 ‘여우’만이 조사되었는데, 특히 충북에서는 70대에서 ‘여우, 여깁이, 여깨이, 여수’ 등 다양한 방언형이 나타나는 반면 20대에서 ‘여우’가 주로 확인되고 ‘여시’로 응답한 제보자가 1명(충북 충주)이어서 전 지역에 걸쳐 본래의 방언형 대신 ‘여우’가 세력을 크게 얻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507 거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180여 조사형을 대상으로 할 때,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을 ‘거름’형, ‘버름’형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지역별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거름’형: 거름(충남), 거끔, 거꿈, 개꿈, 게끔, 게품(제주)
- ‘버름’형: 버꿈(경남, 제주), 버끔(전남, 전북, 경남), 버름(전남, 전북)
- 기타: 저품(전북), 함불레기(제주)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32건인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라 16건, 제주 8건, 경상 6건, 충남 2건으로 이른바 삼남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13건이고 여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19건이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별로는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50대에서 11건, 70대에서 21건이어서 ‘20대 대 50대 이상’ 정도로 표준어화 정도에 의한 세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526 추위

전체 180여 조사형 중 표준어형인 ‘추위’가 아닌 것이 12건에 불과하여(9건의 ‘추이’는 제외), 표준어화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으로 ‘추부, 추비’와 같이 중세국어의 ‘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4건, ‘추우, 추’와 같이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5건, 기타 ‘취, 취위’가 3건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추부, 추비’는 경북과 경남에서 보이고, ‘추우, 추’는 전북과 전남 그리고 제주에서 보이고, ‘취, 취위’는 충남에서 보인다.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을 중심으로 할 때, 성별로 보면, 남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4건이고 여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8건이어서 본 항목의 경우에는 여성 제보자가 표준어화에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점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표본이라 하기는 어렵다. 세대별로 보면, 2024년의 충남(20대 남, 50대 남)과 경남(50대 여)를 제외하면 모두 70대에서만 발견되어 표준어화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20528 우박

전체 180여 조사형 중 표준어형인 ‘우박’이 아닌 것이 6건에 불과하여, 표준어화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으로 ‘유리’가 5건, ‘느리’가 1건인데, 남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2건이고 여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4건이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다. 2023년의 경북(50대 여)를 제외하면 모두 70대에서만 발견되어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이 매우 드물다는 점과 아울러 70대에서만 그것이 보인다는 점에서 표준어화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특기할 점으로, ‘우박’의 지역어형으로 표준어형이 아닌 것은 강원(강릉)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북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강릉이 영동 지역에 있음을 고려하면 지역어형 모두가 동남방언권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박’은 이른바 소실 음운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러하다.

20541 나중에

전체 180여 조사형을 대상으로 할 때,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비음첨가형: ① ‘ㄴ’ 첨가형: 난중에, ② ‘ㅇ’ 첨가형: 낭중에, 냉중에
- ‘내’형: 내중에, 냉중에
- 축약형: 내제, 나제, 난제
- 기타: ① n>y: 야중에(충남), ② 비음탈락: 나주에(경북), ③ 불명: 나케(전남), 나코(전남), 낭중께(전북)
- ‘나중에’와 무관하지만 특기할 형태: 이땅, 이따그네(이상 제주, ‘이따’와 관련되어 있을 듯해 ‘나중에’와 형태적으로 유관한 지역어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표준어형이 아닌 지역어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42건인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상 21건, 전라 9건, 제주 8건, 기타 4건으로 이른바 남부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14건이고 여성 제보자에 의한 것이 28건이어서 여성 제보자가 표준어화에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의미 있는 수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세대별로는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대에서는 7건, 50대에서 12건, 70대에서 23건이어서 세대가 올라갈수록 표준어형보다 지역어형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나 세대별 구분을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806 음식점 장년 여성(호칭)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여섯 유형 즉 ‘사장님’, ‘이모(님)’, ‘여기요’, ‘저기요’, ‘아줌마’, ‘아가씨’로 나뉜다(그 외 ‘언니’나 ‘여보세요, 여봐요’ 등이 드물게 출현함). 이 응답형의 실현은 지역 요소와는 상관없이 세대나 성별 요소와 관련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중복 응답도 포함함).

- 70대 이상:
 - 여: 사장님(3/30), 이모(9/30), 여기요(5/30), 저기요(2/30), 아줌마(6/30), 아가씨(4/30)
 - 남: 사장님(3/23), 이모(3/23), 여기요(3/23), 저기요(1/23), 아줌마(7/23), 아가씨(6/23)
- 50대:
 - 여: 사장님(8/45), 이모(14/45), 여기요(8/45), 저기요(7/45), 아줌마(1/45), 아가씨(3/45)
 - 남: 사장님(6/41), 이모(14/41), 여기요(5/41), 저기요(5/41), 아줌마(1/41), 아가씨(3/41)

씨(4/41)

■ 20대:

- 여: 사장님(19/44), 이모(9/44), 여기요(3/44), 저기요(10/44), 아줌마(3/44), 아가씨(0)
- 남: 사장님(16/37), 이모(12/37), 여기요(1/37), 저기요(8/37), 아줌마, 아가씨(0)

먼저 세대별 요소와 관련하여 ‘아줌마, 아가씨’는 50대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호칭이며 반대로 ‘사장님’은 70대 이상에서는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 호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모’는 대개, 불리는 이가 부르는 이보다 나이가 많아야 사용 가능한 호칭이므로 ‘장년 여성’을 대상으로는 70대 이상의 체보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23%=12/53)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요’와 ‘저기요’의 세대별 쓰임이다. 70대 이상은 ‘여기요’가 15%(8/53), ‘저기요’가 6%(3/53)이고 50대는 ‘여기요’가 15%(13/86), ‘저기요’가 14%(12/86)이고 20대는 ‘여기요’가 5%(4/81), ‘저기요’가 22%(18/81)다. 두 어형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50대를 기점으로 70대 이상은 ‘여기요’를 그리고 20대는 ‘저기요’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음식점의 ‘장년 여성’에 대한 호칭어가 ‘여기요’에서 ‘저기요’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다음으로 성별 요소와 관련하여 ‘이모(님)’의 응답형을 성별에 따라 합산해 보면 여성은 ‘27%(=32/119)’, 남성은 ‘29%(=29/101)’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세대별 요소를 같이 고려해 보면 70대 이상에서 여성은 30%(=9/30), 남성은 13%(=3/23)가 ‘이모(님)’을 사용하는 데 반해 20대에서는 여성 20%(=9/44), 남성 32%(=12/37)가 ‘이모(님)’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장년 여성’에 대해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모(님)’란 호칭을 많이 쓰고 2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모(님)’이란 호칭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004 잡수시다/자시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크게 네 유형 즉 ‘자시다’, ‘잡수시다/잡숫다’, ‘드시다/들다’, ‘식사하시다’로 나뉜다. 이 응답형의 실현은 지역이나 성별 요소와는 상관없이 세대별 요소와 관련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70대 이상: 자시다(15%), 잡수시다/잡숫다(44%), 드시다/들다(36%), 식사하시다(5%)
- 50대: 자시다(15%), 잡수시다/잡숫다(36%), 드시다/들다(44%), 식사하시다(5%)
- 20대: 자시다(6%), 잡수시다/잡숫다(43%), 드시다/들다(47%), 식사하시다(4%)

특히 ‘자시다’는, 위의 통계를 보면 50대 이하로 내려가면서 현저히 그 쓰임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22605 다르다/틀리다

2000년대 국립국어원 지역어사업에서 ‘틀리다’는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정신문화연구원 편) 경상도에서 거의 분포되지 않았던 ‘틀리다’는 20년 후 분포가 확인되기 시작하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경상도에서도 그 실현 범위가 꽤 넓어지고 있다.

80년대 경기, 강원, 충북에서 확인되던 ‘달르다’형은 현 시점에서는 70대, 50대에서만 확인된다. ‘달르다’형은 20대인 경우 충북 제천에서 확인된다. 제천이 특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는 더 많은 표본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달르다’형이 제천에서는 전 세대에서 ‘틀리다’형보다 그 실현비율이 높으나 충주만 하더라도 20대 여성에게서만 1회 확인되고 청주에서는 전무한 것이 또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남 여수 50대 여성에게서 1회 확인이 되지만 접촉인지 더 많은 표본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는 20대 남성에게서 1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인 충남 방언형 ‘달롭다’, ‘땃다’, ‘달부다’ 등은 70대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21년 충북 청주 70대 남성 ‘달롭다, 땃다, 틀리다’

21년 충남 대전 70대 남성 ‘달부다, 틀리다, 달롭다’

22년 전남 목포 70대 여성 ‘틀리다, 달부다’

23년 충남 공주 70대 여성 ‘다르다, 틀리다, 달롭다’

23년 충남 공주 70대 여성 ‘틀리다, 달롭다’

22705 쇠다

어휘 ‘쇠다’는 대중매체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기에 세대별 어형 차이를 확인해 보기에 좋은 조사 항목이라 볼 수 있다. 예상대로 20대에서는 ‘보내

다'가 압도적인데, 서부 지역일수록 50대, 70대에서도 '보내다'로 발화되는 빈도가 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보내다'류가, 경상도에서는 '쇠다'류의 발화빈도가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쇠다'는 50대, 70대에서 확인되며, 20대에서는 1회만 확인된다. 그 외는 '보내다'류로 발화되었다. 다만, 경상도 특히 경북에서는 '보내다'가 20대 여성에게서 2회, 50대 남성에게서 1회 확인되었다. 그 외는 '쇠다'류로 발화되었다. 경남에서는 '보내다'형이 70대 여성에게서도 확인되는데 전반적으로 경북보다 '보내다'류가 더 많이 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언권의 경우는 50대, 70대에서도 '보내다'의 발화 빈도가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714~22717 내/우리 아내, 내/우리 동생, 네/너희 남편, 네/너희 집

국어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지칭어를 사용할 때, '우리 누나/내 누나'처럼 '나'보다는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우리 리어카'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한 집에 차량도 몇 대씩 소유하게 되면서 '우리 자동차'보다는 '내 차'로 표현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내/우리'가 드디어 '아내/마누라/집사람/와이프' 등을 지칭할 때에도 간섭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내/우리 아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변종은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경기의 경우 '내 아내'류가 10회, '우리 아내'류가 14회 발화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내'가 선택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가 4회(여성 2회, 남성 2회). 50대가 4회(여성 1회, 남성 3회), 70대가 2회(여성)로 확인되었다. 50대 남성 3회가 특별해 보인다. 강원의 경우는 '내'가 5회, 우리가 17회로 나타났다. 경기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대가 4회(1:1), 50대가 1회(남)이다. 전라와 충청, 제주 20대에서도 수도권만큼이나 '내'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대 중 5명이 '내(수의성 포함)'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도에서도 20대에서 '내'의 실현을 꽤 확인할 수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그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70대에서도 '내'가 소수 확인되는데 이 '내'는 여성에게서 확인되는 경향이 높다. 여성은 이를 직접 써본 적이 없고 들어본 것이기에 갑자기 발화를 할 때 헛갈릴 수 있을 듯하다. 충청권은 50대, 70대에서도 '내'가 더러 확인되는바 중부 방언에서의 '내' 선택 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20대에서는 5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내'의 실현이 확인

되며, 50대, 70대에서는 여성에게서 ‘내’가 사용되는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듯 보인다. 50대 남성, 70대 남성 소수가 ‘내’를 선택하는데 이 또한 사회상의 일면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아내/마누라/집사람/와이프’에서 ‘내’를 선택하면 ‘동생’에서도 ‘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남편’에서는 ‘너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집’은 아직은 ‘니/네 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드뭇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 [+공동] 자질이 없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내 동생(16회, 수의적 5회 포함) > 네 남편(11회, 수의적 5회 포함) > 내 아내(10회, 수의적 5회 포함) > 너 집(1회, 장음을 확인할 수 없기에)
cf. 우리 동생 8회(수의적 5회 포함), 20대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다음은 ‘내/우리’의 선택 여부를 떠나서 전통적 지칭의 사용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경기의 경우 ‘와이프’ 계열은 20대 여성, 50대 여성에게서 2회 확인되었고, ‘집사람/안사람’ 등의 전통 지칭은 70대 여성에게서 1회 확인되었다. ‘마누라’는 2회 확인된다(50대 여, 70대 남), ‘아내’가 15회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경상도에서는 ‘집사람/안사람’의 전통 지칭이 상당히 우세하다. 경북은 ‘아내’가 7회, ‘마누라’가 2회, ‘와이프’가 3회로 확인되었고, ‘집사람/안사람’이 11회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은 ‘아내’가 4회, ‘마누라’가 3회, ‘와이프’가 2회로 확인되었고, ‘집사람/안사람’이 10회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북과 경남은 20대에서도 종종 ‘집사람’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2801 내-가

‘내-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표준어형과 동일한 ‘내가’가 주로 나타난다. 다만 전남의 경우에는 70대(남·여), 50대(남·여)에서 모두 ‘나가’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전남(여수)의 전통적 방언형을 ‘나가’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20대(남·여)는 ‘내가’를 쓰는바, 이는 표준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2023년도 조사(광주 광산)에서는 모든 제보자가 ‘내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전남방언권에서도 지역에 따라 ‘내-가’의 전통적 방언형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2802 저-가

‘저-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표준어형과 동일한 ‘제가’가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북(70대 남)과 전북(50대 여)에서 ‘저가’의 실현이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2802 내-가’ 항목에 대한 전통적 방언형으로 ‘나가’를 실현시키는 전남에서도 ‘저가’의 쓰임은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2023년 조사에서는 ‘저가’의 분포 지역이 조금 넓어서 강원(50대 남), 경기(70대 여), 경남(70대 남·여), 경북(50대 여), 제주(50대 남·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충북(70대 남)에서는 ‘지가’가 쓰이는데 이는 ‘ㄱ>ㅣ’의 고모음화가 적용된 결과일 것이다. 참고로 이 항목에 대한 2023년 조사에서는 경북(70대 남), 전남(70대 남), 충남(70대 여)에서도 ‘지가’가 쓰인다.

22803 너-가

이 항목에 대한 방언형들은 두 가지 면에서 흥미를 끈다. 먼저, ‘22802 저-가’ 항목과는 달리 ‘ㄱ>ㅣ’의 고모음화가 적용된 ‘니가’가 지역,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매우 활발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네가’는 전북(70대 남)과 충남(70대 남)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내가’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판단한다.

다음으로, ‘너가’의 쓰임도 꽤 활발한 편인데 아래에 제시한 그 양상을 보면 20대에서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2023년도의 조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 저’와 달리 왜 ‘너’만 ‘너가’의 쓰임이 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 70대: 경북(남), 전북(여), 충남·충북(여)
- 50대: 충남(여)
- 20대: 강원(남·여), 경기(여), 전남(남·여), 제주(남), 충남·충북(남·여)

22825 가니?

경남(50대 남·여)에서 ‘가네?~가니?’가 쓰인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 그리고 강원(70대 남·여), 50대(남·여)에서는 전통적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를 쓰는 데에 반해 20대(남·여)에서는 ‘가니?’를 쓰고 있는바, 이는 표준어

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로, 20대에서는 점차 격식체인 해라체 활용형보다는 비격식체인 해체 활용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지역에 상관없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여), 경북(남), 전남(남·여), 전북(남·여), 충남(여)’ 등의 20대가 ‘가?’를 쓰고 있다.

22826 버리다(보조동사)

보조동사 ‘버리다’는 일상생활에서 빈도수가 매우 높은 어형이라서 표준어형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특히 전남과 경상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전남과 경상, 이른바 남부 방언권은 전통적인 방언형 ‘불다’, ‘부다’, ‘빠다’, ‘빠리다’형이 압도적이다. 경상도에서는 20대에서도 전통방언형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북과 중부방언에서는 ‘버리다’형 외에는 다른 방언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이한 것은 제주에서는 20대조차도 ‘버리다’형보다는 ‘불다’형을 자유롭게 발화한다는 것이다. 경북은 ‘빠다’, ‘뿌다’ 등이 대세를 이루나 경남 20대에서는 ‘버리다’형이 우세하다. 경상도에서 ‘버리다’형이 50대, 70대에서 확인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 여성들임을 알 수 있다. 경상도 20대에서 ‘빠다’, ‘뿌다’형이 확인되는 것은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단어라서 어릴 적부터 연어 관계 형식으로 습득이 되고 발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강원도 20대에서 ‘내비뒤’, ‘냅뒤’ 등을 사용하는 것도 연어적인 발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 양적 분석

수적으로 그리 충분하지 않은 자료지만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고 여겨지는 일부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적 분석을 시도한다.

- ① 어휘 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어’는 1, ‘지역어’는 2, ‘모름/응답없음(혹은 기저형 설정 불가)’은 0으로,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은 1, 2로 코딩하였음.
- ②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휘 항목 추출
- ③ 카이제곱 검정은 범주형 데이터 간의 독립성을 테스트하여 그룹 간의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음.

㉔ 세대와 성별이라는 변수를 결합하여 복합 변수로 처리하여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시험적 결과를 얻어내었는바 이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103 흰자위

(카이제곱 통계량 (χ^2): 55.23,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21	3	4	2
	여	26	5	0	1
50	남	22	5	2	2
	여	17	11	3	1
70	남	7	20	3	2
	여	5	19	5	1

‘흰자위’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55.23$),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흰자위’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대는 남녀 모두 표준어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70대는 남녀 모두 지역어 사용 빈도가 높다. 50대는 남녀 모두 표준어 사용 빈도가 높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역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5 눈두덩

(카이제곱 통계량 (χ^2): 39.41, $p < 0.001$, 자유도 (dof): 20)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15	9	0	6
	여	19	6	5	2
50	남	9	13	3	5
	여	20	11	1	0
70	남	7	18	2	5
	여	9	16	3	2

‘눈두덩’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20) = 39.41$,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흰자위’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대는 남녀 모두 표준어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70대는 남녀 모두 지역어 사용 빈도가 높다. 50대는 성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성은 지역어, 여성은 표준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08 귀지

(카이제곱 통계량 (χ^2): 50.282, $p < 0.001$, 자유도 (dof): 20)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14	12	4	0
	여	12	11	8	1
50	남	4	21	6	0
	여	9	20	3	0
70	남	2	25	3	2
	여	1	27	2	0

‘귀지’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50.282$),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귀지’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꿉놀이’와 유사하게 젊은 세대로 올수록 표준어 사용 빈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9 귀이개

(카이제곱 통계량 (χ^2): 54.869,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9	15	2	4
	여	16	10	4	2
50	남	2	25	2	2
	여	3	27	1	1
70	남	2	28	0	2
	여	1	28	1	0

‘귀이개’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

정 결과, ($\chi^2(15) = 54.869$),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귀이개’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와 70대는 지역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20대 여성은 표준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대와 50·70대로 분화된 어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20대 여성은 표준어형을 남성은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20124 겨드랑

(카이제곱 통계량 (χ^2): 66.12,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25	0	3	2
	여	30	1	1	0
50	남	25	2	4	0
	여	24	5	3	0
70	남	11	14	4	3
	여	10	15	5	0

‘겨드랑’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66.12$),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겨드랑’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와 50대는 표준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70대는 지역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50대와 70대로 분화된 어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0133 가부좌: 지역어 사용 비율이 높은 단어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3	26	1	0
	여	3	23	3	3
50	남	0	27	2	2
	여	1	28	3	0
70	남	0	28	0	4
	여	0	29	0	1

‘가부좌’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지역어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어 사용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단어에는 ‘구레나룻, 고런내, 찹, 가부좌, 벧 등’이 있다.

20318 쉬슬다

(카이제곱 통계량 (χ^2): 82.53 , $p < 0.001$, 자유도 (dof): 10)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0	5	0	25
	여	1	5	0	26
50	남	0	16	0	15
	여	0	17	0	15
70	남	0	29	0	3
	여	0	30	0	0

‘쉬슬다’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0) = 82.53$),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쉬슬다’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대는 남녀 모두 ‘쉬슬다’를 거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는 남녀 모두 지역어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의 경우 절반은 지역어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28 우박: 표준어 사용 비율이 높은 단어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30	0	0	0
	여	31	0	1	0
50	남	31	0	0	0
	여	31	0	1	0
70	남	27	0	2	3
	여	26	1	3	0

‘우박’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표준어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어 사용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단어에는 ‘우박, 벌, 가을, 올해, 칼국수’가 있다.

20606 아우타다

(카이제곱 통계량 (χ^2): 79.84,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0	0	0	30
	여	0	1	1	30
50	남	1	5	1	24
	여	2	15	2	13
70	남	3	14	0	15
	여	3	22	1	4

‘아우타다’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79.84$),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아우타다’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대는 남녀 모두 ‘아우타다’를 거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은 70대 남성과 유사한 빈도로 지역어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세대별 차이와 함께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2218 참빚

(카이제곱 통계량 (χ^2): 37.79,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¹⁾	남	21	4	2	3
	여	20	6	2	4
50	남	19	5	7	0
	여	22	8	2	0
70	남	21	3	4	4
	여	11	17	2	0

‘참빚’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37.79$),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참빚’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70대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역어형(주로 ‘참빚’으로 나타남)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참빚’에 대해 ‘빚’으로 응답한 것도 표준어로 코딩하였음.

22229 반진고리

(카이제곱 통계량 (χ^2): 68.52,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12	6	0	12
	여	20	1	1	10
50	남	8	9	4	10
	여	20	4	2	6
70	남	1	19	1	11
	여	5	16	5	4

‘반진고리’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68.52$),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반진고리’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대와 50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의 표준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70대의 경우 남녀 모두 지역어 사용 빈도가 20·50대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20·50대와 70대로 분화된 어휘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22230 다듬잇돌

(카이제곱 통계량 (χ^2): 91.82,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0	5	0	25
	여	2	3	2	25
50	남	12	11	1	7
	여	13	10	4	5
70	남	3	17	1	11
	여	3	21	2	4

‘다듬잇돌’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91.82$),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다듬잇돌’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대는 남녀 모두 ‘다듬잇돌’을 모르는 응답이 높았으며, 50대의 경우 남녀 모두 표준어와 지역어 사용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70대의 경우 남녀 모두 지역

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410 소꿉놀이

(카이제곱 통계량 (χ^2): 75.44,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표준어 사용(1)	지역어 사용(2)	표준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1, 2)	모름(0)
20	남	22	3	3	2
	여	19	3	8	2
50	남	12	15	4	0
	여	10	15	5	2
70	남	4	23	1	4
	여	2	26	1	1

‘소꿉놀이’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75.44$),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소꿉놀이’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70대에서 20대로 올수록 표준어 사용 빈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604 다르다/틀리다

(카이제곱 통계량 (χ^2): 40.73, $p < 0.001$, 자유도 (dof): 15)

세대	성별	다르다(1)	틀리다(2)	다르다/틀리다 모두 사용(1, 2)	모름(0) ²⁾
20	남	12	6	0	1
	여	20	1	1	1
50	남	8	9	4	0
	여	20	4	2	2
70	남	1	19	1	5
	여	5	16	5	1

‘다르다/틀리다’ 항목에 대한 세대와 성별의 복합 변수에 기반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chi^2(15) = 40.73$), ($p < 0.001$)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및 성별과 ‘다르다/틀리다’ 항목 사용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대는 ‘다르다’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70대는 ‘틀리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은 ‘다르다/틀리다’를 유사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다르다’의 사용

2) ‘다르다/틀리다’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어형을 사용한 경우도 ‘응답 없음’으로 코딩하였음.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구술발화에 관한 분석

단어 중심의 어휘·표현 조사와 달리, 문장 중심의 구술발화 조사는 그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한국인의 생활사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이러한 구술발화 조사의 결과물들은 말투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언어학적으로 말투는 크게 격식 말투와 비격식 말투로 나뉜다. 말투의 면에서 어휘·표현 조사 결과물과 구술발화 조사 결과물을 거칠게 비교하면 어휘·표현은 격식 말투, 구술발화는 상대적으로 비격식 말투를 조사한 것이 된다. 이러한 두 말투는 음성, 억양, 단어, 어구, 문장, 텍스트 등 여러 부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결과의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기본 말뭉치 확보가 전제된다. 아직 그러한 크기의 말뭉치가 전혀 구축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단어 차원에서의 비교를 통해 두 말투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으로 한정된다. 그리하여 일단,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어휘·표현 조사의 결과물과 구술발화 조사 결과물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선별해 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본다. 먼저 50대 남녀 제보자의 어휘·표현 조사 결과물과 구술발화 결과물에서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음화의 경우, 50대 남녀 제보자 모두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어두 경음화를 적용하지 않은 ‘작다’를 실현하였으나 구술발화에서는 언제나 경음화가 적용된 ‘ 짹다 ’로 실현되었다.

■ 작다

- 어휘·표현: 작다
- 구술발화: 짹다

어두경음화를 적용한 형태가 비표준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작다’로 응답하였으나, 비교적 비격식적인 발화인 구술발화에서는 평소의 발음대로 ‘ 짹다 ’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명사의 경우에도 어휘 항목과 구술발화 간의 몇몇 차이점이 눈에 띄지만

사례가 적어 현재로선 일반화하기 어려워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 여기, 저기, 거기, 너희

- 어휘·표현: 여기, 저기, 거기, 느그(50대 남녀)
- 구술발화: 여:, 저:, 거:, 느:(50대 남)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50대 남녀 제보자 모두 ‘여기, 저기, 거기’ 등의 표준형과, ‘느그’ 등의 전통적 방언형을 사용하였다. 그중 50대 남성 제보자는 구술발화에서 음소의 탈락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보통 발화의 빠른 속도에 따라 일어나는 탈락 또는 축약과는 달리 남은 음절이 1모라 이상의 길이로 실현된다. 이 지역의 성조를 감안한다면 ‘여:, 저:, 거:’는 모두 하강조로, ‘느:’는 상승조로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어HL’, ‘느으LH’로 전사할 수도 있겠다.

어휘의 사용에서도 어휘·표현 조사와 구술발화에서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 다르다

- 어휘·표현: 다르다/틀리다(50대 남), 다르다(50대 여)
- 구술발화: 다르다/틀리다(50대 여)

50대 여성 제보자의 경우,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같지 않다’는 의미로 ‘다르다’만 쓸 수 있으며 ‘틀리다’는 쓸 수 없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구술발화에서는 ‘같지 않다’는 의미로 ‘다르다’를 3회, ‘틀리다’를 7회 실현하였다. 이는 표준형인 ‘다르다’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답 형식의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다르다’만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의 결과와 반대로,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전형적인 방언형으로 응답하였으나 구술발화에서는 표준어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살필 수 있었다.

■ 이제

- 어휘·표현: 인자(50대 남녀)
- 구술발화: 인자(50대 남), 인제(50대 여)

50대 남녀 제보자 모두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인자’라고 답하였으며, 그중 50대 남성 제보자는 구술발화에서도 ‘인자’형만을 131회 실현하였다. 반면 50대 여성

제보자는 구술발화에서 81회의 ‘인자’형과 11회의 ‘인제’형을 보임으로써 표준어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조사 ‘-밖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 -밖에

- 어휘·표현: -빼이(50대 남), -빼이(50대 여)
- 구술발화: -뻘에(50대 남), -빼이/-밖에(50대 여)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모두 종성 ‘ㄱ’이 탈락한 ‘-빼이’, ‘-빼이’로 응답하였는데, 구술발화에서는 ‘-밖에/-뻘에’형이 주로 등장하였다.

기존의 통념상 구술발화에서 비표준형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선 두 예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 가능한 한 가지 원인은 청자 설정과 상대 높임의 문제이다. 어휘·표현 조사에서는 청자가 ‘친구’라고 가정하고 ‘인자’, ‘-밖에’를 묻게 되므로 ‘너’에게 말하는 해라체 문장이 형성되는데, 구술발화 조사는 초면의 조사원과 대화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하오체 이상의 상대높임법이 채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구술발화 분석 도구의 확립을 위한 분석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3. 종합 분석

이상에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어 변이 양상을 대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는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므로 추후에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하여 상당 규모로 사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1) 표준어화: 70대를 제외할 때 표준어가 전국을 거의 석권하였다.

‘흰자위(20103), 눈두덩(20105), 엇듣다(20110), 보조개(20115), 팔짱 끼다(20125), 새끼손가락(20129), 벌(20315), 올해(20520), 우박(20528), 칼국수(21608)’ 등의 항목은 표준어화가 전 세대에 걸쳐 거의 완성되었다.

- 할아버지(20703), 할머니(20704): 경상도 50대·70대(‘할배, 할매’), 전남 70대(‘하내, 할매’), 제주도 50대·70대(‘하르방, 할망’)를 제외하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통의 표준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역별 분화: 대체로 70대 이상에서 지역 분화형을 볼 수 있다.

보조동사 ‘버리다(22826)’는 일상생활에서 빈도수가 매우 높은 어형이라서 표준어형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일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표준어 ‘버리다’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를 간직한 전라남도과 경상도에서 이러한 특징은 매우 쉽게 확인된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북도에서는 ‘버리다’에 대한 전통적인 방언형 ‘불다, 부다, 빠다, 빠리다’형이 압도적으로 쓰여 왔는바 심지어 20대에서 ‘빠다, 뿌다’형의 쓰임이 발견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단어라서 어릴 적부터 연어 관계 형식으로 습득이 되고 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되었으리라는 말이다. 경기도, 강원도 20대에서 ‘내비뒤’, ‘넙뒤’ 등을 사용하는 것도 연어적인 발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 외 지역적 분화를 볼 수 있는 항목으로 ‘귀지(20108), 까치발(20136), 계집아이(20601), 갈퀴(22206), 내버려뒤(22902)’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귀지(20108)’다. 표준어 ‘귀지’가 여러 지역에 고루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어형 ‘-밥’계(‘긱밥, 귀팝’ 등)가 충남·전남·전북·제주에 그리고 ‘-칭’계(‘귀칭, 귀창, 귀챙이’ 등)가 강원·충북·경남·경북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귀지’를 제외할 때, 지역적으로 서쪽의 ‘긱밥’과 동쪽의 ‘귀칭’으로 전국이 동서로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남북으로의 분화를 보여 주는 지역어형이 출현하는 몇 예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구레나룻(20113): 70대의 경우, ‘구레수염’형이 경남·경북·전남·제주에서만 보여 남부 지역으로 그 분포가 제한적임.
- 계집아이(20610): 전국적으로 ‘계집애, 기집애, 지집애’ 계통의 어형이 출현하는 가운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시나, 가시내’ 계통의 어형이 나타남. 남북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 줌.
- 갈퀴(22206): 경상도를 중심으로 ‘까꾸리, 깔꾸리’ 등 그리고 제주에서 ‘글갱이’가 쓰이고 있어, 경상·제주와 그 외의 지역으로의 분화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 줌.

기타 ‘줄음(20215), 딸국질(20209), 다슬기(20303), 벼(20415), 소꿉놀이(22410), 부시다(22601)’ 등도 분화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다는 하였으나 아직도 70대에서는 지역 분화형을 보여 주고 있다.

(3) 세대별 분화: 구형이 신형으로 바뀌는 언어변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세대별 분화를 볼 수 있는 항목은 50대를 기점으로 하여 두 부류로 나뉘는바 ‘20대·50대 / 70대 이상’으로 분화되는 유형과 ‘20대 / 50대·70대 이상’으로 분화되는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20대가 사용하는 어형이 신형이고 70대 이상이 사용하는 어형이 구형이 될 텐데 대개의 경우에는 표준어형이 20대에서 사용되는 신형으로 나타난다.

■ 20대·50대와 70대 이상으로 분화

- 구레나룻(20113): 표준어형 ‘구레나룻’이나 이의 변이형이 전반적으로 분포하나 70대의 경우 ‘구레수염’형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사용됨. 제주의 ‘녹데쉬엄’을 포함하면 ‘--수염’형이 남부 지역에 분포한다고 할 수 있음.
- 겨드랑(20124): 20대·50대에서는 표준어 ‘겨드랑, 겨드랑이’가 쓰이나(경북과 제주의 20대와 50대의 예외가 있음) 70대에서는 전통 지역어형이 나타남.

■ 20대와 50대·70대 이상으로 분화

- 귀지(20108): 충남·전남·전북·제주 등 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꺄밥’과 강원·충북·경남·경북 등 동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꺄청’은 50대 이상에서 주로 사용되어 지역은 물론 세대별 분화 양상을 보임.
- 꺄이개(20109): 20대는 표준어 ‘꺄이개’를 사용하는 데 반해, 50대와 70대는 지역어형(‘꺄후비개, 꺄쭈시개, 꺄지개, 꺄파개, 꺄밥파개, 꺄(기) 후비는 거, 꺄밥 내는 거, 꺄밥 파는 거’ 등)을 사용함.
- 멍울(20202): 20대는 ‘멍-’계를 사용하나, 50대·70대는 ‘몽-’계(‘몽오리, 몽아리, 몽울’ 등)를 사용함.
- 쉬슬다(20318): 20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④ 무지’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50대와 대부분의 70대들에서 지역어형(‘쉬갈리다, 쉬실다’ 등)이 사용됨.
- 플래시/후래시(22507):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래시, 후라시’ 등 ‘ㅎ’계를 사용

하는 가운데 규범 표기인 ‘플래시’가 일부 지역(강원·경기·경상·제주·충남)의 20대들에게서 사용됨.

이 두 유형은 표준어화의 중간 과정을 보여 준다. 즉 후자(20대/50대·70대로의 분화 유형)를 거쳐 전자(20대·50대/70대로의 분화 유형)의 단계에 이른 후, 70대마저 대부분 표준어형을 사용하게 되면 표준어화가 완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대별 분화가 꼭 표준어화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장년 여성(20806)’에 대한 호칭에서는 표준어형 특히 ‘여기요’와 ‘저기요’ 간의 신형과 구형으로서의 교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지역적 차이를 무시할 때 두 어형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50대를 기점으로 70대 이상은 ‘여기요’를 그리고 20대는 ‘저기요’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70대 이상에서는 ‘여기요’ 사용 비율이 15%이고 ‘저기요’ 사용 비율이 6%이지만, 20대는 거꾸로 ‘여기요’가 5%, ‘저기요’가 22%다. 이로써 음식점의 ‘장년 여성’에 대한 호칭어가 ‘여기요’에서 ‘저기요’로 바뀌어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내/우리 아내(22714), 내/우리 동생(22715): 전체적으로 20대에서 ‘내’ 쪽을 연결시키는 비율이 높음. 특히 경기도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 ‘내’를 연결 짓는 비율이 매우 높아 [+공동]의 자질이 없어지고 있다고 할 만하다.

앞선 예들과 달리, ‘너-가(22803)’에서는 ‘에>이’의 고모음화가 적용된 ‘니가’가 지역, 세대, 성별과 관계없이 매우 활발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니가’는 비표준어인바 신형이 꼭 표준어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4) 성별 분화: 여성이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 분화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제보자가 확보되면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어 조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특정 단어를 제외할 때 여성이 전통형을 더 많이 유지함.

- 수치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흰자위(20103), 거품(20507), 추위(20526), 우박(20528), 나중예(20541), 아우타다(20606), 참빛(22218)’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전통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함.
- 다만 ‘반질고리(22229)’는 여성의 표준어 사용 빈도가 오히려 높음. 성별 요소와 표준어 사용 경향 사이의 관계에서 단어의 부류가 관련되어 있는 듯함.

흥미롭게도 ‘겨드랑(20124)’의 전통 지역어형(‘저드랑, 저트랑’ 등)의 경우, 강원도와 경상도에서는 여성이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전라도에서는 남성이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 단어는 특수한 단어 부류에 속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충분한 사례가 확보되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5) 신방언이 출현하기도 한다.

‘신방언’이란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겪어 신형이 탄생한 경우를 이른다. 지역어 변이 조사의 결과, 특징적인 사실은 신방언의 확산이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어느 정도 보인다는 점이다.

- 가부좌(20133): 표준형 ‘가부좌’는 극히 소수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책상다리, 양반다리, 아빠다리, 나비다리’ 등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특히 ‘아빠다리’와 ‘나비다리’는 50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20대를 중심으로 쓰여 신방언 형성의 좋은 예가 됨.
- 덤(21203): 경남·전북·충청 20대 남·여, 경기·경북·전남·제주 20대 여성이 ‘씨비쓰’를 사용함.
- 작두(22209): 표준어형 ‘작두’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기·전북 20대는 전통적 어휘인 ‘작두’를 몰라서 ‘절단기’를 사용함.
- 솟돌(22210): 경기·경남·경북·충북의 20대는 ‘칼갈이’를 사용함.(‘칼갈이’는 원래 “칼을 갈아 날을 세우는 일”이나 “칼을 갈아 주고 샅을 받는 사람”을 뜻함).
- 부지깽이(22227): 대체로 충북·경북·전북의 20대에서 ‘불쭈시개’와 ‘불쏘시개’가 쓰임.(‘불쏘시개’는 원래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붙게 하기 위해 먼저 태우는 물건”을 뜻함).
- 땡땡이치다(22701):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땡땡이치다’가 사용되는 가운데 (‘땡땡이’ 대신 ‘농땡이, 빠구리’ 등이 사용되기도 함) 충북 및 경상·전라의 20대

를 중심으로 ‘쩌다’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2024년도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와 경기도의 20대도 ‘쩌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내버려 뒤(22902): 남부형 ‘넵뒤’나 ‘넵도’가 신방언으로 선택되어 2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죽마고우(22906): 20대를 중심으로 ‘절친’ 또는 ‘베프’가 사용되기 시작함.

■ 간혹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신방언이 출현하는 경우가 발견됨.

- 반진고리(22229): 강원·경기·경남·충북의 20대 남성이 ‘바늘통, 바느질통’을 사용함(다만 경남의 20대 여성도 ‘바느질통’을 사용함). 역사 용어로 “바늘을 담아 두던 통(청동기 시대의 유적에서 나온 것으로, 둥근 동물 뼈의 한쪽 끝을 막아서 만들었음)”을 뜻하는 ‘바늘통’과 여기에서의 ‘바늘통’은 별개의 것일 듯함.
- 다듬잇돌(22230): 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의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빨래판’이나 ‘빨랫돌’이 소수 쓰임. “빨래할 때 쓰는 판”을 뜻하는 ‘빨래판’과 “빨래할 때, 빨랫감을 올려놓고 문지르기도 하며 두드리기도 하는 넓적한 돌”을 뜻하는 ‘빨랫돌’이 ‘다듬잇돌’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

(6) 사어화: 전통 지역어형뿐 아니라 표준어형도 사어화를 겪고 있다.

표준어화에 따라 전통형의 사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무수히 많으므로 대부분의 예들을 생략하며 다만 여기서는 ‘우박(20528)’의 경우만 예로 들기로 한다.

《한국언어지도》(2008)에 따르면 이 단어는 세 계열 즉 ‘우박’계, ‘누리’계, ‘유리’계(강원)로 나뉘는데 ‘우박’계가 경기·충청·전라·제주 등 서부 지역에 나타나고 ‘누리’계가 강원·경상 등 동부 지역에 나타나며 그 ‘누리’계가 쓰이는 강원·경북의 일부 지역에 ‘유리’계가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었다. 하지만 지역어 변이 조사에서는 ‘느리(강원도 70대 여성)’와 ‘유리(경북 70대 남·여, 경북 50대 여성)’가 단지 몇 차례 확인될 뿐이고 더구나 ‘유리’의 경우는 ‘우박’과 항상 같이 쓰이므로 실제로 전통형만 사용하는 경우는 ‘느리’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언어지도》(2008)가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 근거한 만큼, 이로써 30여 년 새에 즉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전통 지역어형이 거의 소멸되었다 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전통 지역어형만의 문제는 아니다. 표준어형의 사어화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우타다(20606): 일부 70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보자들에게 ‘③ 인지’ 또는 ‘④ 무지’로 조사됨.
- 아뵤(20717): 일부 70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OO아빠, OO애비’와 같은 형태를 사용함.

흥미로운 것은 전통형이 유지되면서 표준어형이 축소되는 단어들도 간혹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 목말(22409): 표준어형 ‘목말’이 경남·전남·충청 70대 정도에서만 사용되는 가운데 지역어형 ‘목마, 무등’을 사용하는 지역(경기·강원·충청·전북·전남·제주)과 그 외 ‘흑말(경상), 무동, 동대(경북), 정기고개(제주)’ 등의 지역어형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뉨.

대체로 사어화는 자연물 또는 문물이나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다. 대상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 표현이 함께 사라져 사어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전통형의 소멸 현상을, 표준어에 의해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와 사회 변화에 의해 사라지는 경우를 구별하여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제 5 장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제5장 지역어 변이 조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5.1. 사업 결과물

이 연구는 한국어에 관한 언어 다양성 보존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어에 관한 세대별·성별 변이 양상을 조사하여 실제의 언어생활이나 언어 정보화 및 각 지역의 언어문화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 가능한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결과물들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결과보고서
- <세대별 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질문지>(사진 자료 포함): [별첨 파일]
-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붙임 1]
- 전사 자료 정비 지침: [붙임 2]
-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 [붙임 3]
- 조사 결과물: [별첨 파일]

<어휘·표현>

- 전체 녹음(WAV)
- 항목별 녹음 분절(WAV)
- 전사(EAF)
- 결과물 정리(XLS)

<구술>

- 전체 녹음(WAV)
- 전사 및 표준어 대역(EAF)

5.2.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지역별, 세대별, 성별에 따른 표준어화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처럼 맹렬한 표준어화 과정 속에서도 전통적 방언형이 존속해 있거나 신형이 새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결국 해당 지역을 대

표하는 방언을 형성하게 되는 셈인데 이로써 앞으로의 조사 결과는 그러한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의 경쟁 및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리라 판단된다.

1) 의의

이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조사원들의 조사 작업을 통해서 지역별, 세대별, 성별 요소에 따라 드러나는 언어상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전국적으로 표준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0대 이상에서 전통 지역어형이 유지되고 있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어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로서 지역어 조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2) 세대별 분화는 70대 이상에서 사용되는 구형이 20대가 사용하는 신형으로 바뀌는 언어변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이때의 구형은 전통 지역어형, 신형은 표준어형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대별 분화가 꼭 표준어화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음식점 장년 여성’에 대한 호칭에서처럼 표준어형 사이의 변화 즉 ‘여기요’에서 ‘저기요’로 바뀌어 감을 알려 주기도 하는 것이다. 심지어 ‘너-가’에서 보듯 비표준어 ‘니가’가 확대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 (3) ‘바늘통(반질고리), 씨비스(덤), 아빠다리(가부좌), 절친(죽마고우), 절단기(작두), 칼갈이(숫돌), 불쑥시개(부지깥이), 썰다(땡땡이치다)’ 등 20대를 중심으로 신방언형이 확산되고 있다.
- (4) 지역어형 ‘누리, 유리(우박)’ 등이나 표준어형 ‘다듬잇돌, 아우타다, 목말, 아뻬’ 등에서 보듯, 자연물이나 문물 또는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어휘는 표준어형이든 지역어형이든 상관없이 사어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정된 제보자를 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적인 결과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어화를 겪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조사는 사전학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들 단어는 다음 세대에서는 결코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지금 현재, 해당 단어들

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 충실히 해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단어들은 형태뿐 아니라 용례를 많이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언어변화의 단계 즉 이해어로서 남아 있는지, 실제 용례에 기반한 구사어로서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지도/사용도 조사 또한 필요하다.

둘째, 신방언의 출현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언어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이런 신방언을 통해 가깝게는 지역어가, 지난 세대의 유산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의식을 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신방언의 생성 및 확산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언화자의 의식 나아가 한국인의 언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언학적으로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정리·분석의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전통적 의미에서의 방언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70대 이상의 제보자,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대 효과

이 연구는 세대와 성별이라는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지역어를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면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2022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이 개시된 이후, 연차 사업으로서 거의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 준다.

첫째, 한국어 사용에서 지역과 세대,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사회적 변수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사회와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는 언어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성이 가능해진다. 언어가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 나아가 언어의 역동성 및 자율성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지역어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지는 기존의 노년층, 농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도시 지역 거주자도 두루 응답할 수 있도록 주제와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세대와 성별 그리고 지역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대안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각 조사 항목에서는 사용어, 이해어 및 미사용어를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도시 방언을 조사할 때도 기준이 되는 질문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엘란(EL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어 어휘와 구술발화에 대한 전사를 실시하였다. 엘란을 활용한 전사 자료는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물은 다양한 음성 자료 및 영상 자료의 결과물들과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어서 언어 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전문적인 언어 조사 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어 조사 사업에 참여한 조사원의 경력 차이로 인해 아직은 조사 수준의 편차가 크지만 지속적인 언어 조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언어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제 조사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훌륭한 언어 조사원을 양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을 통해서만 20여 명의 전문 조사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된다.

다섯째, 다양하고 입체적인 한국어 자료를 축적하여 확보함으로써 한국어 분야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사회학, 문화 예술 분야로 연구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 빅데이터 자료에 입각한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나아가 영화, 연극, 문학작품, 드라마 등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한류를 확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여섯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의 궤적을 음성 자료와 전사 자료로 기록하고 무형 문화로서의 우리말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자료들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 자료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3) 제언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조사 일반

이번 사업의 조사 지점(9개)은 대체로 통합 대도시(강릉, 의정부, 진주, 김천, 여수, 남원, 제주시, 홍성, 제천)였는바 여러 언어 변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해당 대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달리 선정·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토박이 조건을 준수하여 조사했다 하여도 선택된 제보자가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 항목을 500개로 한정하여 질문지를 만들고 실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더 조사했으면 하는 항목들이 발견된다.

첫째, 기존의 전통어 중심의 지역어 조사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언어생태 환경

(사어화 포함)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어휘를 어느 정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별 차이를 확연히 보일 만한 단어, 예를 들어 경어법 관련 단어 또는 70대가 이해할 수 있는 외래 어휘 등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 차이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단어, 예를 들어 신어 또는 특정 성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조사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구술발화

이번 조사 지점이 대도시였던 까닭에 특히 구술발화 속에 나타나는 제보자들의 생활 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므로 이 또한 전통적 생활권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달리 선정·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어휘·표현

인지도/사용도는 언어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일정 수 이상의 제보자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휘·표현 항목에 대한 인지도/사용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어휘·표현 항목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 제보자와 남성 제보자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정말 그러한지 또 이들이 운소 측면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연차적으로 더 많은 제보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운소 측면의 전사를 다시 도입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④ 결과물의 활용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세대별 언어에 주목하였는바 구체적이며 주체적인 언어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20대 뿐 아니라 세대 전반에 걸쳐 남편 호칭, 아내 지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언어예절에 대한 다양성 및 혼란상이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규범의 실제 적용 및 변형의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심층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충구(2007), 방언의 사전적 수용,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 김덕호(2006), 연령별 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김덕호(2009), 《지리언어학의 동향과 활용》, 역락.
- 김수영(2020), 한국어 방언 접촉 양상에 대하여,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 박경래(2012), 국어사전과 방언의 수용,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신우봉(2015),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
- 이기갑(2010),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새국어생활》 20-3, 국립국어원.
- 이상신(2020),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 임석규(2021), 《국어 음운론의 기초》, 역락.
- 임석규(2022), 《국어 성조의 이해》, 역락.
-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사.
- 정승철(2022),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 정인호(2011), 의문형 종결어미의 방언 분화, 《방언학》 14, 한국방언학회.
- 정인호(2022), ‘하-’ 관련 어형들의 방언사,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편(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Chambers, J.K. &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 국립국어원, 2022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 국립국어원, 2023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붙임 1] 지역어 변이 조사를 위한 조사 및 전사 지침

1. 조사 지침

※ 제보자 선정 기준

① 토박이 조건: 연령별 제보자 모두 **3대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어머니는 가급적 동일 지역 출신이어야 하나, 동일 방언권도 허용한다. 예) 영동/영서, 경북/경남

② 학력 조건: ■ 70대(가급적 국민학교 이하) ■ 50대(고등학교 이하) ■ 20대(대학교 이하)
cf. 이주 경험: 군대 경력은 고려하지 않으나, 다른 대방언권에서 대학 다닌 경우는 배제.

cf. 제보자 요건이 충족되면 한 가족(또는 친척) 내에서의 세대별 조사도 가능하다.

※ 조사 시 주의 사항(어휘·표현 / 구술발화 공통)

① 질문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조사항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후 제보자의 여건이나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변용한다. cf. 동질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해당 지방의 ‘어미(-응게 등)’도 활용/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방언형도 메모, 숙지.

②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어휘·표현이나 구술발화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응답이 끝난 후 적당한 휴지를 확보한다.

③ 어휘·표현 조사보다 구술발화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형적 어형 출현 기대). 어미의 형태가 어휘 조사와 다를 경우, 구술발화에서 확인한 어미가 우선된다.

< I > 어휘·표현 조사 지침

1.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1)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책』 또는 그림 파일을 활용한다.

(2) 질문지에 조사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곡용형과 활용형의 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 질문지에 제시된 조사나 어미는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기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조사나 어미로 대체할 수 있다. 예) 받은 → 받을

2. <인지도/사용도>에 대한 조사

(1) <인지도/사용도>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란에 ○이나 √ 표시를 한다.

- ① 사용 -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음
- ② 이해 - 써본 적은 있으나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음
- ③ 인지 -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음
- ④ 무지 - 써본 적도 없는 처음 들어보는 말임

cf. 조사 시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가급적 ‘인지’로 처리한다. 또한 제보자의 첫 번째 응답형은 <인지도/사용도>를 조사하지 않고 ‘① 사용’으로 처리한다.

- (2) 선택식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한 방언형들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며, 응답한 방언형들의 순서에 따라 <인지도/사용도>를 순서대로 조사하여 표시한다. [주의]에 있듯이 제시되지 않은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새로운 방언형을 기록한 후 인지도를 조사한다.
- (3) 해당 세대나 지역에서 전형적인 방언형이 있음에도 표준어형으로만 응답할 경우,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세대나 지역의 방언형에 대한 <인지도/사용도>를 확인한다.

3. 어휘 · 표현 조사의 유의점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① ‘에/애’의 변별 여부(예: 때/때, 세-/새- 등) ② ‘으/어’의 변별 여부 (예: 글/걸, 들어/털어 등)
- ③ ‘위, 외’의 발음 (예: 쥐, 외가 등)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예: 산+이, 강+이 등)

- (2) 자료 정리 시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당 지역의 자연스럽게 전형적인 방언형이 나올 수 있게끔 응답을 유도한다.

걸음마/ㄹ(x) 귀#고리(x) 분#리#수#거(x)

- (3) 어간 재구조화나 여러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기저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저형을 확인해야 한다. 곡용형과 활용형을 능숙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배터, 배튼다 → ‘뻐다/뻐트다’ - 기저형 확인 불가
 겨드랑이, 테기(턱+이) → ‘겨드랑/겨드랑이, 턱/턱/테기’ - 기저형 확인 불가

<II> 구술발화 조사 지침

- 1.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질문문 숙지, 관련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지역 유래, 특산물 등).
- 2. 구술발화 조사의 유의점
 - (1)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자와 제보자 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한다.
 - (2) 제보자의 발화를 가장 많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 (3)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녹음기 사용법

1. 녹음을 미리 해 보고 녹음이 잘되는 방법을 터득해 두도록 한다.

2. 다음 절차에 따라 현지에서 녹음을 진행한다.

(1) 녹음 환경

- ① 양질의 음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조사 시 소음을 최소화한다. 특히 휴대 전화 사용을 통제한다.
- ② 질문과 응답이 겹치지 않도록(조사자가 제보자의 말에 동조하는 “예, 예 맞습니다.” 등을 통제한다.
- ③ 말소리 이외의 기타 소음(매미 소리, 바람 소리 등)이 녹음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 ④ 질문 이후에 약간의 휴지(200ms 이상)를 두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준다.

(2) 녹음 전 준비

- ① 음성 녹음 기자재는 TASCAM DR-05X로 한다.
- ② 녹음기 준비물 확인: 녹음기, 메모리카드, 카드리더기
- ③ 녹음기(후면)에 배터리 삽입: AA 2개
- ④ 녹음기(우측)에 SD카드 삽입
- ⑤ 전원 켜기
- ⑥ 언어 선택(한국어)
- ⑦ 녹음 설정 확인

형식: WAV 16bit 샘플: 44.1K 채널: 스테레오→모노 크기: 2G MIC 전원: 켜기 로우컷: 끄기
--

(3) 녹음기 사용

- ① 전원을 켜 상태에서 REC 버튼을 누른다: 녹음기 용량을 확인한다.
- ②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제보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입력 볼륨을 조절한다(PEAK 표시에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한다).
- ③ ►(PLAY)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실시한다(REC 표시를 확인하며, 녹음을 잠깐 멈추고 싶을 경우에는 ►(Play)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PLAY) 버튼을 누른다).
- ④ 녹음 중인 소리를 점검하려면 이어폰을 녹음기 왼쪽 측면의 헤드폰 단자에 연결한다.
- ⑤ 녹음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HOME) 버튼을 누른다.

2. 전사 지침

지역어 변이 조사 표기 지침

2024. 09. 09.

< I > 어휘 · 표현 기저형 표기 지침

1. ‘엘란’ 작업 지침

The screenshot shows the Elan software interface. The top menu bar includes options like '파일', '편집', '주석', '총합', '단입', '검색', '보기', '출력', '창', '도움말'. Below the menu bar is a toolbar with icons for various functions. The main window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메타데이터 (Metadata):** Contains fields for '조사지역' (Survey Area) and '조사연도' (Survey Year). The '조사지역' field is currently set t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연도: 2021/조사내용: 20101-20201/제보자이름: 박상구/성별: 남/출생연도: 1931'.
- Timeline:** A horizontal timeline at the bottom of the main window, showing a time scale from 00:00:00.000 to 00:00:05.000. A red vertical line indicates the current position in the audio file.
- Table:** A table with columns for '조사지역' (Survey Area), '20101', '20102', and '2010'. The table contains transcription data for various linguistic features.

조사지역	20101	20102	2010
가마	가마	새치	이마
가메	가메	새치	이마
가메	가메	새치	이마
1	2	2	
소음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어휘 · 표현)

- (1) 메타데이터 :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내용, 주제보자이름, 주제보자성별, 주제보자출생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 (2) 방언형(어절)
 - ① 해당 어절(띄어쓰기 단위)을 형태음소 전사한다.
 - ② 친족 명칭 등에서 개인정보(인명)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o’(알파벳 소문자)로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유무’란에 ‘유’라고 적는다.
- (3) 방언형(기저형)
 - ① 해당 방언형(어절)의 어간 기저형을 표기한다.
 - ② 친족 명칭 등에서 개인정보(인명)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o’(알파벳 소문자)로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유무’란에 ‘유’라고 적는다.
- (4) 발음정보 : ‘방언형(기저형)’의 발음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그 발음을 적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① 특정 방언형(기저형)의 발음이 ‘공통 발음정보’(3쪽의 (3)항)와 다른 경우
 예 해당 제보자의 경우에 공통 발음정보에서 비모음화가 실현된다고 했는데 특정 ‘방언형(기저형)’에서 비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음화 비실현’이라 적는다.
 - ② ‘공통 발음정보’의 사항 이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른 경우
 예 ‘막일꾼’이 [망닐꾼]이 아닌 [마길꾼]으로 발음되는 경우 ‘마길꾼’을 적는다.
 - ③ 기타 특기할 만한 경우
 예 전라도 방언의 ‘장닥(수탉)’은 ‘발음정보’란에 ‘장닥/장딱’을 적는다.
- (5) 인지도/사용도 : 해당 번호를 적는다.
- (6) 부가정보
 - ① 발음정보 이외(문법, 의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내용만 입력하고 ‘+, -, ()’ 등의 어떠한 기호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7) 개인정보유무 :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라고 적는다.
- (8) 음성상태 : 음성 상태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적는다.
- (9) 비고 : ‘방언형(기저형)’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 ‘기저형 설정 불가’를 적거나, 기타 기저형 표기와 관련해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다.

2. 표기 원칙

(1) 기저형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용언의 경우는 어미 ‘-다’의 결합형을 적는다.

예) 안저, 안저고 ⇒ 안저다 〓 건저, 건저고 ⇒ 건지다

 몽꺼, 몽끼고 ⇒ 몽기다 〓 쨍허, 쨍흥고 ⇒ 쨍흥다

【붙임】 표준어의 ‘지, 치, 찌’ 발음이 ‘저, 처, 찌’로 대응되는 어간은 소리대로 적는다. ‘저, 처, 찌’로 적지 않음에 유의하도록 한다.

예) 건저, 건저고 ⇒ 건저다 〓 다쳐, 다쳐고 ⇒ 다쳐다 〓 찌서, 찌고 ⇒ 찌다

② 체언을 비롯한 나머지 단어의 경우는 조사를 배제한 단독형을 적는다.

예) 꽃을, 꽃도 ⇒ 꽃 〓 부엌을, 부엌도 ⇒ 부엌 〓 돌궂, 돌궂도 ⇒ 돌궂

 빨리도 ⇒ 빨리

③ 구절이나 문장 표현은 표준어형의 구조에 맞추어 적는다.

(2) 의미와 형태면에서 방언형이 표준어형에 정확히 대응하는 경우에만 ‘방언형(기저형)’을 적는다.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방언형(기저형)’란을 비워 두고 ‘비고’란에 ‘기저형 설정 불가’를 적는다.

①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품사가 다른 경우

예) 표준어형(명사)/방언형(동사): 도배/벽보른다

②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문법 단위 크기가 다른 경우

예) 표준어형(단어)/방언형(구): 길들이다/질을 들이다

(3) 다음의 공통 발음정보는 <제보자 조사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에서 따로 제공한다.

① ‘에/애’의 변별 여부

② ‘으/어’의 변별 여부

③ ‘위, 외’의 발음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⑤ 격음화 여부

【붙임1】 격음화는 장애음으로 끝나는 어근 또는 어간 뒤에 ‘하다’(접미사), ‘한테, 하고’(조사) 등이 결합하는 경우와 합성어에서의 격음화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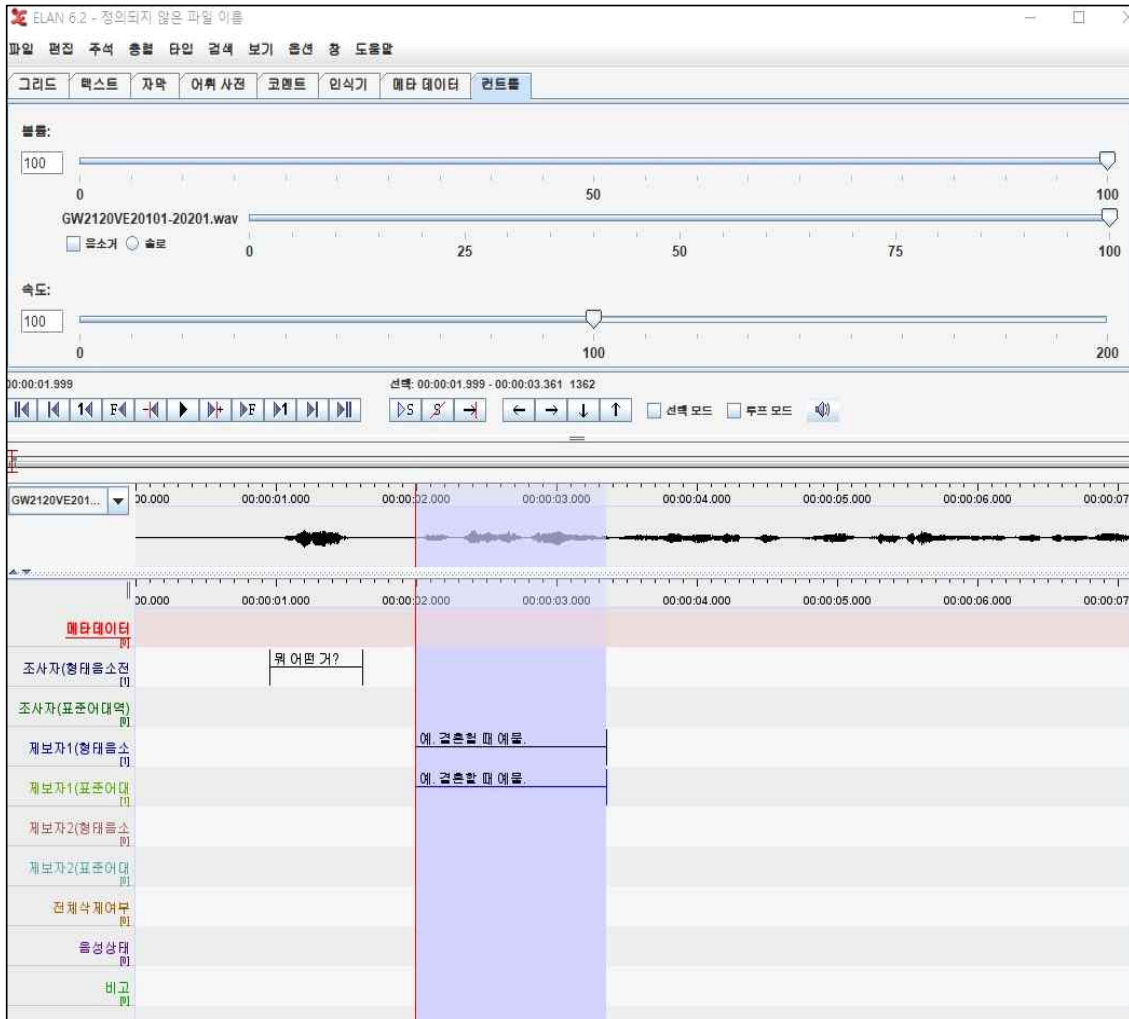
예) 섭섭하다[섭써파다], 닭한테[다칸테], 밥하고[바파고], 꽃향기[꼬탕기]

【붙임2】 위 사항 이외의 발음정보는 각 항목의 ‘발음정보’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4) 표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Ⅱ. 구술발화 표기 지침(2. 표기 원칙)≫에 따른다.

<Ⅱ> 구술발화 표기 지침

1. ‘엘란’ 작업 지침



[그림 17]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구술발화)

- (1) 메타데이터 :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내용, 주제보자 이름, 주제보자 성별, 주제보자 출생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 (2) 조사자·제보자(형태음소전사)
 - ① <2. 표기 원칙>에 따라 조사자와 제보자의 해당 파일을 형태음소전사한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둔다. 다만 빈칸으로 인한 녹음 분량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체를 비식별화해야 하는 경우

㉔ 전체적으로 음성상태가 불량하여 전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붙임1】 ‘형태음소전사’란이 빈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삭제여부’란에 ‘삭제’를 적거나 ‘음성상태’란에 ‘불량’을 적도록 한다.

【붙임2】 개인정보 비식별화 : 개인정보 여부는 전사자의 판단에 따르고 비식별화한 경우에는 음성파일의 해당 부분을 반드시 묵음 처리하도록 한다.

㉕ 전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태음소 전사를 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해당 문장을 제외한 앞뒤 2문장(총 5문장) 사이에 제시된 내용에서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두 정보를 조합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㉖ 부분적인 개인정보는 해당 부분 앞과 뒤에 ‘&’를 붙여서 적는다.

㉗ 인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각각 ‘&인명&’, ‘&상호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비식별화한다.

예) 어제 홍길동이 왔는데 ⇒ 어제 &인명&이 왔는데

㉘ 파일 내에 여러 인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명1&’, ‘&인명2&’, ‘&인명3&’, ‘...’과 같이 구별하며 나머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㉙ 상호명은 부정적인 경우에만 비식별화한다.

㉚ 정치적 비판, 특정 집단(장애인 등) 비하, 특정인 비난 등의 내용도 비식별화한다.

【붙임3】 부분적으로 음성상태가 좋지 않아 전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표준어 대역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㉛ 음절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절수만큼 ‘x’(알파벳 소문자) 표시를 하고 해당 어절의 처음과 끝에 ‘(())’(겹괄호)를 붙인다. 예) ((xxx)해야) 되겠더라

㉜ 음절수조차 헤아리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 (겹괄호)만을 적는다.

【붙임4】 비속어는 해당 단어의 앞과 뒤에 ‘@’를 붙여서 비식별화하고 음성파일의 해당 부분을 반드시 묵음 처리하도록 한다. 예) @개새끼@라고

(3) 조사자·제보자(표준어대역) : 표준어로 직역하여 적는다.

(4) 전체삭제여부 :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형태음소전사’란이 빈칸인 경우에만 ‘삭제’를 적고 그 밖에는 빈칸으로 둔다.

(5) 음성상태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음성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불량’을 적고 그 밖에는 빈칸으로 둔다.

(6) 비고 : 기타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다.

【참고1】 ≪ I. 기저형 표기 지침 ≫과 동일하게 다음의 공통 발음정보는 <제보자 조사표 - 제보

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에서 따로 제공한다.

- ① ‘에／애’의 변별 여부 ② ‘으／어’의 변별 여부
- ③ ‘위, 외’의 발음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 ⑤ 격음화 여부

【참고2】 구술발화 분절은 3문장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적당히 분절하도록 한다.

2. 표기 원칙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ɪ]’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ɪ:ŋgam](영감) ⇒ 이응감

② ‘[jɔ]’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ɔ] ⇒ 이외

③ 상향이중모음 [ʉ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또는 ‘ㅅ아’로, [ʉə]는 ‘ㅍ어’ 또는 ‘기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ʉa](몰류-아) ⇒ 몰류아 || [tʉa:](되-아) ⇒ 되아

[əllʉə](얼류-어) ⇒ 얼류어 || [tʰʉə:](뛰-어) ⇒ 뛰어

【예외】 제주방언의 ‘으(아래아), 으(쌍아래아)’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데 <한글>에서 타이핑한 후에 <엘란>에 복사하도록 한다.

예 불바(뵤아) ⇒ 뵤다 || 으뵤(여뵤) ⇒ 으뵤

④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이에 대한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예 [ã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𪎐) ⇒ 방아 || [solbii](술개) ⇒ 술방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hei] ⇒ 달패이

(2) 표준어에 있는 자음군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고 표준어에 없는 자음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조사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단독형 포함),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는다.

②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뒷자음을 따로 적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뒷자음을 후행음절의 초성자로 적는다.

㉠ 체언의 경우

예 {달ㄱ}(닭): 달ㄱ만(-만), 달ㄱ도(-도), 달키(-이), 달클(-을)

{지붕ㄱ}(지붕): 지붕ㄱ만(-만), 지붕ㄱ도(-도), 지붕기(-이), 지붕글(-을)

㉡ 용언의 경우

예 {뭉ㄱ-}(뭉-): 뭉ㄱ는(-는), 뭉ㄱ고(-고), 뭉껴(-어), 뭉끈(-은)

{앙ㄱ-}(앙-): 앙ㄱ는(-는), 앙ㄱ고(-고), 앙겨(-어), 앙근(-은)

{삼ㄱ-}(삼-): 삼ㄱ는(-는), 삼ㄱ고(-고), 삼마(-아), 삼믄(-은)

{짱ㅎ-}(짱-): 짱ㅎ는(-는), 짱ㅎ고(-고), 짱혀(-어), 짱흔(-은)

{음쓰-}(없-): 음쓰는(-는), 음쓰고(-고), 음써(-어)

【예외】 ‘ㄹ’은 후행하는 어미에 상관 없이 ‘ㄹㅎ/’으로 적는다.

예 {끓-}(건-): 끓/는(-는), 끓/고(-고), 끓/어(-어), 끓/은(-은)

【붙임】 표준어형 ‘끓고’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끈꼬, 끄꼬]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끈고’와 같이 ‘ㄴ’말음 어간으로 적는다.

(3) ‘위, 외’ 표기

① 표준어의 ‘위’에 대응하는 [ü], [wi]는 모두 ‘위’로 전사하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제공한다. 다만 하향이중모음 [uj]는 ‘우이’로 적는다.

예 귀(耳): [kü]/[kwi] ⇒ 귀 || [kuj] ⇒ 구이

② 표준어의 ‘외’에 대응하는 [ö], [we], [wɛ], [wɛ]는 모두 ‘외’로 적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다만 하향이중모음 [oj]는 ‘오이’로 적는다.

예 외가(外家): [öga]/[wega]/[wɛga]/[wɛga] ⇒ 외가 || [ojga] ⇒ 오이가

(4) ‘의’ 표기

①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의’ 또는 ‘이’로 적는다.

예 힌떡 ⇒ 힌떡 || 무니 ⇒ 무니 || [떠운다](떠우다) ⇒ 띄운다

예 [모디](마디) ⇒ 모디 || 아니 ⇒ 아니 || [버틴다](버티다) ⇒ 버틴다

②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발음대로 적는다.

예 [흔떡](힌떡) ⇒ 흔떡

③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하향이중모음 [ij]로 발음될 때는 ‘으이’로 적는다.

예 [kij](게) ⇒ 그이 || [mundij](문둥이) ⇒ 문드이

④ 선행자음이 없는 ‘의’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ijsa](의사) ⇒ 의사 || [isa](의사) ⇒ 이사 || [isa](의사) ⇒ 으사

⑤ 속격조사 ‘의’도 소리대로 적는다.

예 [nai] ⇒ 나의 || [nae] ⇒ 나에 || [nai] ⇒ 나으 || [nai] ⇒ 나이

【예외】 속격조사 ‘의’가 모음 어간 뒤에서 [예]로 소리가 나더라도 ‘예’로 적는다.

예 [우리에](우리의) ⇒ 우리에 || [뇌예](뇌의) ⇒ 뇌에

【붙임】 제(1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속격조사 ‘으’의 원순모음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예 [나무 집](남의 집) ⇒ 남으 집

(5) 기타 이중모음 표기

① 하향이중모음 [aj, əj]는 각각 ‘아이, 어이’로 적는다.

예 [sajni](상-이) ⇒ 사잉이 || [səjni](성-이) ⇒ 서잉이

② 비모음화 후에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ij](<[iɪ])는 ‘이이’가 아닌 ‘이’로 적는다.

예 [mundij](<[mundiɪ], 문둥이) ⇒ 문디 || [hadijman](하-더니만) ⇒ 하디만

【예외】 제(13)항의 【예외2, 3,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이’를 적는다.

예 [hes'ij](했으니) ⇒ 했이이 || [tʃ'idʒijk'ene](졌으니까) ⇒ 짚이이깨네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이 || [mijnda](먹인다) ⇒ 미인다

③ 표준어의 ‘ㄱ’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kjeran](계란) ⇒ 계란 || [keran] ⇒ 게란

④ ‘ㅅ, ㅆ’이 ‘ㄱ, ㅈ’ 앞에서 [ʃ, ʃ']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모음을 ‘ㅐ, ㅓ’로 적는다.

예 [ʃ'eda](세다) ⇒ 쎄다 || [ʃɛ](새) ⇒ 새

(6) 모음의 대립이 상실된 경우(㉠ 경상·전라 방언의 [E](‘에’와 ‘애’의 비변별), ㉡ 경상 방언의 [ɔ](‘으’와 ‘어’의 비변별)는 다음과 같이 적고 발음정보는 ‘공통 발음정보’에서 따로 제공한다.

① 대응 표준어가 있는 방언형은 표준어에 따라서 적는다.

예 [tʰE](輪) ⇒ 테 || [tʰE](胎) ⇒ 태
[kɔ](書) ⇒ 글 || [kɔ](鴛) ⇒ 걸

② 대응 표준어가 ‘여’이거나 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이 ‘어, 오’인 경우에는 ‘에’로, ‘야’이거나 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이 ‘아’인 경우에는 ‘애’로 적는다.

예 [pE](벼) ⇒ 베 || [Emi](어미) ⇒ 에미 || [kEgi](고기) ⇒ 게기
[p'Em](뺨) ⇒ 뺨 || [Ebi](아비) ⇒ 애비

③ 한 단어 안에서는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적는다.

예 [homEɲi](호미) ⇒ 호맹이

④ 대응 표준어가 없고 어원이 불확실한 경우, [E]는 ‘에’로, [ɔ]는 ‘어’로 적는다.

예 [kEgotʰEɲi](자치기) ⇒ 게고텅이

【붙임】 표준어 ‘-으니까’의 ‘까’에 대응하는 모음 [E]는 ‘-으니까, -으니까, -으니까, -으니까, -으니까 네’ 등과 같이 ‘애’로 적는다.

(7) 경음

① 형태소 내부의 경음 표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예 [조끔](조금) ⇒ 조끔 || 깜빡 ⇒ 깜빡
예 [국짱이] ⇒ 국짱이 || [혹찌] ⇒ 혹지

【붙임】 한자어의 경우에 대응 표준어의 평음이 경음으로 발음되면 경음으로 적는다.

예 [지끔](지금) ⇒ 지끔 || [간따나다](간단하다) ⇒ 간판하다

② 체언어간말 유음·비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말또](말-도) ⇒ 말도 || [돈또](돈-도) ⇒ 돈도

(8) 한자어·외래어·숫자

① 한자어에서 ‘ㄴㄴ’이 ‘ㄹㄹ’로 실현되는 경우 ‘ㄹㄴ’으로 적는다.

예 [열련](年年) ⇒ 열년 || [솔려](孫女) ⇒ 솔녀

② 한자어에서 앞음절 종성 ‘ㅇ, ㄹ’이 ‘ㄴ’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분철하여 ‘ㄴ’으로 적는다.

예 [과녕](광양) ⇒ 관양 || [지녁](징역) ⇒ 진역

[다님](담임) ⇒ 단임 || [치님](침입) ⇒ 친입

③ 한자어에서의 ‘ㄴ’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함녕, 전녁, 공농, 탈령] ⇒ 함양, 전역, 공용, 탈영

④ 한자어에서 ‘ㄴ’과 ‘ㄹ’ 뒤의 ‘ㅎ’이 규칙적으로 각각 ‘ㄴ’과 ‘ㄹ’로 바뀌는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ㅎ’을 그대로 표기한다.

예 [은녕, 전나, 올래, 발련] ⇒ 은행, 전하, 올해, 발현

⑤ 외래어는 소리대로 적는다. 특히 [쓰] 발음의 경우에 유의하도록 한다.

예 [원눔](원룸) ⇒ 원눔 || [월룸] ⇒ 월룸

[써비쓰] ⇒ 써비쓰(○)/써비스(×)/서비스(×)

⑥ 아라비아숫자는 적지 않도록 한다.

예 [두개](두 개) ⇒ 두 개(○) || [두개] ⇒ 2개(×)

(9) 움라우트

① 움라우트는 표기에 반영하되 형태소 경계가 있으면 분철한다.

예 [두루매기](두루마기) ⇒ 두루매기 || [에미](어미) ⇒ 에미

[배비](밥-이) ⇒ 뱀이 || [히미](흙-이) ⇒ 흙이

[짜짜기](짜짜이) ⇒ 짹이 || [채미](참외) ⇒ 참이

② 움라우트 이후에 모음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대로 적는다.

예 [비비](<베비, 법-이) ⇒ 뱀이 || [게기](<괴기, 고기) ⇒ 게기

[킹이](<켁이<퀵이, 쿵-이) ⇒ 킹이 || [지긴다](<쥐기다, 죽이다) ⇒ 직인다

③ 기타 변화(조음위치동화, 자음군단순화, ㅎ탈락 등)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닝긴다](넙기다) ⇒ 님긴다 || [앵긴다](웁기다) ⇒ 앹긴다

[농인다](농이다) ⇒ 뇨인다

(10) 구개음화

① 주격조사 ‘이’,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 어간 말음이 ‘ㄷ’으로 실현되면 이는 조사 ‘을, 은’이 결합할 때의 곡용형을 고려하여 ‘ㅌ’ 또는 ‘ㅊ’으로 적는다.

예 [바치, 바틀, 바튼] ⇒ 밧이, 밧을, 밧은

예 [바치, 바츨, 바츨] ⇒ 밧이, 밧을, 밧은

② 표준어의 ‘묻히-어, 닫히-어’ 등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무체, 다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묻헤, 닫헤’와 같이 적는다.

(11) 형태소 경계에서, 전설모음화(으>이)는 표기에 반영하되 원순모음화(으>우)나 조음위치 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전설모음화 : [안진](坐) ⇒ 앓은(×)/앓인(○)

예 원순모음화 : [자분](捕) ⇒ 잡은(○)/잡운(×)

예 조음위치동화 : [창꽃] ⇒ 참꽃(○)/창꽃(×)

【붙임】 형태소 내부에서는 음운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예 전설모음화 : [아지고, 아지난](坐) ⇒ 아지고, 아지만 ★ 어간형태소: 아지-

원순모음화 : [노푸고, 노푸먼](高) ⇒ 노푸고, 노푸먼 ★ 어간형태소: 노푸-

조음위치동화 : [송구고, 송귀](植) ⇒ 송구고, 송귀 ★ 어간형태소: 송구-

(12) 음의 첨가

① 용언 어간말에 ‘ㄴ, ㄷ, ㄹ’가 첨가되어 어간이 바뀔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보끄지](볶-지) ⇒ 보끄지(○)/볶으지(×)

[더푸지](덮-지) ⇒ 더푸지(○)/덮우지(×)/덮으지(×)

[언지고](엷-고) ⇒ 언지고(○)/엷이고(×)/엷으고(×)

② 한 단어 안에서 음이 첨가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하마트면/함마트면](하마터면) ⇒ 하마트면/함마트면

③ 발화의 휴지(pause)로 인해 선행 발화의 끝에 자음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이 자음을 적지 않는다.

예 [명입 핏니다] ⇒ 명이 핏니다

[이리 두르기도 하고] ⇒ 이리 두르기도 하고

(13) 음의 탈락

① 음의 탈락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리를 적지 않는 방향으로 전사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어원의 소리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kəɾu] (거기) ⇒ 거그 || [kuɾunde] ⇒ 그른데

[həs'əɾunde] ⇒ 했어. 근데

② ‘근데, 인제, 금까, ...’ 등이 비음을 선행시키는 [nde, ndʒe, ŋk'a, ...]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으’를 삽입하여 ‘은데, 은제, 응까, ...’ 등으로 적는다.

(14) 운율적 요소(음장, 성조 등)를 표시하는 ‘:’, ‘’ 등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동일 모음의 반복 표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 눈: ⇒ 눈 || 짜::그 ⇒ 짜그

예 마'알' ⇒ 말 || 마'알 ⇒ 말 || 마'알' ⇒ 말 || 마알 ⇒ 말

【붙임】 표준어의 ‘그을음’과 같은 방언형도 ‘글음’과 같이 적는다.

【예외1】 체언어간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말 자음의 탈락으로 인해 동일모음이 생성된 경우에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kusəə](구석-에) ⇒ 구서어 || [iʃ'aa](이쪽-에) ⇒ 이짜아
 [paa](방-에) ⇒ 바아 || [tʰoo](통-에) ⇒ 토오

【예외2】 [비음성]이 탈락한 어미 ‘-으이’(<-으니)류가 ‘入, ㅆ, ㅈ, ㅊ’ 어간말음 뒤에서 ‘-이이’로 전설모음화한 경우에는 ‘이이’로 반복 표기를 한다.

예 [hes'ij](했으니) ⇒ 했이이 || [ʃ'idɕijk'ene](찢으니까) ⇒ 찢이이깨네

【예외3】 합성어에서도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이 || [kanij](가는#이) ⇒ 가나이

【예외4】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의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mi'ida](먹이다) ⇒ 미이다

(15) 어간말 자음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준해서 적는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때의 자음을 반영하여 적는다.

예 [바치, 바츨, 바츨, 받또, 받만](발) ⇒ 밧이, 밧을, 밧은, 밧도, 밧만

[바시, 바슬, 바슨, 받또, 받만](발) ⇒ 밧이, 밧을, 밧은, 밧도, 밧만

【붙임】 특정 조사(주로 ‘에, 으로’ 앞에서)나 어미에 따라 어간 말음이 다르게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음을 그대로 적는다.

예 [바치, 바츨, 바츨, 바테, 바트로] ⇒ 밧이, 밧을, 밧은, 밧에, 밧으로

(16) 체언어간과 조사가 결합하여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① 주격조사

예 [칠기가, 칠기를, 칠기에](칩) ⇒ 칠기가, 칠기를, 칠기에

ㅉ [칠기, 칠글, 칠게] ⇒ 칩이, 칩을, 칩에

② 처격조사

예 [미테가, 미테를, 미테로, 미테](밋) ⇒ 미테가, 미테를, 미테로, 미테

[유제싸람(이웃사람), 유제간(이웃간)] ⇒ 유젯사람, 유제간

ㅉ [미치, 미틀, 미트로, 미테] ⇒ 밋이, 밋을, 밋으로, 밋에

③ 속격조사

예 [달그똥/달기똥](닭똥) ⇒ 달그똥/달기똥 || [달구장태](닭장) ⇒ 달구장태

[처나무덕](처남덕) ⇒ 처나무덕

④ 호격조사

예 [히야가, 히야를](형) ⇒ 히야가, 히야를

(17) 역사적으로 ‘ㅎ’종성과 관련된 체언 어간말에 ‘ㄱ’이 실현되면 해당 곡용형에만 한정하여 어간말

받침으로 ‘ㄱ’을 적는다.

예 [우아래, 우게, 우그로](위) ⇒ 우아래, 옥에, 옥으로

예 [가실, 가실도, 가실게](가을) ⇒ 가실, 가실도, 가실에

예 [돌, 돌도, 돌게](돌) ⇒ 돌, 돌도, 돌에

(18) 불규칙 활용

① 표준어의 ‘ㅅ’불규칙 용언과 동일한 활용을 하는 용언은 표기도 동일하게 한다.

예 [구꼬, 군는다, 구어](炙) ⇒ 굶고, 굶는다, 구어

[바꾸꼬, 바꾼다, 바까도](換) ⇒ 바꿨고, 바꿨는다, 바까도

【붙임】 표준어의 불규칙 용언이 ‘ㅎ’말음 용언으로 바뀐 경우에는 ‘ㅎ’을 적는다.

예 [누코, 눕는다, 누어](臥) ⇒ 눕고, 눕는다, 누어

② 불규칙 활용형에 음절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운율적 요소를 배제하여 축약된 대로 적되 동일모음 반복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균: 고기](←굽-은 고기) ⇒ 균 고기 || [춘: 날](←춥-은 날) ⇒ 춘 날

[구'우라](←굽-어라) ⇒ 구라 || [누'우](←눅-어) ⇒ 누

[췌:](←씻-어) ⇒ 췌 || [저:](←짓-어) ⇒ 저

[무'운](←묵-은) ⇒ 문 || [무'우라](←묵-어라) ⇒ 무라

【예외】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를 드러내 표기하며 동일모음 반복 표기도 허용한다.

예 [미'이다](떡이다) ⇒ 미이다

③ 나머지 불규칙 활용형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는다.

(19) 음절 축약

① ‘ㅎ’말음 용언에 음절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노:면](←놓-으면) ⇒ 노면 || [종:깨](←종-으깨) ⇒ 종깨

[난:](←낳-은) ⇒ 난 || [연:](←영-은) ⇒ 연

[나:라](←놓-아라) ⇒ 나라 || [눠:](←놓-어) ⇒ 뉘

【예외】 ‘ㅎ’말음 어간말 모음이 ‘ㄱ, ㄴ’이고 어미가 ‘-아/어X’인 경우에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나:](←낳-아) ⇒ 낳아 || [여:라](←영-어라) ⇒ 영어라

【붙임】 음절 축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간말에 ‘ㅎ’을 적는다.

예 [조아](←좋-아) ⇒ 좋아 || [고아라](←공-아라) ⇒ 공아라

② 활음화, 활음탈락, 단모음화는 모두 표기에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예 [쏘도](←쭈-어도) ⇒ 쏘도 || [전자:도](←전주-아도) ⇒ 전자도

③ ‘이-어 → 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이’가 아닌 ‘이’로 적는다.

예 [비비서](←비비-어서) ⇒ 비비서 || [돌리](←돌리-어) ⇒ 돌리

- ④ 발화 속도와 관련된 음절 축약의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금](그림) ⇒ 금 || [그랜데](그랬는데) ⇒ 그랜데
[그렘다](그립니다) ⇒ 그렘다

(20) ‘하다’ 관련

- ① 기본형이 ‘X하/허다’인 경우에는 ‘-어/아’가 결합할 때 방언 활용형에 따라 ‘X해, X혀, X하, X히’ 등으로 적는다.

예 ‘만허다’(多):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점잔하다’(점잔-): [점잔하고, 점잔해/점잔하] ⇒ 점잔하고, 점잔해/점잔하

【붙임】 음성적으로 ‘ㅎ’이 탈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는다.

예 [마너고, 마내서/마녀서/마니서] ⇒ 만허고, 만해서/만혀서/만히서

- ② ‘ㅎ’이 기본형의 어간말음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방언 활용형에 따라 ‘Xㅎ아, Xㅎ애, Xㅎ야, Xㅎ여, Xㅎ이’로 적는다.

예 ‘많다’: [만코, 마나/마내/마녀] ⇒ 많고, 많아/많애/많여
‘점잖다’: [점잔코, 점자나/점자내/점자녀] ⇒ 점잔고, 점잔아/점잔애/점잔야

- ③ ‘ㅎ’말음 어간이 활용 패러다임에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아무케나](아무렇게나) ⇒ 아무케나 || [이케/이키](이렇게) ⇒ 이케/이키
[이쿠저쿠](이렇게저렇게) ⇒ 이쿠저쿠

(21) 복합어

- ①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형태 차이가 음운론적(조음위치동화, 단모음화, ㅎ탈락 등)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언형을 표준어형에 준해서 적는다.

예 [자정거](자전거) ⇒ 자전거

예 [성누](석류) ⇒ 석류 || [게론](결혼) ⇒ 결혼

- ② 방언형의 일부 구성요소가 자립적으로 쓰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표준어와 구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표준어형에 준해서 적는다.

예 [송꼬락](손가락) ⇒ 손가락

- ③ 방언형의 원어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준어 원어에 준하여 적는다.

예 [시경](거울, 원어: 석경) ⇒ 석경

- ④ 방언형의 음운변화로 인해 분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비랑빡](벽) ⇒ 비랑빡 || [비찌락](빗자루) ⇒ 비찌락

- ⑤ ‘머시마(사내아이), 가시나(계집아이)’류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머시마/머시매/머시마그, 가시/가시내/가시나그

(22) 복합어가 줄어든 경우에는 준 대로 적되 형태음소적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드로지](들어오-지) ⇒ 들오지 || [일라지](일어나-지) ⇒ 일나지

[끄란찌](끌어안-지) ⇒ 끌안지 || [드란찌](들어앉-지) ⇒ 들앉지

[가조지](가져오-지) ⇒ 갓오지 || [드가지](들어가-지) ⇒ 드가지

【붙임】 색채/모양형용사류의 경우에도 ‘-하다/허다’의 분석이 가능할 때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노러다](노랗다) ⇒ 놀허다 || [빨가다](빨갳다) ⇒ 빨하다

[퍼러너다](파랗다) ⇒ 퍼런허다 || [시커머다](시커멓다) ⇒ 시کم허다

[크다너다] ⇒ 크단허다 || [똥글똥글러다] ⇒ 똥글똥글허다

(23) 사이시옷 표기

①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복합어의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때에 뒷단어의 두음이 해당 방언에서 경음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 [한새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한새깁이

[한새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한새깁이

② 복합어의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이때에도 역시 뒷단어의 두음이 해당 방언에서 경음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 [꼭깁이, 꾹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꼭깁이, 꾹깁이

[목깁이, 뭉깁이](해당방언에서 ‘깁이’가 {깁이}인 경우) ⇒ 목깁이, 뭉깁이

③ 표준어의 구가 복합어로서 기능하면서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영어씨간](영어 시간) ⇒ 영엇시간 || [경주깁](경주 김) ⇒ 경줇김

【붙임】 이때에 표준어 대역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띄어쓰기를 한다.

예 영엇시간 ➡ 영어 시간 || 경줇김 ➡ 경주 김

④ ‘-님’이 결합한 경우의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선행요소가 독립된 단어이면서 [ㄴ]이 덧날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부몬님, 장몬님] ⇒ 부뭇님, 장뭇님

【예외】 선행요소의 말음이 ‘ㄹ’일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의거하여 ‘ㄷ’을 적는다.

예 [아든님] ⇒ 아든님

㉡ 선행요소가 독립된 단어가 아니면서 [ㄴ]이 덧날 때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어먼님, 아번님, 아주번님] ⇒ 어먼님, 아번님, 아주번님

【붙임】 [ㄴ]이 덧나지 않을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예 [부모님,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 부모님,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24) 문장 부호 사용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고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의 표기를 따른다. 그리고 형태음소 전사와 표준어 대역의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는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 ‘-을’의 ‘ㄹ’이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쓰되 뒷말과 붙여 쓴다.

예 [하꺼인디](할 것인데) ⇒ 하꺼인디 || [하겔](할 겔) ⇒ 하겔

【붙임】 발화가 갑자기 끊어진 경우에는 쉼표(.)를 적고 표준어 대역도 동일하게 한다.

(25) 담화 표지

① 담화 표지는 소리대로 쓰되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붙임】 빠른 발화에서 담화표지가 앞 요소와 결합하여 줄어드는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예 [그리곤제, 그래선제, 그래돈제] ⇒ 그리곤제, 그래선제, 그래돈제

② 서남방언의 ‘잉’, 제주방언의 ‘양’은 앞말에 붙여 쓴다.

③ 표준어의 보조사 ‘요’에 대응하는 방언형 ‘유, 예, 야, 이라우’ 등은 같은 보조사로 취급하여 앞말에 붙여 쓴다.

④ ‘헛기침, 웃음소리’ 등은 소리를 전사하지 말고 ‘(헛기침), (웃음)’ 등으로 적는다.

(26) 이 지침 이외의 사항은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적는다.

(27) 구술발화 전사 시 방언별로 필요한 유의 사항은 <부록>에 신는다.

(28) 표준어 대역

① 방언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준어형을 사용하여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응 표준어가 복수의 유의어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유의어들의 사용빈도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형태가 유사한 어형을 택한다.

예 어지께 ➡ 어저께(○)/어제(×) || 인자 ➡ 인제(○)/이제(×)

㉡ 방언형에 직접 대응하는 표준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표준어로 대체한다.

㉠ 방언형과 뜻이 약간 다른 경우

예 퍼뜩 ➡ 빨리

㉡ <표준국어대사전>에 대응 표준어의 용례가 없거나 인용례만 있는 경우

예 석경/식경 ➡ 거울(○)/석경(×) || 대간하다 ➡ 고단하다(○)/대근하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대응 표준어의 뜻풀이가 첫 번째가 아닌 경우

예 욕보다 ➡ 수고하다 || 심간 ➡ 마음

대근하다(→고단하다), 석경(→겨울), 세한(→겨울), 시방(→지금), 심간(→마음),
 언다(→어디에다), 욱보다(→수고하다), 증하다(→징그럽다), 퍼뜩(→빨리)

㉞ 대응 표준어들에 의미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표준어형을 택하도록 한다.

예) 키가 작다. ➡ 키가 작다. ㉟ 돈이 짜다 ➡ 돈이 적다.

㉟ ‘사다’와 ‘팔다’가 방언에 따라서 반대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購買’는 ‘사다’로, ‘販賣’는 ‘팔다’로 대역하도록 한다. 물론 ‘팔다’는 ‘곡식을 사다’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다’로 대역한다.

예) 쌀을 팔아 오셨다. ➡ 쌀을 산 오셨다.

③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㉟ 표준어로의 뜻풀이가 한두 어절로 가능한 경우에는 문맥에 맞게 풀이하여 적는다.

예) 군지를 타면 호습제. ➡ 그네를 타면 신나고 재미있지.

㊱ 표준어로의 뜻풀이가 난해한 경우에는 작은따옴표 안에 방언형을 적는다.

예) 또 끼테 나가냐? ➡ 또 ‘끼테’ 나가니?

④ 다음 표준어는 대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거시기, 거식하다/거시기하다, 그림/고림(그러면), 근데(그런데),
 글로/골로(그리로), 기다(그것이다), 노느다(나누다), 담(다음), 따습다(따뜻하다),
 땀(때문), 뚜드리다/뚜들기다(두드리다), 맥없이(괜히), 머(뒤편), 무장(갈수록),
 문대다(문지르다), 식겁하다, 썩다(보조동사), 씨불거리다/씨불대다/씨불이다,
 아따(감탄사), 오지다(흐뭇하다), 이럼/요림(이러면), 이쁘다(예쁘다),
 일로/올로(이리로), 재밌다(재미있다), 저림/조림(저러면), 절로/줄로(저리로),
 쥘(제일), 진작(진즉), 쪼끔/조끔/쪼금(조금), 후딱(빨리), 흘치다(흘다)

【붙임】 위 단어가 포함된 복합어도 동일한 표기를 한다.

⑤ 어미의 생략으로 인해 번역문이 어색한 경우에는 () 안에 적절한 어미를 보충할 수 있다. 기타의 생략 요소들은 매우 어색한 경우에만 보충해 주도록 한다.

㉟ 어미

예) 널쩍 겁. ➡ 떨어진 겁(니다).

㊱ 기타(조사)

예) 나 벌써 잊어 뻘렸는데 ➡ 나(는) 벌써 잊어 버렸는데

⑥ ‘-서’와 ‘가지고’의 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㉟ ‘가지고, 가지구, 자주고, 가이고, 자주, 가이’ 등의 방언형은 ‘가지고’로, ‘갖고, 갖구’는 ‘갖고’로

대역한다. 단, 경상방언의 ‘-어/아가’는 ‘-어/아서’로 대역한다.

예) 무 가주고 ➡ 먹어 가지고

예) 잘 해가 ➡ 잘 해서

㉠ ‘-서 가지고’처럼 ‘-서’와 ‘가지고’가 중복 사용된 경우에는 ‘-서’만 사용하여 대역한다.

예) 잡아서 가지구 ➡ 잡아서

㉡ 서술격조사 뒤의 ‘가지고’는 ‘-서’로 대역한다.

예) 외향적이어 가지고 ➡ 외향적이어서 || 느낌이라 가지고 ➡ 느낌이라서

㉢ ‘-서’와 ‘가지고’에 선행하여 선어말어미 ‘-었/았-, -겠-’이 쓰인 경우에, ‘-었/았-’은 생략하고 ‘-겠-’은 ‘-을 것 같-’으로 대역한다.

예) 많았어서 ➡ 많아서 || 처음이었어 가지고 ➡ 처음이어서

먹겠어서 ➡ 먹을 것 같아서

【붙임】 방언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록>에 실는다.

<부록1> 강원도 방언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ɪ]’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ɪ:ŋgam](영감) ⇒ 이응감

②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또는 ‘ㅅ아’로, [ɥə]는 ‘ㅍ어’ 또는 ‘ㅅ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ɥa](몰류-아) ⇒ 몰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lɥə](얼류-어) ⇒ 얼류어 || [t'ɥə:](뛰-어) ⇒ 뛰어

③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ida](不) ⇒ 아니다 || [mãi](多) ⇒ 많이

[pãã](白) ⇒ 방아 || [solbɪi](솔개) ⇒ 솔방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hei] ⇒ 달패이

2. 어간말 모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하여 ‘웨’ 또는 ‘웨’로 실현되면 소리대로 적는다.

예 [이페](입히-어) ⇒ 입헤 || [마케](막히-어) ⇒ 막헤 || [겔레](걸리-어) ⇒ 겔레

【붙임】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웨’로 적는다.

예 [무체](묻히-어) ⇒ 묻헤 || [다체](단히-어) ⇒ 단헤

3. 곡용에서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격음화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말또] ⇒ 말도 || [여자들또] ⇒ 여자들도 || [돈또] ⇒ 돈도

예 [여자들토](여자들-도) ⇒ 여자들토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하나또](하나도) ⇒ 하나또 || [하나토] ⇒ 하나토

4. 조사와 어미

① 표준어의 조사 ‘한테’에 대응하는 방언형 [인테, 인테]는 소리대로 적는다.

②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대응하는 방언형 [배끼, 배께]는 각각 ‘뻘이, 뻘에’와 같이 분철하여 적는

다.

- ③ 표준어의 어미 ‘-읍/습니다, -읍/습니까’에 대응하는 방언형 [-읍/습미다, -읍/습미까]는 각각 ‘-읍/습미다, -읍/습미까’로 적는다.

◆ 표준어 대역

1. 조사

① 중첩된 조사

예 이 밥으는 참 맛있어. ➡ 이 밥은 참 맛있어.

예 밥으르 많이 먹어요. ➡ 밥을 많이 먹어요.

2. 어미

① 의문형 어미 ‘-안/언’는 ‘-았/었니’로 번역한다.

예 강냉이를 탄? ➡ 강냉이를 땀니?

<부록2> 경상도 방언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따라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da](不) ⇒ 아니다 || [mã](多) ⇒ 많이

[pãa](臼) ⇒ 방아 || [solbĩ](술개) ⇒ 술방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hei] ⇒ 달패이

2. ‘으:어’ 비대립 관련

① ‘으:어’의 대립이 비변별적인 지역의 조사 ‘언/넌(보조사), 얼/털(목적격 조사)’의 모음은 표준어형인 ‘은/는, 을/를’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언/넌, 얼/털’로 적는다. 이는 ‘으:어’가 대립하는 지역에서도 ‘언/넌, 얼/털’의 발음이 실현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예 [요새‘애넌](요새-는) ⇒ 요새넌

【붙임】 나머지 ‘으’모음 조사(‘으로’, ‘을래’)는 ‘으’로 적는다.

예 [사너로](산-으로) ⇒ 산으로

② 경상도 방언은 ‘으:어’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6)항에 의거하여 전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그으넌](그거-는) ⇒ 그어넌 || [미드득] ⇒ 미더덕

3. 대부분의 화자들에게 ‘에:애’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6)항에 의거하여 전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베‘에게] ⇒ 베개 || [간테요글쎄] ⇒ 간대요 글쎄

4. 형태소 경계에서, 유음과 비음 뒤의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길‘또](길-도) ⇒ 길도 || [산‘또](산-도) ⇒ 산도

예 [불‘땡’기고] ⇒ 불땡기고 || [불‘쌀’레고] ⇒ 불살레고

【예외】 한 단어로 굳어진 화석형은 경음화를 반영하여 적는다.

예 [한‘나또](하나도) ⇒ 한나또

5. 다음과 같은 ‘ㄴ’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① 한자어에서 선행 한자가 공명음으로 끝나고 후행 한자가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ㄴ’첨가가 일어나면 이 ‘ㄴ(ㄷ)’은 적지 아니한다.

예 [함냥, 전녁, 공농, 탈령] ⇒ 함양, 전역, 공용, 탈영

- ② 보조사 ‘요’가 결합할 때 ‘ㄴ’첨가가 일어날 때에도 ‘ㄴ(ㄷ)’은 적지 아니한다.

예 [밤뇨, 물료] ⇒ 밥요, 물요

6. 운율적 요소(음장, 성조 등)를 표시하는 ‘:’, ‘’ 등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동일 모음의 반복 표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 눈: ⇒ 눈 || 마알’ ⇒ 말

【예외1】 체언어간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말 자음의 탈락으로 인해 동일모음이 생성된 경우에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kusəə](구석-에) ⇒ 구서어 || [paal](방-에) ⇒ 바아

【예외2】 [비음성]이 탈락한 어미 ‘-으이’(<-으니)류가 ‘入, ㅅ, ㅈ, ㅊ’ 어간말음 뒤에서 ‘-이이’로 전설모음화한 경우에는 ‘이이’로 반복 표기를 한다.

예 [hes’ij](했으니) ⇒ 했이이 || [tʃ’idɕijk’ene](찢으니까) ⇒ 찢이이께네

【예외3】 합성어에서도 [비음성]이 탈락하여 형성된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tarij](<[tarɪ], 다른#이) ⇒ 다리이 || [kanij](가는#이) ⇒ 가나이

【예외4】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의 ‘이이’는 반복 표기를 한다.

예 [미’이다](먹이다) ⇒ 미이다

7. 용언 어간 말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해서 ‘에’ 또는 ‘이’가 될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후자의 경우 ‘이이’로 적지 않음에 유의한다.

예 [비베](비비-어) ⇒ 비베 || [비비](비비-어) ⇒ 비비

8. 조사

- ① 속격조사 ‘에, 이, 으’, 처격조사 ‘에, 이’는 선행요소와 분철한다.

예 [나’메](남-의) ⇒ 남에 || [나’무](남-의) ⇒ 남으

예 [지’비](집-에) ⇒ 집이

- ②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방언형 [빼께/베께, 빼끼/베끼]는 각각 ‘뺨에/뺨에, 뺨이/뺨이’와 같이 분철해 적는다.

예 [이거빼’께](이거-밖에) ⇒ 이거뺨에

9. 어미

- ① 표준어의 ‘-으니까’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응께, -으이께네, -으이까네, -으이꺼네’ 등으로 전사한다.
- ② ‘-이’가 첨가된 종결어미는 ‘-는대이, -어/아래이, -재이’ 등과 같이 표기한다.
- ③ 의문형 어미는 ‘-능/응교’는 소리대로 적고 ‘-는/은교’로 적지 아니한다.
【붙임1】 [-능/응가, -능/응고, -능/응강, -능/응공] 등은 각각 ‘-는/은가, -는/은고, -는/은강, -는/은공’으로 적는다.
【붙임2】 표준어의 ‘-는/은가 보-’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는/은갑-’(붙여쓰기)로 적는다.
- ④ [-음/습미다, -음/습미까]는 각각 ‘-읍/습미다, -읍/습미까’로 적는다.

10. 인용문

- ① 표준어의 ‘-고 하다’류에 해당하는 ‘카다/커다/쿠다’는 소리대로 적되 띄어 쓴다.
예 [간다칸다] ⇒ 간다 칸다 || [가냐칸다] ⇒ 가냐 칸다
 [가라칸다] ⇒ 가라 칸다 || [가자간다] ⇒ 가자 칸다
- ② 표준어의 ‘그러다’에 해당하는 [그러카다, 그러쿠다, 글카다, 글쿠다, 그카다, 그쿠다] 등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러다, 저러다’에 해당하는 방언형의 표기도 동일하다.

11. 표준어의 보조용언 ‘가지고’에 해당하는 방언형 중에 ‘가’는 앞말에 붙여 쓰고 ‘가주, 가이, 가주고’ 등은 띄어 쓴다.

예 딸이 없어가
 딸을 원해 가주, 그래 가이

◆ 표준어 대역

1. 어휘

- ① 거숙하다 ➡ 거식하다 || 거시기하다 ➡ 거시기하다
- ② 머식하다 ➡ 무엇하다
- ③ 머시기 ➡ 무엇(사물), 아무개(사람)
예 거기 머시기더라? ➡ 그게 무엇이더라? || 머‘시기도 오고 ➡ 아무개도 오고
- ④ 머라그다/머라글다/머라카다/머라쿠다 ➡ 나무라다
예 머라근다 ➡ 나무란다 || 머라글어라/머라캐라 ➡ 나무라라
- ⑤ 인용문의 ‘카다/커다/쿠다 ➡ -고 그러다
예 가라 칸다. ➡ 가라고 그런다.

2. 조사

- ① 경북 서부 방언의 보조사 ‘-어/아여’는 해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예) 어서 찾아여. ➡ 어서 찾아.

3. 어미

- ① 동사의 관형사형 ‘-었/았는-’은 ‘-은’으로 번역한다.

예) 묵었는 놈이 ➡ 먹은 놈이

- ② 해라체 의문형 어미 ‘-나, -노, -가, -고’는 모두 ‘-니’ 또는 ‘-냐’로 번역한다.

예) 핵고 가나? ➡ 학교 가니? || 어테 가노? ➡ 어디 가니?

니 책이가? ➡ 네 책이니? || 누 책이고? ➡ 뉘 책이니?

【붙임】 회상의 어미 ‘-다, -도’는 모두 ‘-더냐’로 번역한다.

예) 어디 가도? ➡ 어디 가더냐?

- ③ ‘-(시)니껴, -(시)능교, -이소’ 등은 합쇼체로 번역한다.

예) 가시니껴 ➡ 가십니까 || 가능교 ➡ 갑니까 || 가이소 ➡ 가십시오

- ④ ‘-이’가 첨가된 종결어미 ‘-는대이, -어/아래이, -재이’ 등은 ‘-는다, -어/아라, -자’ 등으로 번역한다.

예) 묵는대이 ➡ 먹는다 || 살어래이 ➡ 살아라 || 가재이 ➡ 가자

- ⑤ ‘-이라/이래, -이라요/이래요’는 각각 ‘-이야, -이어요’로 번역한다.

예) 내 집이래. ➡ 내 집이야. || 갔가 이기라. ➡ 갔다 이거야.

했는 모양이래요. ➡ 한 모양이에요. || 아이래요. ➡ 아니어요.

4. 통사

- ① 확인의문문 ‘-다 아니-’는 ‘-잖-’으로 번역한다.

예) 왔다 아입니껴? ➡ 왔잖습니까?

- ② 의존명사 ‘것’이 생략된 구문은 ‘것’을 살려서 번역한다.

예) 비가 왔는 걸다. ➡ 비가 온 것 같다.

비가 올 걸다. ➡ 비가 올 것 같다.

- ③ ‘-지 싶-’ 구문은 ‘-은/을 것 같-’으로 번역한다.

예) 했지 싶습니더 ➡ 한 것 같습니다.

- ④ 표준어의 보조용언 ‘가지고’에 해당하는 방언형 중에서 ‘가’는 ‘서’로 번역하고 ‘가주, 가이, 가주 고’ 등은 ‘가지고’로 번역한다.

예) 딸이 없어가 ➡ 딸이 없어서

딸을 원해 가주 ➡ 딸을 원해 가지고 || 그래 가이 ➡ 그래 가지고

<부록3> 전라도 방언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ö]’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ö] ⇒ 이외

② 상향이중모음 [ɥ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또는 ‘ㅅ아’로, [ɥə]는 ‘ㅍ어’ 또는 ‘ㅅ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ɥa](몰류-아) ⇒ 몰류아 || [tɥa:](되-아) ⇒ 되아

[əlɥə](얼류-어) ⇒ 얼류어 || [tʰɥə:](뛰-어) ⇒ 뛰어

③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예 [ãda](不) ⇒ 아니다 || [mã](多) ⇒ 많이

[pãã](臼) ⇒ 방아 || [solbĩ](솔개) ⇒ 솔빙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ʰei] ⇒ 달패이

2. ‘니’ 발음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는 경우에, [니아]로 소리가 나더라도 ‘니아’로 적는다.

예 [되아](되-아) ⇒ 되아 || [쇠야서](쇠-아서) ⇒ 쇠아서

【붙임1】 어간 발음 ‘니’가 ‘ㄱ/ㄴ’로 변화한 경우도 동일하다.

예 [테야](테-아) ⇒ 테아 || [새야서](새-아서) ⇒ 새아서

【붙임2】 형태소 내부에서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되아지] ⇒ 되아지 || [되야지] ⇒ 되야지

3. 용언 어간 발음 ‘이’가 어미의 ‘어’와 결합해서 ‘에’ 또는 ‘이’가 될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비베서](비비-어서) ⇒ 비베서 || [비비서] ⇒ 비비서

4. 표준어의 인용문 ‘-고 하다’류에 해당하는 ‘-가/거다’는 ‘-ㄱ 하/허다’와 같이 적는다. 이때 띄어 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간다간다] ⇒ 간닥 한다 || [가냐간다] ⇒ 가냔 한다

[가라건다] ⇒ 가락 한다 || [가자건다] ⇒ 가작 한다

5. 색채/모양형용사류는 ‘-하다/허다’를 분석하여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노려다](노랗다) ⇒ 놀허다 || [빨가다](빨갳다) ⇒ 빨허다
[밀거다](말갳다) ⇒ 밍허다 || [똥그라다](똥그랗다) ⇒ 똥글허다
[크다너다] ⇒ 크단허다 || [똥글똥그러다] ⇒ 똥글똥글허다

6. 기원적인 관형어어미 ‘-을’의 ‘ㄹ’이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뒷말과 붙여 쓴다.

예 하꺼인디(할 것인데), 가껏이여(갈 거야)

7. 표준어의 ‘-잖아’에 대응하는 전라방언형은 ‘-잔해’로 적는다.

예 [가꼬가자내](갓고 가잖아) ⇒ 갓고 가잔해
[잘 하자내](잘 하잖아) ⇒ 잘 하잔해

8. 표준어의 ‘-이야, -이어요’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이여, -이여라우’로 적는다. 이때 후자는 ‘-이여라우’가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지비여] ⇒ 집이여 || [지비여라우] ⇒ 집이여라우

9. 다음의 경음은 소리대로 적는다.

① 표준어의 ‘놓아두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나뚜다]는 소리대로 ‘나뚜다’와 같이 적고 ‘낫두다’로 적지 아니한다.

예 [카만 나뚜](가만히 놔둬) ⇒ 카만 나뚜(○)/카만 낫뒤(×)

② 표준어의 보조용언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뿔다/뿌리다]는 소리대로 ‘뿔다/뿌리다’와 같이 적고 ‘ㅅ 불다/부리다’로 적지 아니한다.

예 [해뿔고](해 버리고) ⇒ 해 뿔고(○)/햇 불고(×)

10. 표준어의 ‘-나/는가 보다, -은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는갑다/는가비다/는개비다, -은갑다/은가비다/은개비다’와 같이 붙여 쓴다.

예 비가 왔는개며.(왔나 봐) || 더운갑다.(더운가 보다)

【붙임】 표준어의 ‘-나/는가 봐, -은가 봐’에 해당하는 방언형 [-능갑써, -응갑써]는 각각 ‘-는값어, -은값어’로 적는다.

예 비가 왔는값어.(왔나 봐)

11. 담화표지 ‘잉’은 앞말에 붙여 쓴다.

예 내가잉 널잉 가께잉.

◆ 표준어 대역

1. 어휘

① 거식하다 ➡ 거식하다 || 거시기하다 ➡ 거시기하다

② 머식하다/머석하다 ➡ 무엇하다

③ 머시기/머서기 ➡ 무엇(사물), 아무개(사람)

예 고저이 머시기더라? ➡ 고게 무엇이더라? || 머시기도 오고 ➡ 아무개도 오고

④ 머락하다/머이락하다/멋이락하다 ➡ 나무라다

⑤ 인용문의 ‘-ㄱ 하다 ➡ -고 그러다

예 가락 한다. ➡ 가라고 그린다.

⑥ 겁나다, 허벌나다 ➡ 아주 많다

【붙임】 ‘겁나게, 허벌나게’는 동사 앞에서는 ‘아주 많이’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 앞에서는 ‘아주’로 번역한다.

예 사람들이 겁나게 왔어라우. ➡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힘이 허벌나게 세라우. ➡ 힘이 아주 세요.

⑦ 차말로 ➡ 참말로

⑧ 다닐러/다닐로/다일러/다일로 ➡ 그러게

⑨ 데차/데치나 ➡ 과연

⑩ 담화표지 ‘잉’은 ‘응’으로 번역하고 띄어 쓴다.

예 내가잉 널잉 가게잉. ➡ 내가 응 널 응 갈게 응.

⑪ 사람 이외를 가리키는 ‘놈’은 ‘것’으로 번역한다.

예 그놈을 사 갖고 ➡ 그것을 사 갖고

2. 조사 ‘라우’는 ‘요’로 번역하고 ‘-다우’은 ‘-대요’로 번역한다.

예 왔어라우. ➡ 왔어요.

집이 간다우? ➡ 집에 간대요?

3. 어미

① 선어말어미 ‘-겨/게-’는 ‘-(으)시-’로 번역한다.

예 풀쎌 와겼어라. ➡ 벌써 오셨어요.

② 표준어의 관형사형어미 ‘-는’(현재)과 ‘-은’(과거)은 전라도 방언에서 형태상의 대립이 상실되어 ‘-은’으로만 쓰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번역을 달리해야 한다.

예 시방 고기 잡은 사람 ➡ 지금 고기 잡은 사람

어지게 고기 잡은 사람 ➡ 어저께 고기 잡은 사람

③ 평서형 또는 의문형 어미 ‘-으요’는 ‘-어/아요’로 번역한다.

예) 시방 머 잡으요? ➡ 지금 뭐 잡아요?

④ 평서형 어미 ‘-시’는, 체언에서는 ‘-일세’로, 용언에서는 ‘-네’로 번역한다.

예) 여그가 내 집이시. ➡ 여기가 내 집일세.

차말로 깨끗하시. ➡ 참말로 깨끗하네.

⑤ 어미 ‘-가니/간디’는, 연결어미일 때는 ‘-관테’로, 종결어미일 때는 ‘-겠어’로 번역한다.

예) 니가 멋이간디 까부냐? ➡ 네가 뭐관테 까부느냐?

누가 그것을 알았가니? ➡ 누가 그것을 알았겠어?

4. ‘그러다/그라다’는 ‘그렇다’(형용사)와 ‘그러다’(동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므로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

예) 그라다가 꼭 다칠 것이여. ➡ 그러다가 꼭 다칠 것이야.

그것이사 그라제만 맘대로 될랍디여? ➡ 그것이야 그렇지만 맘대로 되겠습니까?

5. 부정 표현

① ‘-든, -들, -도’는 각각 ‘-지는, 지를, -지도’로 번역한다.

예) 가들 말어. ➡ 가지를 말아. || 가도 안해. ➡ 가지도 않아.

② ‘있도 없다, 알도 모르다’는 각각 ‘있지도 않다, 알지도 못하다’로 번역한다.

6. ‘안’이 쓰인 확인의문문은 ‘-잖-’으로 번역한다.

예) 잘 가요, 안? ➡ 잘 가잖아요?

빨리 오락 안 허냐? ➡ 빨리 오라잖니?

【붙임】 ‘안’이 생략된 확인의문문도 있을 수 있으니 의문문의 의미가 ‘질문’인지, ‘확인’인지 구분하여(억양의 차이) 번역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집을 다 짓었습디여?(↗) ➡ 집을 다 지었습디까? (질문)

집을 다 짓었습디여?(↘) ➡ 집을 다 지었잖습디까? (확인)

7. 보조 용언

① 표준어의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의 쓰임이 매우 활발하여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뒤에 쓰이기도 하는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표준어로 번역하지 않도록 한다.

예) 너무 좋아 불어. ➡ 너무 좋아.

② 보조 동사 ‘쓰다’는 ‘되다’로 번역한다.

예) 집이 꼭 가야 써. ➡ 집에 꼭 가야 돼.

8. ‘-는갑다/는가비다/는가비다, -은갑다/은가비다/은가비다’는 ‘-나 보다’(동사) 또는 ‘-은가 보다’(형용사)로 번역한다.

예 밥 다 묵었는갑다 ➡ 밥 다 먹었나 보다.
작은개벼. ➡ 작은가 봐.

9. ‘애기’가 ‘아기’뿐만 아니라 ‘아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번역한다.

예 우리 애기들을 봉개 ➡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10. 연결어미 ‘-는가/은가’는 ‘-는지/은지’로 번역한다.

예 비가 올라는가 ➡ 비가 오려는지

11. ‘-잔해’는 ‘-는 게 아니라’로 번역한다.

예 우리만 그러잔해 다 글더라고 ➡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

<부록4> 제주도 방언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으(아래아), 으(쌍아래아)’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데 <한글>에서 타이핑한 후에 <엘란>에 복사하도록 한다.

예 불바(뵤아) ⇒ 뵤다 || 으뵤(여뵤) ⇒ 으뵤

2. 자음 뒤의 ‘의’ 표기는 <구술발화 지침(2. 표기 원칙)> 제(4)항 ①에만 해당하며 표준어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면 자음 뒤에 ‘의’는 적지 않는다.

예 [이디서](여기서) ⇒ 이디서(○)/이디서(×)

3. 전설모음화(으>이)는 형태소 경계 여부에 관계없이 표기에 반영한다.

예 형태소 경계 : [알꼬, 아지난](坐) ⇒ 앓고, 앓이난(○)/앓으난(×)

형태소 내부 : [아지고, 아지난](坐) ⇒ 아지고, 아지난

4. 합성어 및 조사 결합형에서의 격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여 적는다.

예 처가칩(처갓집) ⇒ 처가칩(○), 처갓칩(×)

예 하나토(하나도) ⇒ 하나토

5. 특정 단어의 표기

- ① ‘흐다/허다’의 모음어미 결합형은 ‘헤’로 적는다.

예 흐고↪허고, 헨(해서)

- ② 아니헛(허)다↪아녀다↪않다

예 [아녕](아니헛-영) ⇒ 아니헛(○), 앓헛(×)

예 [아넵네다](아녀-ㅂ네다) ⇒ 아넵네다(○), 아니헛네다(○), 아니홉네다(×)

예 [아녕](안헛-영) ⇒ 안헛(○), 앓헛(×)

- ③ 잇다↪이시다(있다)

예 [일꼬, 이서, 이시난] ⇒ 잇고, 잇어, 잇이난

[이시고, 이셔, 이시난] ⇒ 이시고, 이셔, 이시난

- ④ ‘ㅎ’말음 용언

예 [죵네다](죵습니다) ⇒ 죵네다 || [노면](놓-으면) ⇒ 노면

6. 동일한 구성(특히 ‘이-여’ 연쇄)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 경ㄴ기영ㄴ기영(그렇게) || 가켜ㄴ가키어ㄴ가키여(가겠어)

【예외】 모음 어미(‘-어X, -엔’)가 연결된 경우에는 활음 j의 삽입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기-영(기-어서) ⇒ 경(○), 기영(○), 기영(×)

기-엇어(기-었어) ⇒ 겻어(○), 기엇어(○), 기엇어(×)

가키-엔(가겠-다고) ⇒ 가켄(○), 가키엔(○), 가키엔(×)

7. 조사

① 처격조사 ‘디’는 ‘되’로 적지 않고 ‘디’로 적는다.

② 속격조사 ‘의’는 선행요소와 분절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으’의 원순모음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예 [노미](남-의) ⇒ 놈이 || [노무] ⇒ 놈으

③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뻘이, 뻘에’ 등으로 분절해 적는다.

8. 어미

① 특정 활용형의 분절과 연결

예 오란 ⇒ 올안(오-아) || [노프고, 노프니] ⇒ 노프고, 노프니

② -암ㅅ/엄ㅅ- :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는 ‘ㅅ’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고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으로 적는다. 그리고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암ㅅ/엄ㅅ-’와 같이 적는다.

예 잡암ㅅ(잡-암ㅅ-어)

잡암찌(잡-암ㅅ-저), 잡암쭈(-주), 잡암꼬(-고), 잡암쭈다/잡암쭈과(-수-)

잡암시냐(잡-암ㅅ-으냐)

③ -앗/엇- : 형태음소 표기를 하되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ㅅ/어ㅅ-’와 같이 적는다.

예 잡앗어(잡-앗-어) cf. 헤봔어(헤-보-앗-어)

잡앗저(잡-앗-저), 잡앗쭈, 잡앗고, 잡앗수다/잡앗수과

잡아시냐(잡-앗-으냐)

④ -엔 : 자음 어간 뒤에서는 ‘-이엔’으로, 모음 어간 뒤에서는 ‘-엔’으로 적는다.

예 책이엔(冊), 소엔(牛)

⑤ -수/우- :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수-’,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우-’로 적는다.

예 곱수다(곱-수-다), 예쁘우짱(예쁘-우-짱)

【예외】 ‘-우-’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연결될 때는 ‘-으우-’로 적는다.

예 잇잖우짜(×), 잇잖으우짜(잇지-않-으우-짜)

【붙임】 모음 뒤의 ‘-우-’가 생략되었을 때는 생략된 대로 적는다.

예 뒤편

- ⑥ -(으)크- : 어미 ‘-여’나 ‘-엔’ 앞에서는 ‘-(으)키-’, 선어말어미 ‘-우-’ 앞에서는 ‘-(으)ㄱ-’으로 적는다.

예 가키여↗가키어↗가켜(가겠다) || 가키엔↗가켄↗가켄(가겠다고) cf. 가키엔(×)
가쿠다(가겠습니다)

- ⑦ -안/언, -앙/영 : ‘ㅎ-’와 결합할 때만 ‘-연, -영’으로 적는다.

예 되언(○), 되연(×) || ㅎ연↗헨

◆ 표준어 대역

1. 어휘

- ① ‘이제’는 문맥에 따라 ‘지금’ 또는 ‘이제’로 번역한다.

예 아, 이제도 잇는디 : 아, 지금(○)/이제(×)도 있는데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 지금(○)/이제(×) 잊어버렸어

- ② ‘놓다↗노다’는 문맥에 따라 ‘넣다’ 또는 ‘놓다’로 번역한다.

- ③ 그 외 둘 이상으로 번역되는 경우

예 나 : ‘내가’ 또는 ‘나는’
예 경허다 : 그렇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예 경 행/헨 : ‘그렇게 해서’ 또는 ‘그렇게 했어’
예 틀리다↗틀리다 : ‘다르다’ 또는 ‘틀리다’
예 거라마씨? : ‘거예요?’ 또는 ‘거네요.’

- ④ ‘이추룩한’은 ‘이와 같은’으로 번역한다.

- ⑤ 부정문

예 먹도 아녀는디 : 먹지도 않는데
쓰지 안헐 : 쓰지 않아서

- ⑥ ‘-어지-’는 ‘-게 되-’ 또는 ‘-을 수’로 번역한다.

예 먹어질 : ‘먹게 될’ 또는 ‘먹을 수’

2. 조사

- ①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조사를 살려 적는다.

예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나(×) 지금 잊어버렸어

3. 어미

- ① -암ㅅ/엄ㅅ- :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고 있-’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예 ‘큹’ 험시네 : ‘큹’ 하네(○), ‘큹’ 하고 있네(×)

자꾸 왁짜 : 자꾸 온다(○), 자꾸 오고 있다(×)

허젠 험쭈다 :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② 연결 어미로서의 ‘-안/언, -양/영’ : 문맥에 따라 ‘-아서/어서’와 ‘-고’를 선택하여 적는다.

예 먹을 건 못 먹언 살아시난 : 먹을 건 못 먹고(○)/먹어서(×) 살았으니까

지평 가는 거 : 짚고(○)/짚어서(×) 가는 거

가정 읍서 : 가지고(○)/가져서(×) 오세요

- ③ 종결 어미로서의 ‘-안/언, -양/영’ :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과거형으로 적는다.

예 나 이제 잊어불언 :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잊어버려서(×)

- ④ 문장 종결 어미를 가급적 적어준다.

예 청미레 덩굴 아니? ⇒ 청미레 덩굴 아니야?

예 떨어진 거? → 떨어진 거예요?

- ⑤ 종결 어미 ‘-(으)ㄴ고, -(으)ㅂ주’는 각각 ‘-은/는가, -지요’로 번역한다.

예 잊어신고예? ⇒ 있었는가요?(○), 있었습니까(×)

예 엇입주 ⇒ 없지요(○), 없습지요(×) || 놀아십주 ⇒ 놀았지요(○), 놀았습쥬(×)

<부록5> 충청도 방언

◆ 구술발화 전사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글자 이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jɨ]’는 ‘이으’로 적고 ‘으’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ɨ:ŋgam](영감) ⇒ 이응감

② ‘[jö]’는 ‘이외’로 적고 ‘외’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jö] ⇒ 이외

③ 상향이중모음 [ʉa]는 어간 기본형에 따라 ‘ㅍ아, ㅅ아’로, [ʉə]는 ‘ㅍ어, ㅅ어, ㅅ어’로 적고 ‘와, 워’ 등의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mollʉa](몰류-아) ⇒ 몰류아 || [tʉa:](되-아) ⇒ 되아

[əllʉə](얼류-어) ⇒ 얼류어 || [tʰʉə:](뛰-어) ⇒ 뛰어 || [tʉə:](되-어) ⇒ 되어

④ 비모음은 대응하는 표준어에 준해서 ‘ㄴ’ 또는 ‘ㅇ’을 적되, 대응하는 표준어형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ㅇ’을 적는다. 이에 대한 발음정보는 따로 제공한다.

예 [äida](不) ⇒ 아니다 || [mäi](多) ⇒ 많이

[pää](臼) ⇒ 방아 || [solbɨi](술개) ⇒ 술bing이

【붙임】 비모음의 [비음성]이 완전히 탈락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ㄴ’ 또는 ‘ㅇ’을 적지 않는다.

예 [aida] ⇒ 아이다 || [talpʰei] ⇒ 달페이

2. 하향이중모음 ‘[uj], [oj], [ij], [aj], [əj]’는 각각 ‘우이, 오이, 으이, 아이, 어이’로 적는다.

예 [kuj](귀) ⇒ 구이 || [ojga](외가) ⇒ 오이가 || [kij](게) ⇒ 그이

[sajɨi](상-이) ⇒ 사잉이 || [səjɨi](성-이) ⇒ 서잉이

3. 모음 ‘ㅏ’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된 종결형은 발음에 따라 적는다.

예 장작 줌 께.(장작 줌 패) || 꼭 붙들어 마.(꼭 붙들어 매)

장작 줌 패.(장작 줌 패) || 꼭 붙들어 매.(꼭 붙들어 매)

밥얼 잘 먹는다야.(밥을 잘 먹는데) || 널 간다.(널 간대)

4. ‘유’와 관련된 표기

①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여 1음절로 축약되면 ‘슈’로 적고 2음절로 발음되면 ‘시유’로 적는다.

예 [가슈](가-시-어요) ⇒ 가슈 || [가시유] ⇒ 가시유

② ‘있-, 없-, -었/았-, -겠/졌-’ 등과 결합한 경우에는 ‘유’로 적는다.

예) 있유(있어요) || 없유(없어요) || 했유(했어요) || 허겠유(하겠어요)

③ 그 외 종결형이 ‘-유’와 결합하여 음절이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예) 트집힐류?(할래요) || 뭘 모른다는 규?(거요)

【붙임】 ‘거’(것)에 조사(주격, 서술격)가 결합하여 줄어든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것두 모르는 겨.(거야) || 유의해 주시라 이겁니다.(이겁니다)

5. 형태소 경계에서의 조음위치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조음위치동화에 의해 굳어진 대로 적는다.

예) 당구다(담그다), 장구다(잠그다), 송구다(심다), 깡구다(끼우다), 농구다(나누다)

6. 동일한 구성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는 발음대로 표기한다.

예) 가면/가문/감(가-면)

7. 표준어의 ‘-나 보다, -는가 보다, -은가 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내비다, -는갑다, -은갑다’와 같이 붙여 쓴다.

예) 비 오내벼.(오나 봐) || 더운갑다.(더운가 보다)

◆ 표준어 대역

1. 억양과 연결을 고려하여 표준어 번역을 하고 문장부호로 구별한다.

예) 여가 시청이래요.→ ➡ 여기가 시청이에요.

여가 시청이래요?↗ ➡ 여기가 시청이에요?

발췌 끝난 겨.→ ➡ 벌써 끝난 거야.

발췌 끝난 겨?↗ ➡ 벌써 끝난 거야?

2. ‘작다/작다’는 문맥 의미에 따라 ‘작다’와 ‘적다’로 번역한다.

예) 자는 키가 너머 즉어. ➡ 재는 키가 너무 작아.

가는 욕심이 즉어서 그리여. ➡ 개는 욕심이 적어서 그래.

3. ‘하마/하매’는 ‘벌써’로 번역한다.

예) 하매 다 끝났어? ➡ 벌써 다 끝났어?

4. ‘고대’는 문맥에 따라 조금 지난 시점과 현재 시점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에 따라 ‘아까’

(조금 지난 시점)와 ‘얼른’(현재 시점)으로 번역한다.

예) 언제 왔니? 고대 왔어. ➡ 언제 왔니? 아까 왔어.

꿈지럭거리지 말구 고대 가! ➡> 꿈지럭거리지 말구 얼른 가.

5. ‘거식하다’는 ‘거식하다’로 번역한다.

예) 말하는 기 쯤 거식하면 안 해두 되야. ➡ 말하는 게 쯤 거식하면 안 해도 돼.

[붙임 2] 전사 자료 정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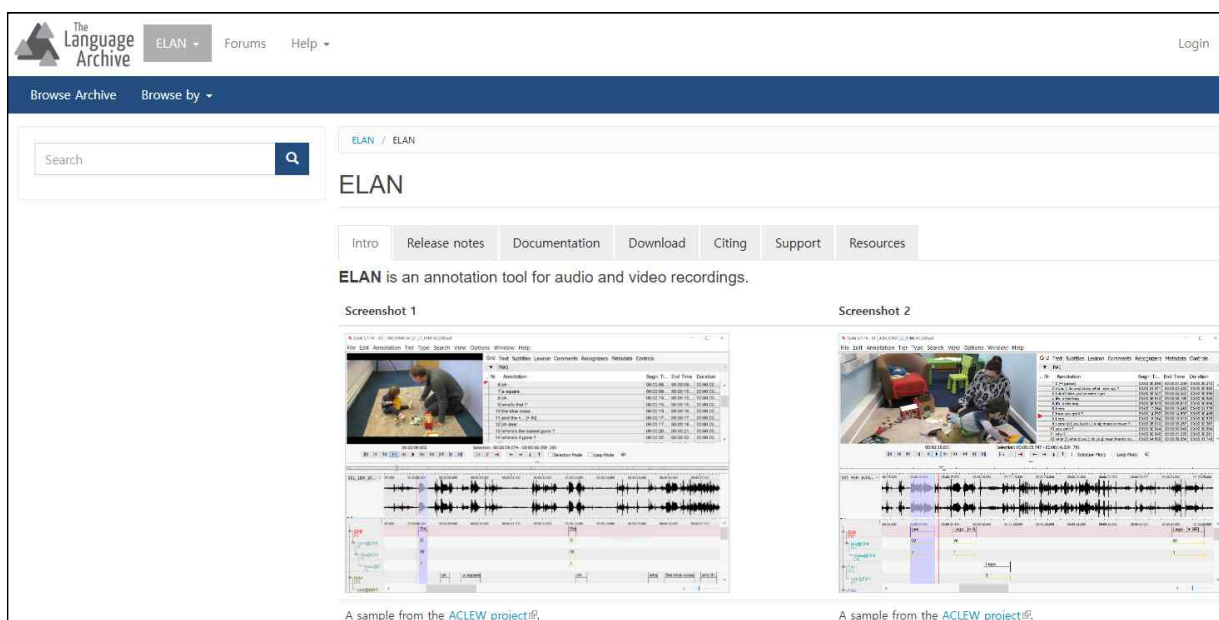
1) 파일 변환과 전사

(1) 파일 변환 및 음성 파일 편집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디지털 음성 변환(스테레오→모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음성 파일의 편집은 GoldWave 또는 Praat, Cool Edit Pro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 ② 어휘·표현 음성 파일의 경우 30분 정도의 길이로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음성 파일이 길어질 경우 프로그램 속도가 저하될 수 있고, 음성 분절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30분 이내의 길이로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 ③ 구술발화 음성 파일의 경우 주제별로 음성 파일을 편집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2) 전사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전사 도구는 엘란(ELAN) 6.8을 다운 받아서 설치한다.(2024년 12월 12일 버전 6.9 업데이트)



엘란(ELAN) 메인 홈페이지(<https://archive.mpi.nl/tla/elan>)

Download

Intro Release notes Documentation Download Citing Support Resources

Download the current version of **ELAN** for your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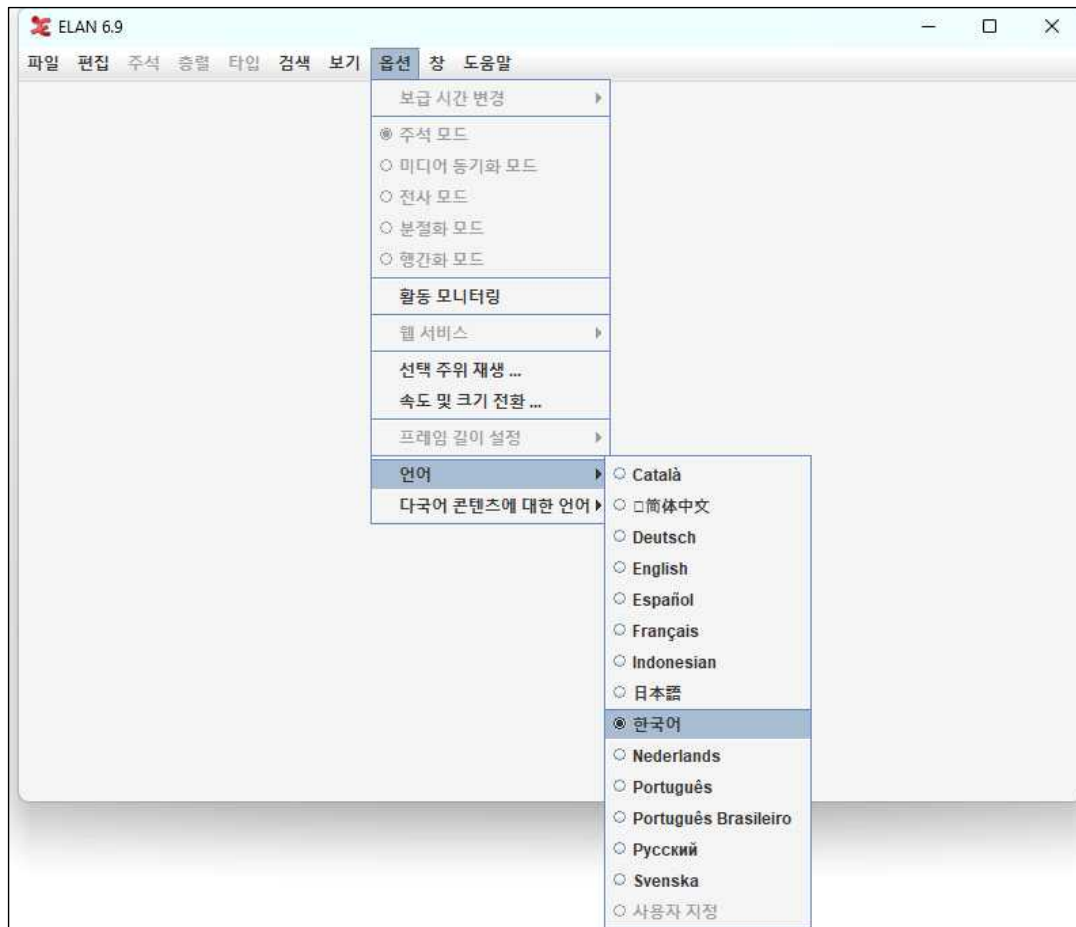
By downloading and using ELAN you agree to cite **ELAN** in any publication based on research in which **ELAN** has been used. You can cite a paper or cite as software, e.g. as follows:
 "ELAN (Version 6.9) [Computer software]. (2024). Nijmegen: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Retrieved from <https://archive.mpi.nl/tla/elan>"
 By downloading and using ELAN you also indicate you read and agree to the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of ELAN](#).

OS	Download	Format	Description
Windows	ELAN 6.9 Simple-ELAN 1.5	[.exe] [.zip] [.msi] [.exe] [.zip]	Installer (.exe [a Setup wizard with options] and .msi [silent installation for all users]) and portable, unpack-and-run (.zip) versions all include a Java 22 runtime. Requires: 64-bit, Windows 11, 10, (8 not tested anymore)
macOS	ELAN 6.9 ELAN 6.9-M1 Simple-ELAN 1.5 Simple-ELAN 1.5-M1	[.zip] [.dmg] [.zip] [.dmg] [.zip] [.dmg] [.zip] [.dmg]	.zip and .dmg files containing a .app which includes a Java 22 runtime (Java 21 for Intel based Macs). The M1 version only works on <i>Apple silicon</i> Macs (including M2 etc.). Requires: 64-bit, macOS High Sierra (10.13) or higher for Intel Macs, macOS Big Sur (11) or higher for Mx Macs.
Linux	ELAN 6.9 Simple-ELAN 1.5	[.tar.gz] [.deb] [.tar.gz] [.deb]	Archive files (.tar.gz) or Debian installers (.deb), all including a Java 22 runtime. Requires: 64-bit, tested on Ubuntu 22.04
All	Source code of ELAN 6.9	[.zip]	Archive containing the source files and a Maven build script. Requires: Maven 3.3 or >, OpenJDK 21 o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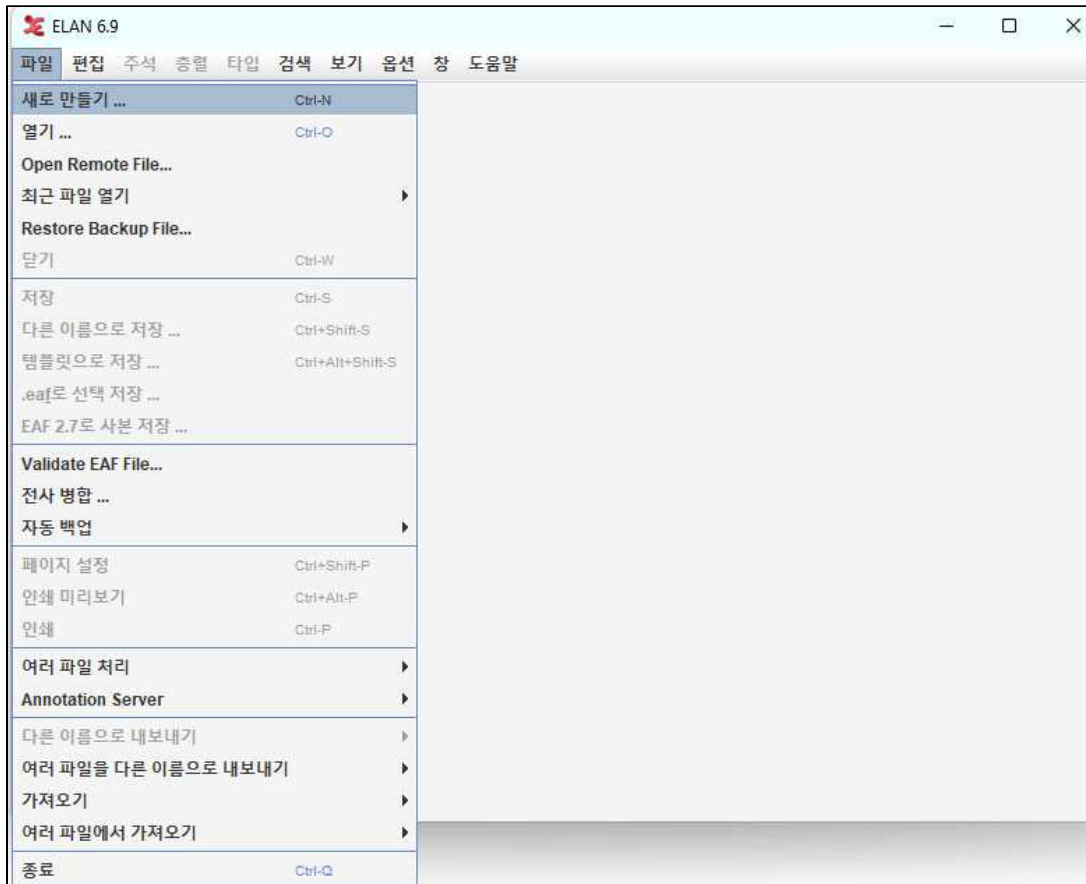
[Previous releases](#)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of E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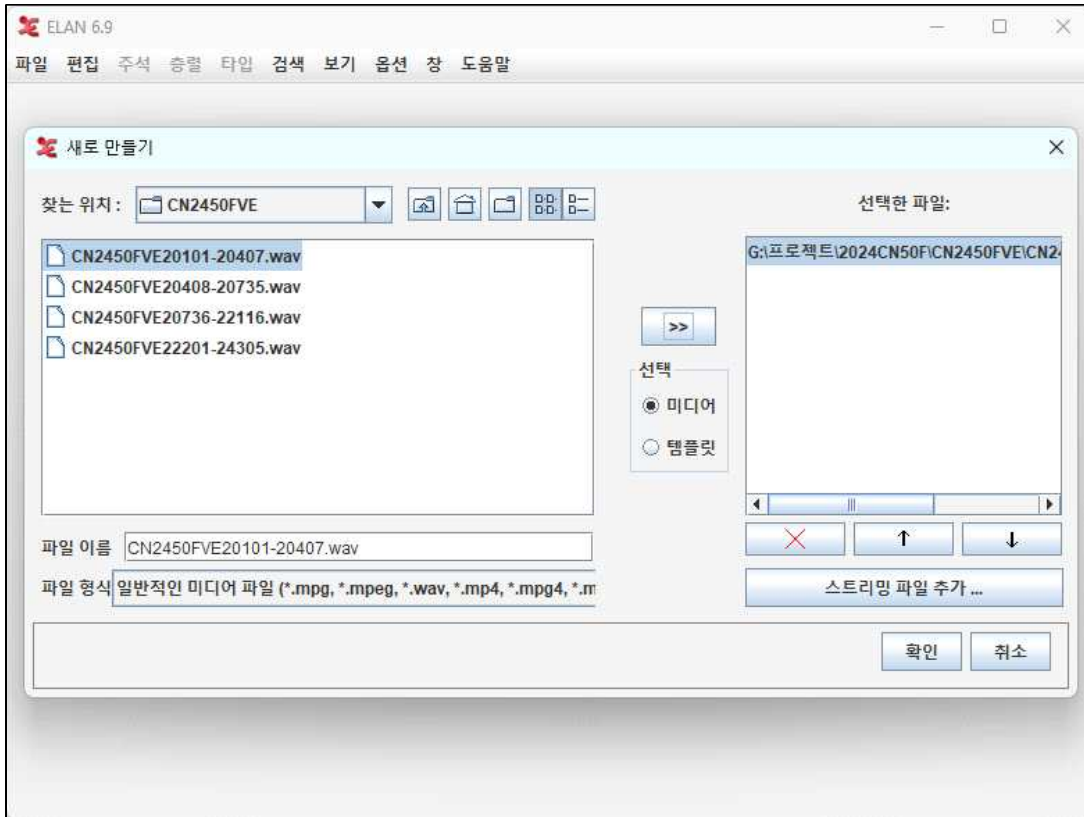
② 엘란(Elan)을 설치하고 실행한다. [옵션 - 언어 - 한국어]를 선택한다.



③ 엘란(ELAN)의 [파일 - 새로 만들기...(Ctrl+N)]에서 전사할 음성 파일을 선택한다.



④ 전사할 음성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⑤ 전사 층렬 변경 및 추가를 실시한다. 전사 층렬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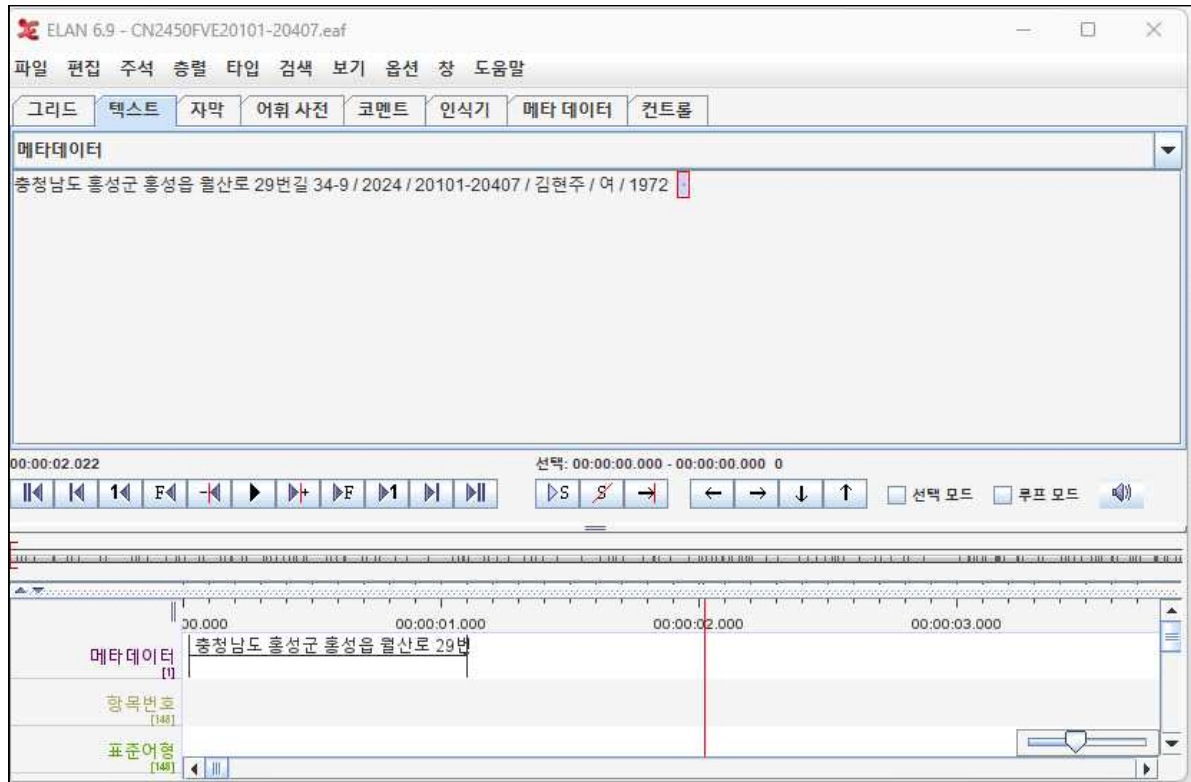
㉮ 어휘·표현 음성 파일 전사의 경우: ‘메타데이터, 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고’ 층렬 설정

[층렬 - 층렬 속성 변경]을 선택하여 ‘default’ 층렬의 이름을 ‘메타데이터’로 변경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메타데이터의 경우 음성 파일의 가장 앞 부분에 ‘조사 지역 / 조사 연도 / 조사 내용 / 제보자 이름 / 성별 / 출생 연도’ 정보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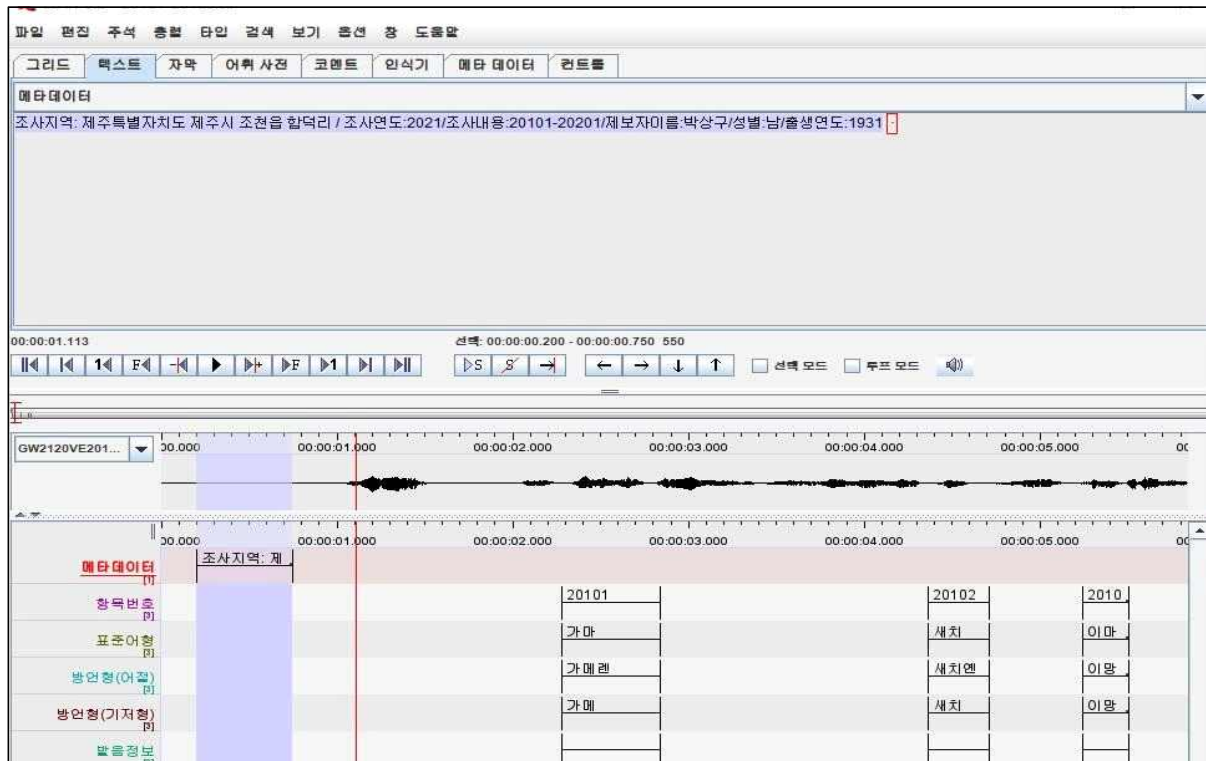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연도는 숫자 네 자리 형식으로 입력한다.

1) 출생 연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하며 형식은 숫자 네 자리로 고정한다. 예) 1939

2) 조사 내용의 형식은 어휘의 경우 ‘00000-00000’ 형식으로 입력한다. 예) 22349-22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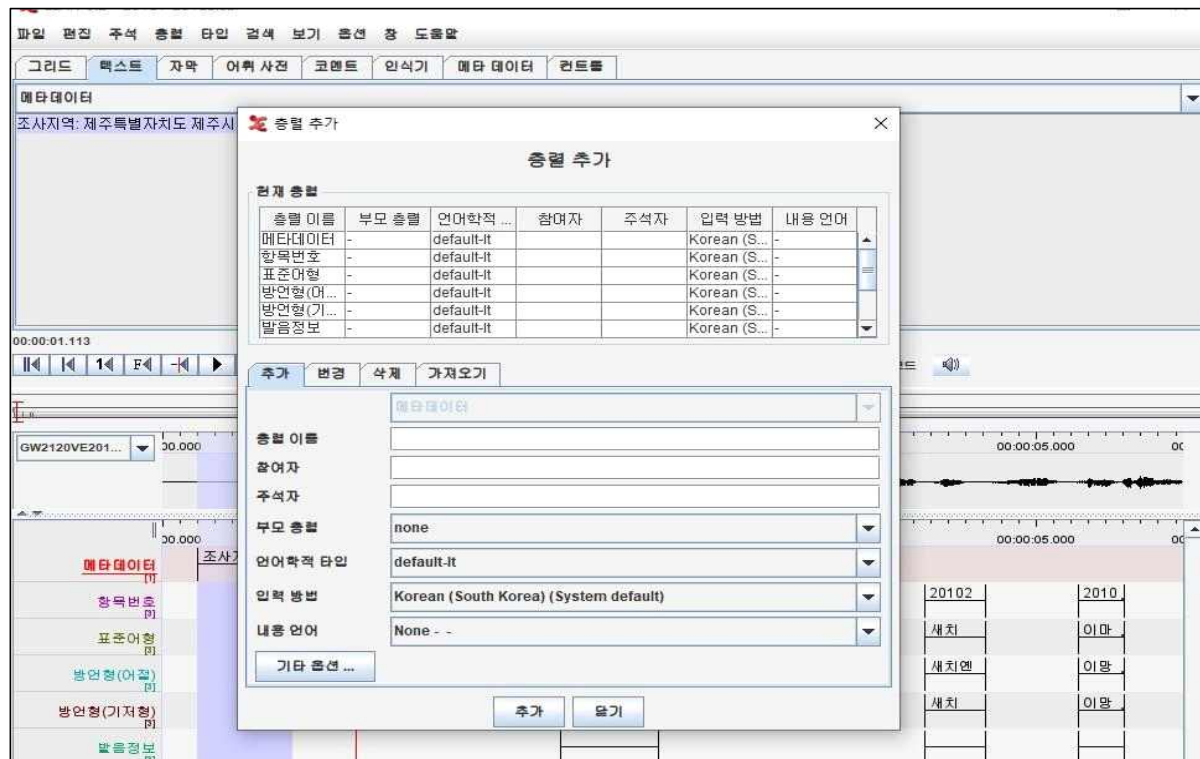


엘란(Elan)에서의 메타데이터 입력 예시



엘란(Elan)에서의 메타데이터 입력 예시

[충렬 - 새로운 충렬 추가]를 선택하여 ‘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교’ 충렬을 추가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그리고 참여자 정보에 제보자의 정보를 주석자 정보에 전사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엘란(Elan)에서의 충렬 추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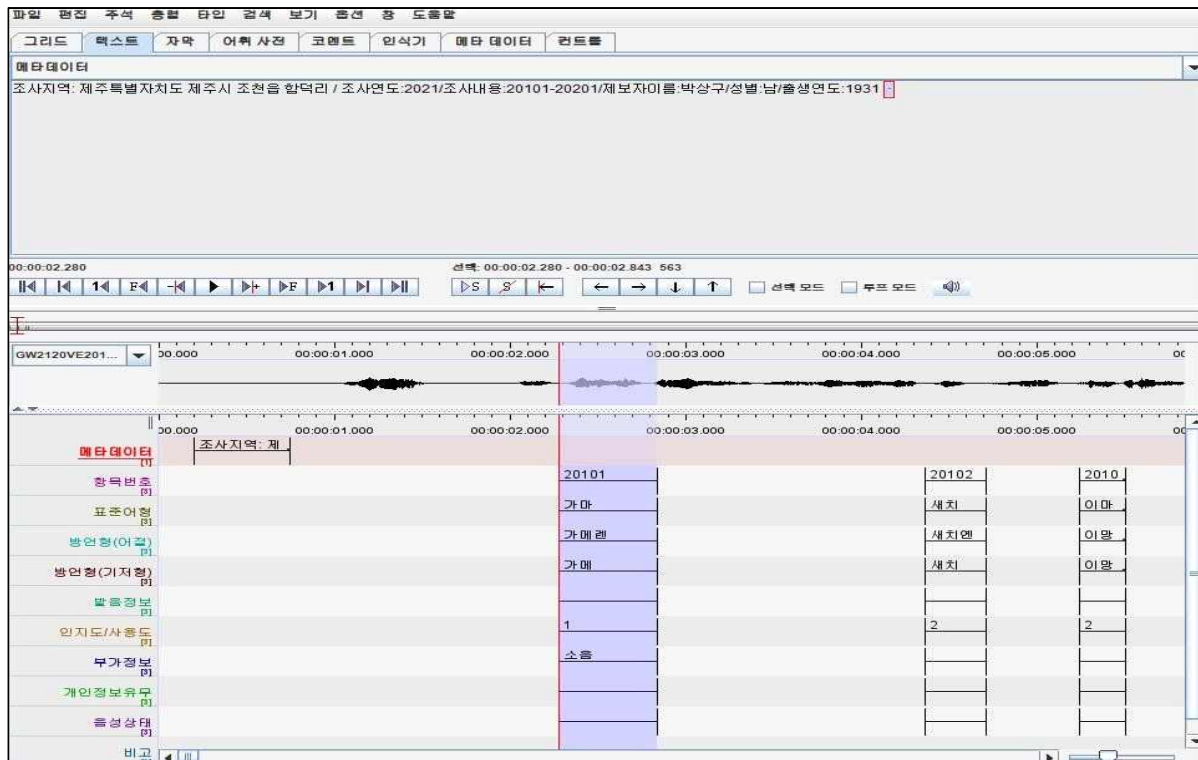
- ㉠ 구술발화 음성 파일 전사: ‘메타데이터, 항목 번호, 조사자(형태음소전사), 조사자(표준어대역),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제보자1(표준어 대역), (필요시)제보자2(형태음소전사), (필요시)제보자2(표준어 대역), 전체삭제여부, 음성상태, 비교’ 충렬 설정

[충렬 - 충렬 속성 변경]을 선택하여 ‘default’ 충렬의 이름을 ‘메타데이터’로 변경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메타데이터의 경우 음성 파일의 가장 앞 부분에 ‘조사 지역 / 조사 연도 / 조사 내용 / 제보자 이름 / 성별 / 출생 연도’ 정보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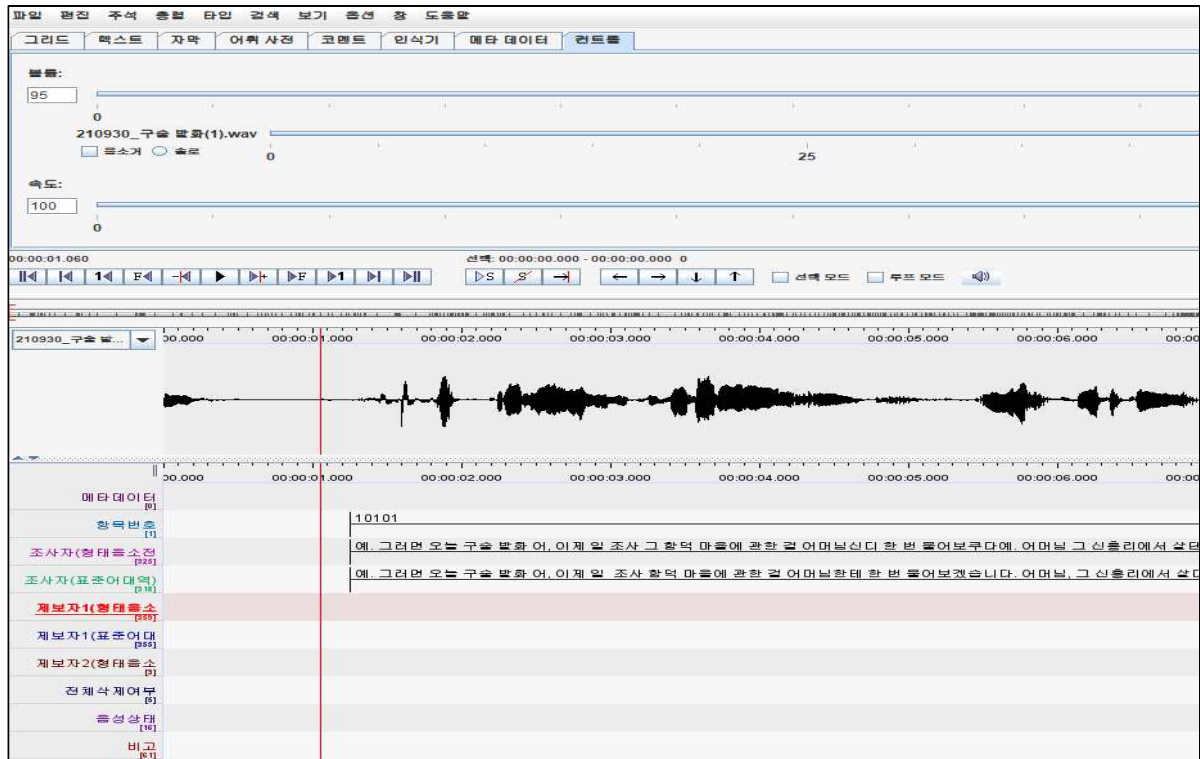
[충렬 - 새로운 충렬 추가]를 선택하여 ‘항목 번호, 조사자(형태음소전사), 조사자(표준어대역), 제보자1(형태음소전사), 제보자1(표준어 대역), (필요시)제보자2(형태음소전사), (필요시)제보자2(표준어 대역), 전체삭제여부, 음성상태, 비교’ 충렬을 추가하고 입력 방법은 ‘Korean (South Korea)(System default)’을 설정한다. 그리고 참여자 정보에 제보자의 정보를 주석자 정보에 전사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 엘란(ELAN)의 [층렬 - 층렬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음성 파일마다 층렬을 설정하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표현 음성 파일을 전사할 때 활용할 ‘VE.eaf’ 파일과 구술발화 음성 파일을 전사할 때 활용할 ‘UT.eaf’ 파일을 하나씩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⑥ 전사할 층렬에서 전사할 부분을 설정하고(마우스 드래그), 마우스우클릭 한 후에 ‘여기에 주석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전사한다.([마우스우클릭-여기에 주석 새로만들기]를 활용하지 않고, [주석-여기에 주석 새로만들기]를 활용하면 첫 번째 층렬에만 경계가 생성된다.)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어휘 및 표현)



엘란(Elan)에서의 전사 예시(구술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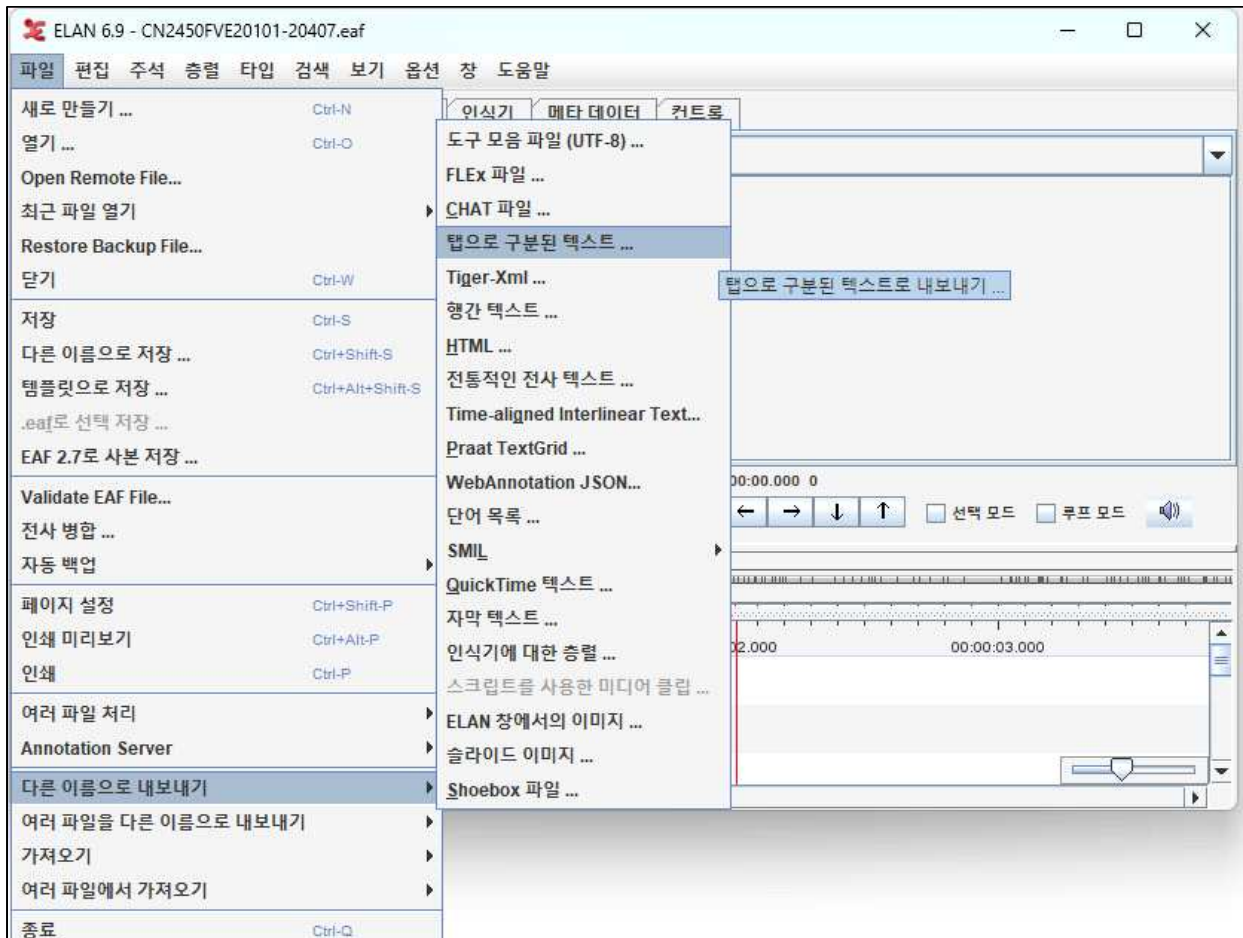
- ※ 전사할 때 분절(segmentation)한 구간을 반복하여 청취하려면 ►S(Shift+Space)을 선택.
- ※ 전사할 때 음성 구간 앞, 뒤에 200msec 이상의 휴지가 포함되도록 조절해야 함.
- ※ 옛한글 입력 방법을 숙지하여([참조 2]), 아래아 및 쌍아래아를 전사할 때 활용.

⑦ 전사가 완료되거나 수시로 전사 파일을 저장한다. [파일-저장(Ctrl+S)]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엘란(ELAN)의 전사 파일은 .eaf로 나타난다.

⑧ 전사 완료 후, 어휘·표현 전사 파일은 엑셀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다.

- ※ 어휘·표현 음성 파일에 전사한 정보(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유무, 음성상태, 비고)를 엑셀 파일에 기록.
- ※ 엘란(ELAN)의 기능을 활용하여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엑셀에 기록.

⑨ [파일 -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 -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Ctrl+A) 선택한다.



- ⑩ [각 층렬에 대한 별도의 열]을 선택하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시간 형식 (hh:mm:ss:ms)]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로 내보내기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로 층렬 내보내기

층렬 선택

층렬 이름으로 타임으로 참여자로 주석자로 언어로

- ☒ 항목번호
- ☒ 방언형
- ☒ 대응표준어
- ☒ 음소전사
- ☒ 발음정보
- ☒ 부가정보
- ☒ 메타데이터
- ☒ 음성상태

☐ 루트 층렬만 표시

⬆ ⬇ A-Z 정렬 취소 모두 선택 선택 없음

출력 옵션

- ☐ 선택한 시간 간격에 제한
- ☐ 주석 시간에 대한 미디어 마스터 오프셋 추가
- ☐ 미디어 파일 정보를 담은 헤더 라인 포함
- ☐ 출력에서 층렬 이름을 제외
- ☒ 출력에서 참여자 이름을 제외
- ☒ 각 층렬에 대한 별도의 열
 - ☒ 다른 주석에 걸친 주석 내용 반복
 - ☐ 주석 계층 내에서만 반복
 - ☐ Sliced annotation output showing temporal co-occurrences
 - ☐ Include the annotation id
- ☐ 통계 어휘에 대한 설명을 포함

시간 열을 포함합니다: 시간 형식을 포함합니다:

- ☒ 시작 시간 ☒ hh:mm:ss.ms
- ☒ 종료 시간 ☐ ss.msec
- ☒ 지속 시간 ☐ msec
- ☐ SMPTE 타임 코드 (hh:mm:ss:ff)

확인 닫기

- ⑪ 엘란(ELAN)에서 전사한 정보(항목 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발음정보, 사용도/인지도, 부가정보, 개인정보여부, 음성상태, 비고)를 확인한다.

파일(F)	편집(E)	서식(O)	보기(V)	도움말(H)	시작 시간 - hh:mm:ss.ms	종료 시간 - hh:mm:ss.ms	지속 시간 - hh:mm:ss.ms	메타데이터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절)	방언형(기저형)
00:00:00.200	00:00:00.750	00:00:00.550	조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연도:2021/조사내용:20101-20201/제보자이름:박성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00:00:02.280	00:00:02.843	00:00:00.563	20102	새치	새치	새치	새치	2				
00:00:04.362	00:00:04.712	00:00:00.350	20103	이마빼기	이랑새기	이랑새기	이랑새기	2				
00:00:05.244	00:00:05.506	00:00:00.262										

전사 파일(.eaf)의 텍스트 파일(.txt) 변환 결과

- ⑫ 위 정보를 엑셀 파일에 기록한다. 엑셀 결과물 정비 시 ‘메타데이터’ 열은 삭제하고 ‘일련번호’ 열을 추가하여 분절한 음성 파일명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파일명은 “음성파일명.xlsx”로 한다.
(예: GW2220FVE20101-20205.wav에 대한 전사 정보 파일은 GW2220FVE20101-20205.xlsx로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메타데이터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	방언형(기)	발음정보	인지도/사	부가정보	개인정보	음성상태	비고		
2	00:00.2	00:00.8	00:00.6	조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조사연도:2021/조사내용:20101-20201/제보자이름:박성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3	00:02.3	00:02.8	00:00.6		20102	새치	새치	새치	새치	2						
4	00:04.4	00:04.7	00:00.4		20103	이마빼기	이랑새기	이랑새기	이랑새기	2						
5	00:05.2	00:05.5	00:00.3													
6																

엑셀 파일 기록(메타데이터 삭제 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1	일련번호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항목번호	표준어형	방언형(어)	방언형(기)	발음정보	인지도/사	부가정보	개인정보	음성상태	비고		
2	JJ2120VE2	00:02.3	00:02.8	00:00.6	20101	가마	가메렌	가메		1	소음					
3	JJ2120VE2	00:04.4	00:04.7	00:00.4	20102	새치	새치	새치		2						
4	JJ2120VE2	00:05.2	00:05.5	00:00.3	20103	이마빼기	이랑새기	이랑새기		2						
5																
6																

엑셀 파일 기록(메타데이터 삭제 및 일련번호 삽입)

[붙임] 자료 관리

1) 조사 지역 약호

- 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 약호를 부여한다. 조사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문자 대문자로 표시한다. 영문자 대문자는 도명(道名)의 약어를 사용한다. 도명의 약어는 여권에 사용하는 약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 영문자 MP를 부여한다.

지역	대도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코드	MP	GW	GG	GN	GB	JN	JB	JJ	CN	CB

- ② 각 도의 시, 군의 약어는 해당 지역의 조사 연도 끝자리 두 자리를 부여한다.

도별	2021 (시범조사)	2022 (1차조사)	2023 (2차조사)	2024 (3차 조사)
대도시	대전	-	-	-
강원	춘천	춘천	원주	강릉
경기	고양	고양	수원/화성	의정부
경남	창원	창원	울산/울주	진주
경북	경주	경주	안동	김천
전남	무안/목포	무안/목포	광주/광산	여수
전북	전주/완주	전주/완주	익산	남원
제주	제주시(해안)	제주시(산간)	서귀포시(해안)	제주
충남	아산	예산	공주	홍성
충북	청주	청주	충주	제천

- ③ 세대별(20대, 50대, 70대) 표시는 ‘20, 50, 70’을 부여하고, 성별(남, 여) 표시는 ‘M, F’를 부여한다.
 ④ 어휘·표현 자료는 약어 ‘VE’와 함께 어휘항목별 코드를 부여하고, 구술발화 자료는 약어 ‘UT’와 함께 질문지 항목별 코드를 부여한다.
 ⑤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파일은 [보기]와 같이 조사 지역, 조사 연도, 세대, 자료 종류, 항목별 코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보기]

어휘·표현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어휘 항목별 코드’

GW2320FVE20100-20146.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20100-20146 음성 파일)

GW2320FVE20100-20146.eaf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20100-20146 전사 파일)

- ※ 어휘·표현 보충 조사 항목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어휘 항목별 코드(보충 조사 첫 어휘 항목 번호와 마지막 어휘 항목 번호) / 보충’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

GW2320FVE20130-20417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보충 조사 음성 파일)

GW2320FVE20130-20417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어휘·표현 보충 조사 전사 파일)

- ※ 구술발화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질문지 항목별 코드 / (필요시 파일 번호)’

GW2320FUT10200.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음성 파일)

GW2320FUT10200.eaf(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전사 파일)

※ 구술발화 음성 파일이 1시간이 넘으면 파일 번호를 넣어서 음성 파일을 편집한다. 예를 들어 ‘2. 일생 의례와 경험’의 음성 파일이 100분이면 50분씩 나누어 편집한다.

GW2320FUT10200_01.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1번째 음성 파일)

GW2320FUT10200_02.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2번째 음성 파일)

※ 구술발화 음성 파일이 1시간이 넘으면 파일 번호를 넣어서 음성 파일을 편집한다. 예를 들어 ‘2. 일생 의례와 경험’의 음성 파일이 100분이면 50분씩 나누어 편집한다.

※ 구술발화 보충 조사 항목의 경우 도명 및 조사 연도 / 세대 / 자료 종류 / 질문지 항목별 코드 / 보충’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

GW2320FUT10200보충.wav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보충 음성 파일)

GW2320FUT10200보충.eaf (강원도 20대 여성 구술발화 2. 일생 의례와 경험 보충 전사 파일)

2) 파일 관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을 작성하여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한다.
- ② 조사된 지역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조사 지점과 세대 그리고 자료 종류별로 고유 폴더 이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20대 여성 피험자의 어휘·표현을 조사한 녹음 파일이 25개일 경우, 이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폴더 이름은 약어 부여 방법에 따라 “JB2320FVE”가 된다. 이 폴더 안에는 확장자 이름을 “wav”로 갖는 음성 파일 25개와 이들 각각과 동일한 파일명을 갖고 확장자가 “eaf”인 전사 파일 25개가 포함된다.
- ③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은 같은 폴더에 있어야 자료의 수정이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같은 번호를 갖는 두 파일은 짝을 지어 동일한 폴더에서 관리한다.
- ④ 음성 전사한 각 파일의 정보가 담긴 정보 파일은 엑셀 문서로 입력하여 “조사지역약어.xlsx”의 이름을 부여한다. 이 정보 파일에는 각각의 폴더에 담긴 파일의 정보를 정리하여 입력한다.

[보기] JB2320FVE.xlsx (전라북도 20대 여성 피험자 어휘·표현의 정보 파일)

3) 녹음 파일(wav, eaf 파일)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관리

- ① 음성 파일은 16bit linear PCM으로 저장된 원본 파일을 전사용 파일로 사용하며,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한다.
- ② 원본 음성 파일은 엘란(ELAN)으로 전사한 전사 파일(.eaf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보관한다.
- ③ 어휘·표현 파일은 항목별 음성 분절 파일과 항목별 형태음소전사-표준어 대역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보관한다.
- ④ 구술발화 파일은 주제별 음성 분절 파일과 주제별 형태음소전사-표준어 대역 파일과 함께 짝을 지어 보관한다.

4) 조사 결과 보고

연구 책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한 결과물에 대해 양적, 질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정리가 종료되면 아래의 결과물들을 제출하고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①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 ② 어휘·표현: 원본 음성 파일,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 파일(eaf 파일 & excel 파일), 항목별 음성 분절 파일
- ③ 구술발화: 원본 음성 파일(=주제별 음성 분절 파일),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 파일(=주제별 형태음소 전사-표준어 대역 파일: eaf 파일)
- ④ 조사된 질문지(제보자 조사표 포함: 주제보자 & 보조제보자)
- ⑤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별도 서식)
- ⑥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도 서식)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의 제보자 조사표

조사자 이름		조사 장소	
조사지		조사 코드	
조사 기간			
<input type="checkbox"/> 주 제보자		<input type="checkbox"/> 보조 제보자(주 제보자와의 관계:)	
제보자 이름 (남 . 여)		나이 세(년생)	
출생지		(농촌 . 어촌 . 광산촌 . 도시)	
거주지		선대 거주지	
생업		선대 생업	
학력		병역(복무지, 기간)	
경력		가족 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공통 발음정보> ① ‘에 / 애’의 변별 여부: ② ‘으 / 어’의 변별 여부: ③ ‘위, 외’의 발음: ④ 비모음화 실현 여부: ⑤ 격음화 여부:			
녹음기 TASCAM DR-05X	마이크 대경바스컴 CM-1031FC	기록 매체 ELAN 6.9	
조사 지점의 개관			
조사 파일명			
※ 아래는 예시입니다. CN2450FVE20101-20407 CN2450FVE20408-20735 CN2450FVE20736-22116 CN2450FVE22001-24305		※ 아래는 예시입니다. CN2450FUT10100 CN2450FUT10200 CN2450FUT10300 CN2450FUT10400 CN2450FUT10500 CN2450FUT10600 CN2450FUT10700 CN2450FUT10800 CN2450FUT10900	

[붙임 3]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

I. 분절화 작업 개요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웹 환경에 맞는 형식이 필요하다.
- 기존의 조사 및 전사 자료는 연구를 위한 것이어서 개별 어휘 음성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형식이므로, 음성 파일 분절 및 일련번호 부여 작업을 통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분절 작업은 어휘·표현 부분과 구술발화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어휘·표현 음성 자료는 엘란(ELAN)을 활용하여 1,000항목 내외의 어휘·표현 항목을 분절한다.
- ② 구술발화 음성 자료는 주제별로 분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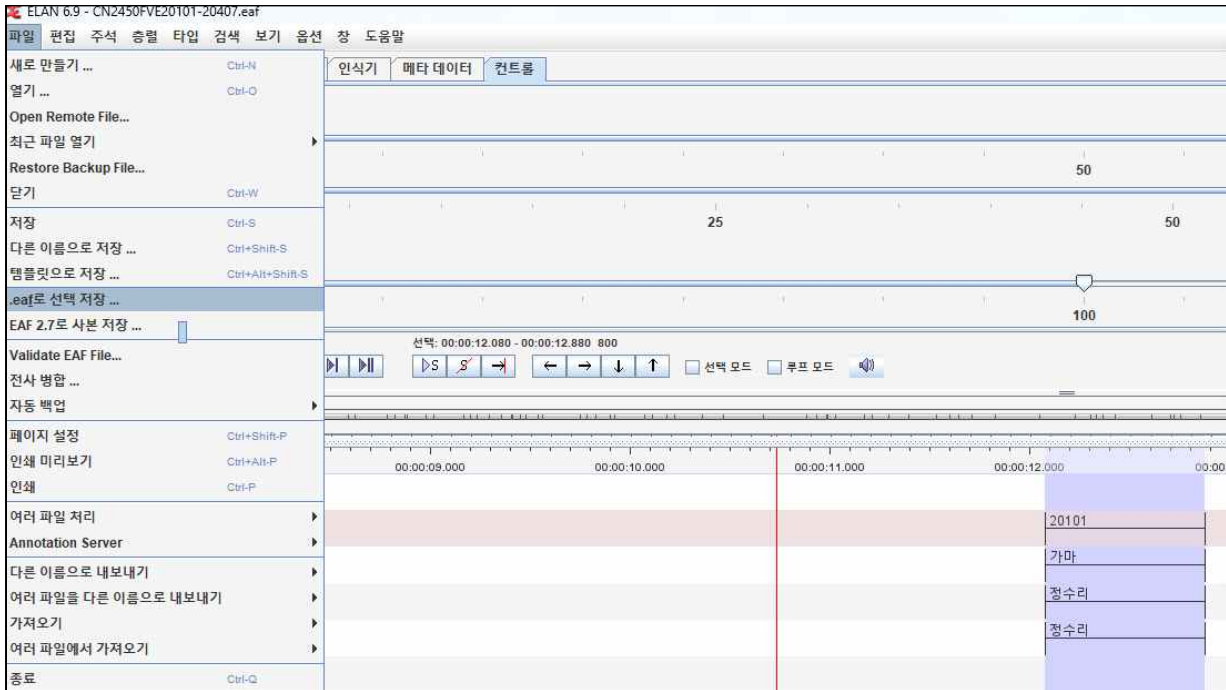
II.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하기

□ 음성 파일 추출 원칙

-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은 엘란(ELAN)을 활용한다.
- 음성 파일을 분절할 경우 음성 구간 앞, 뒤에 200msec 이상의 휴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음성 파일 및 전사 파일 분절 과정

- ① 음성 및 전사 파일 분절은 엘란(ELAN)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② 음성 및 전사 파일을 분절할 폴더명은 영문으로 설정하고, 해당 폴더에 clip_media.txt 파일을 찾아서 저장한다.
- ③ 구글에서 FFmpeg 파일을 다운 받고, 설치한다.
- ④ 전사 작업을 완료한 후 전사 파일(.eaf 파일)을 연다.
- ⑤ 분절할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파일 - .eaf로 선택 저장]을 선택한다.



파일 분절 작업

⑥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선택한 미디어 클립]을 선택하고, 파일명(일련번호)을 수정하여 저장한다.
분절한 파일 제목은 음성 파일명 작성 지침에 맞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어휘·표현 항목별 코드를 마지막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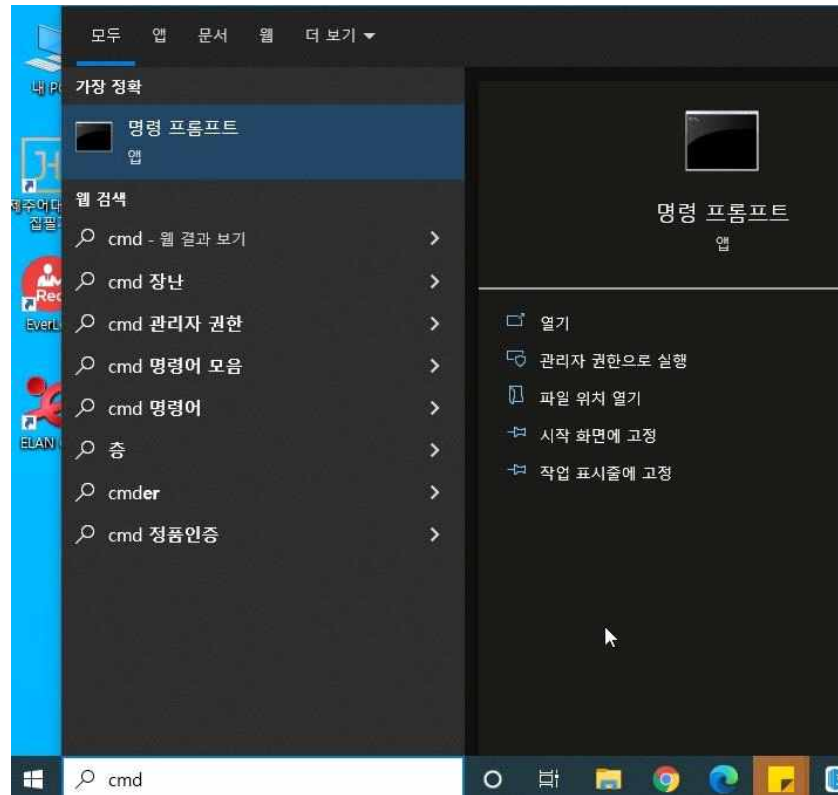
⑦ 분절할 부분의 전사 파일명(.eaf 파일명)은 설정할 수 있지만, 음성 파일의 파일명은 ‘기존 음성 파일 이름_음성구간’으로만 나타난다.

※ ‘GW2320FVE20100-20201’ 음성 파일에서 어휘·표현 항목 ‘2010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절할 때 .eaf 파일명은 ‘GW2320FVE20101.eaf’로 부여할 수 있지만, 분절한 음성 파일은 자동으로 ‘GW2320FVE20101-20201_1010_1650(음성구간).wav’로 생성된다. 따라서 분절한 음성 파일명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GW2320FVE20101-20201_1010_1650.wav → GW2320FVE20101.wav)

⑧ 해당 폴더에 .eaf 파일과 .pfsx 파일을 삭제한다.(명령 프롬프트(cmd)의 del 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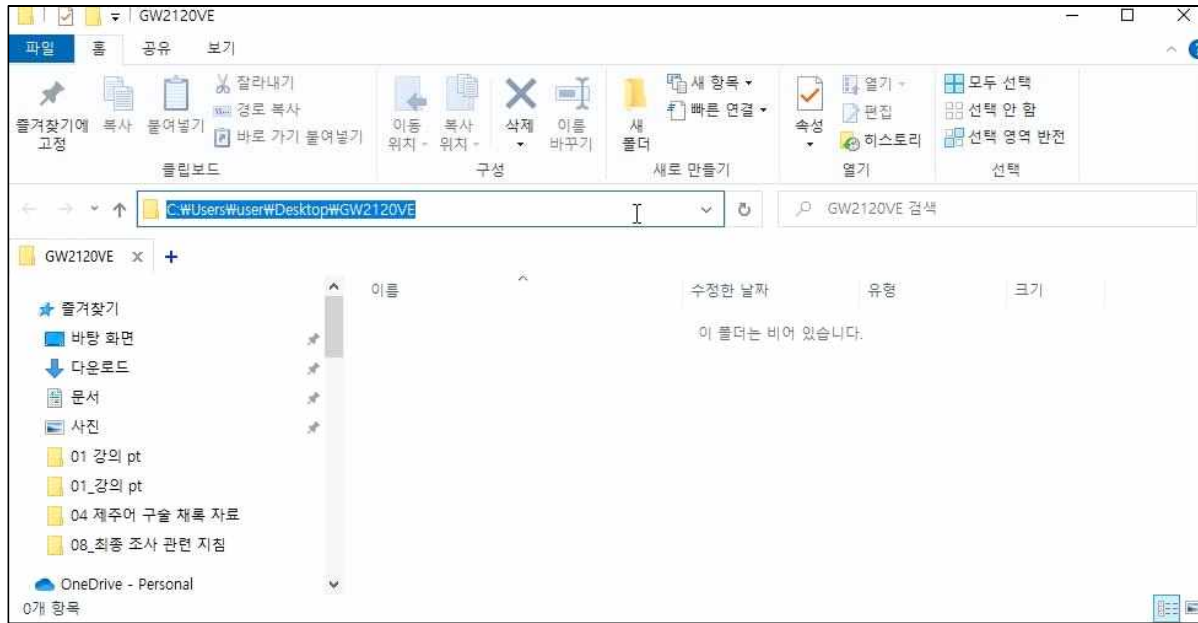
※ “del *.eaf”을 실행하면 분절한 eaf 파일과 함께 원본 음성 파일에 대한 전사파일(eaf 파일)도 삭제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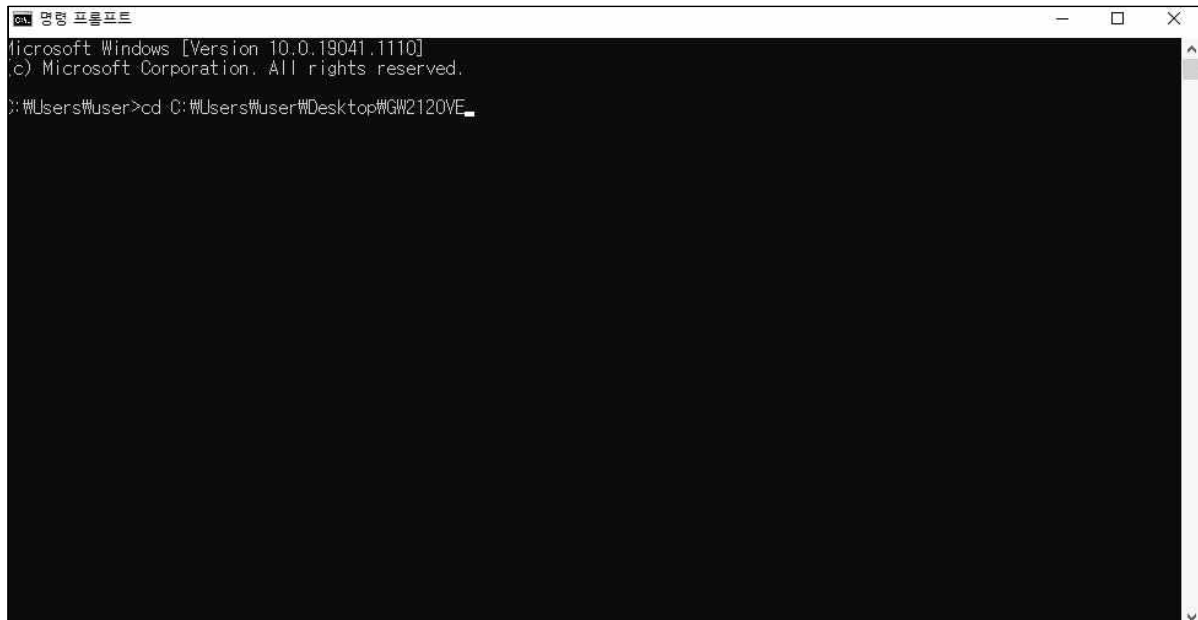
cmd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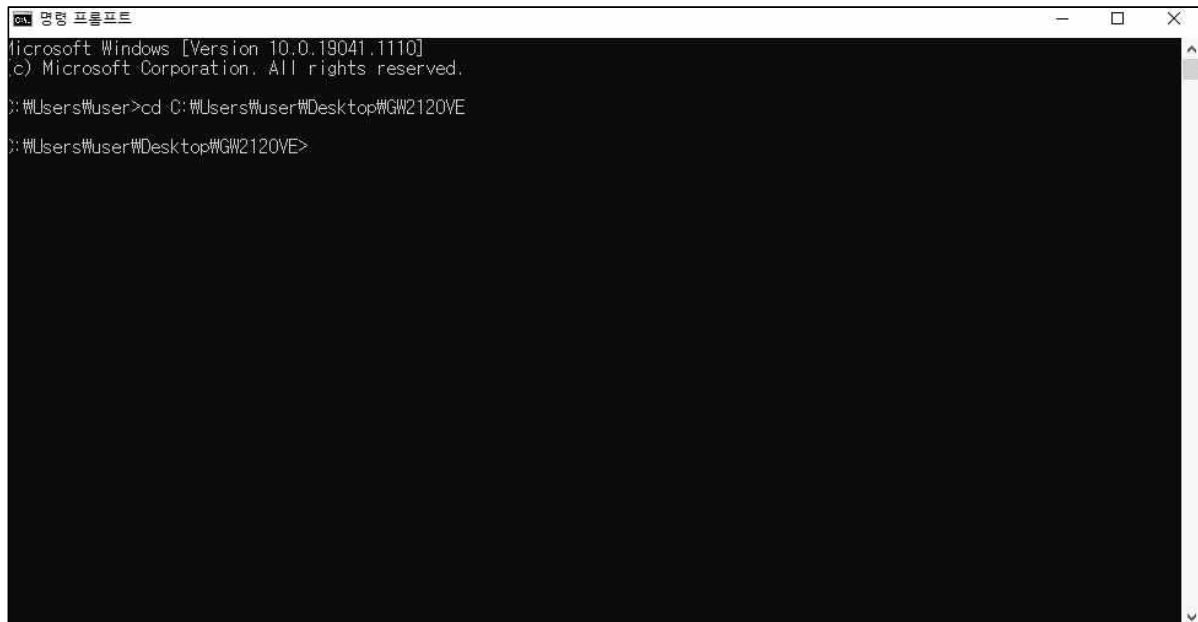
명령 프롬프트 화면



폴더명 복사(Ctrl+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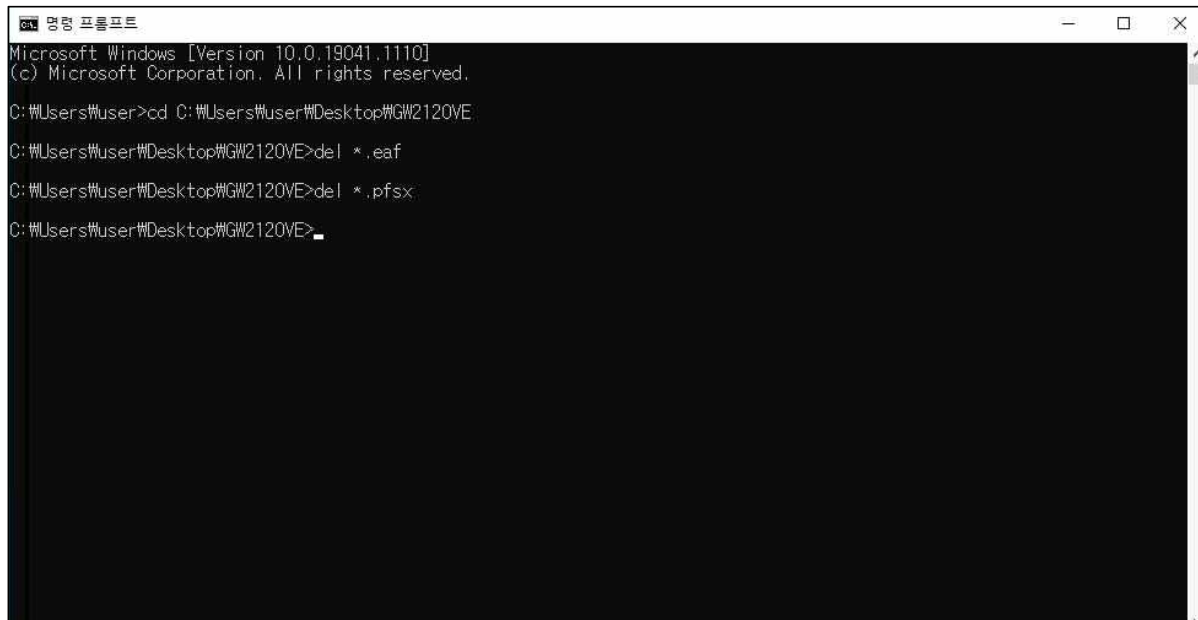
cd 폴더명(붙이기) 입력(해당 폴더로 이동)



```
명령 프롬프트
Microsoft Windows [Version 10.0.19041.1110]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Users\User>cd C:\Users\User\Desktop\GW2120VE
C:\Users\User\Desktop\GW2120VE>
```

음성 파일 및 분절 파일 위치로 이동



```
명령 프롬프트
Microsoft Windows [Version 10.0.19041.1110]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Users\User>cd C:\Users\User\Desktop\GW2120VE
C:\Users\User\Desktop\GW2120VE>del *.eaf
C:\Users\User\Desktop\GW2120VE>del *.pfsx
C:\Users\User\Desktop\GW2120VE>
```

del 기능을 활용하여 eaf 파일 및 pfsx 파일 삭제

Ⅲ. 음성 파일에 일련번호 부여하기

□ 일련번호 구성

- 일련번호는 음성 파일의 파일명이면서, 음성 파일 목록과 음성 파일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 일련번호는 해당 음성이 언제, 어디에서 조사된 것인지, 어떤 항목의 방언형인지, 방언형들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일련번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역 코드(도)
 - 나. 조사 연도
 - 다. 세대(20대, 50대, 70대)
 - 라. 성별(남, 여)
 - 마. 자료 종류(어휘·표현, 구술발화)
 - 바. 어휘·표현 항목 번호, 구술발화 주제별 항목 번호
 - 사. 필요한 경우: 관련어

□ 항목별 세부 설명

가. 지역 코드(도)

- 지역 코드는 도 단위로 배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각 지역 명칭의 두 글자의 초성을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지역	대도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코드	MP	GW	GG	GN	GB	JN	JB	JJ	CN	CB

나. 조사 연도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을 5차년에 걸쳐 조사할 예정. 조사 연도를 21~25 사이로 부과하여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도별	2021 (시범조사)	2022 (1차조사)	2023 (2차조사)	2024 (3차 조사)
대도시	대전	-	-	-
강원	춘천	춘천	원주	강릉
경기	고양	고양	수원/화성	의정부
경남	창원	창원	울산/울주	진주
경북	경주	경주	안동	김천
전남	무안/목포	무안/목포	광주/광산	여수
전북	전주/완주	전주/완주	익산	남원
제주	제주시(해안)	제주시(산간)	서귀포시(해안)	제주
충남	아산	예산	공주	홍성
충북	청주	청주	충주	제천

다. 세대(20대, 50대, 70대)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세대(20대, 50대, 70대)별로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다. 세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20, 50, 70’을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라. 성별(남, 여)

- (다)와 마찬가지로 성별(남, 여)을 표시하기 위하여 ‘M, F’를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마. 자료 종류(어휘·표현, 구술발화)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에서는 어휘·표현 항목과 구술발화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VE, UT’를 일련번호 작성에 적용한다.

바. 어휘·표현 항목 번호, 구술발화 주제별 항목 번호

- 세대별·성별 언어 다양성 조사 보고서에 부여되어 있는 항목 번호를 사용한다.
- 구술발화: 구술발화 파일은 주제별 코드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주제	코드 설정
1. 조사 마을(동네)의 환경과 배경	10100
2. 일생 의례와 경험	10200
3. 생업 활동과 경제 생활	10300
4. 의생활과 외모	10400
5. 식생활	10500
6. 거주 생활	10600
7. 질병과 건강	10700
8. 세시 풍속과 여가 문화	10800
9. 언어 의식/태도	10900

바. 동의어, 이형태

- 동의어, 이형태의 기본 개념

-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집에서 하나의 항목 번호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두 개 이상 조사한 경우, 해당 방언형끼리의 관계를 밝혀 줄 필요가 있다. 방언형끼리의 관계는 동의어, 이형태로 나뉜다.

- 동의어는 하나의 표준어형에 둘 이상의 방언형이 대응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 이형태는 조사된 방언형들이 서로 개별 어휘가 아니라 이형태 관계인 경우이며, 음운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의 기저형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다.

○ 동의어

- 하나의 표준어형에 대응되는 어휘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어휘를 모두 추출하고 해당 어휘에 ‘A’를 부여한다.

- 각 동의어가 구별될 수 있도록 A 뒤에 숫자 ‘1, 2, 3 …’을 차례로 부여한다.
- 동의어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동의어 예시

예1) 형태가 다른 어휘: 가래떡 - 떡까랑, 가래떡

예2)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 송편- 송펜, 송편

예3) 동일 형태이나 성조가 다른 경우: 모내기 - 이중(HH), 이중(HL)

예4) 구형과 신형의 관계에 있는 어휘

○ 이형태

- 하나의 방언 어휘의 음운론적 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언형이 조사된 경우 각각의 방언형을 추출한다.

예) 꽃 - [꼰], [꼬치]

밟다 - [발바], [밟꼬]

- 해당 방언형에 ‘C’를 부여하고, 각 이형태의 C 번호 뒤에 숫자 ‘1, 2, 3 …’을 차례로 부여한다.
- 음운론적 교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형태를 중복해서 추출하지 않는다.
- 지역어 변이 조사 자료집에서 곡용형, 활용형을 조사한 경우 어휘 항목 뒤에 ‘-0-1, -0-2 …’의 번호를 붙여서 구별한다. 이러한 곡용형, 활용형을 포함하여 이형태 관계인 경우에는 모두 ‘C’를 별도로 부착한다.

예) JB2350FVE20301-C-1 가루고

JB2350FVE20301-C-2 가루에다가

JB2350FVE20301-C-3 가루럴

- 기저형 판별이 모호하여 동일 기저형의 이형태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동의어로 처리한다.

IV. 분절 파일 검수

□ dir 명령어로 파일명 매칭 검사하기

- 분절 파일은 수가 최소 1,000개 이상이므로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렵다.
-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명령 프롬프트(윈도우 검색창에 cmd 입력)를 활용하여 분절한 파일의 폴더에서 dir 명령어로 파일명 매칭 검사가 가능하다.

<판권란 표시>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김선철 어문연구과장

국립국어원 김수현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김소연 연구원

국립국어원 김정원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 책임자: 정승철(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덕호(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수영(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석규(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신(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인호(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 보조원: 고은향(제주대학교), 김고은(서울대학교),

김동은(아주대학교), 김민지(서울대학교),

김영규(서울대학교), 김유겸(서울대학교),

김인규(경북대학교), 김주성(해군사관학교),

김한중(서울대학교), 박정순(숭실대학교),

박주성(서울대학교), 배윤정(서울대학교),

백은아(전북대학교), 안미화(서울대학교),

오 청진(목포대학교), 윤예진(서울대학교),

이재섭(경북대학교), 이철희(경북대학교),

이현주(서울대학교), 임홍연(서울대학교),

전진호(서울대학교), 정성경(목포대학교),

최준호(서울대학교), 현혜경(제주대학교),

허유진(서울대학교), 홍석우(서울대학교)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24년 11월 30일

발행일: 2024년 11월 30일

인 쇄: 서울문화사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2024
|
01
|
52

2024년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

국립국어원

